콜라보 & 런칭패드
Collaboration & Launching Pad

디자인 트렌드 2023
DDP디자인페어 아카이브

Seoul Design Foundation
서울디자인재단

발 간 등 록 번 호
51-B552461-000005-0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ddp Design Fair

BEAUTIFUL LIFE

서울디자인재단

DESIGN TREND 2023

ddp Design Fair

소상공인 + 디자이너
Small Business & Designer

DESIGN TREND 2023

Beautiful Life

목차

006 Greeting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008 History
010 Then
012 Now

014 PART 1
DESIGN TREND

016 Design Trend
038 –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가 제안하는 컬러 트렌드

042 PART 2
콜라보레이션 제품개발 우수 120팀

베스트 어워드
046 드로잉캔들+전민우
048 어고스튜디오+전형호
050 라이트팹+모멘텀 스튜디오
052 레토릭+로앤김
054 원써드+아몬드 스튜디오
056 유싸스튜디오+COCS
058 아크플래닛+로이스토

060 PART 2-1 나를 찾아서
062 노스트로+HSJG
063 니들앤코+오렌지도어
064 드로잉캔들+손민식
065 라원_깨끗한 주방+포움
066 로이스토+오드오피스
067 르마블+계리
068 메라톤+라바우언
069 메탈라이브러리+오오오엘
070 모월+세컨드룸
071 박준희도자기+스몰스플레쉬
072 세라미꼬스튜디오+권영규
073 실리만+라이크모노핸드메이드
074 아우트로+비아컬렉티브
075 아이플레이스+홍경민
076 아주산업+젠디자인플랜
077 우디스트+인트
078 짐머만+까레데발렌시아

079 초타원형+손태선
080 초타원형+im.joooon
081 커먼플래닛+오세디자인
082 큐앤코+스튜디오 뮤트
083 태광로드텍+홍종휘, 정수현
084 티앤컴퍼니+라프리카라
085 빠레브주식회사+프리징기프트향원
086 피아즈+와이에이
087 한성교구+로우리트콜렉티브
088 황동메탈+권도연, 김산하, 송수빈
089 황동메탈+스튜디오 씰
090 PUM+스튜디오아직
091 RKRN+PACK

092 PART 2-2 **상상과 모험**
094 금호싸인텍스+리메이크
095 대성기계+빈지니
096 대성기계+주얼리스튜디오 수진
097 대한수제화협동조합+펜슨디자인
098 대한수제화협동조합+핸드플러스
099 동경금속+후스디자인
100 라익디스+강종길
101 르마블+스튜디오플라스틱
102 미식+박지선
103 미식+손태선
104 미식+이시산
105 보다.담다+발헤임
106 보다.담다+보니또
107 스튜디오김다은+김민준
108 아주산업+에프스퀘어스튜디오

109 어고스튜디오+최우영
110 오류엘리먼츠+손태선
111 오스오프+조영진
112 유싸스튜디오+장승태
113 이시산+이시평
114 짐머만+로이스토
115 커스텀빌리지+널스튜디오
116 커스텀빌리지+노디코마
117 프랙티스+안서후스튜디오
118 DSLSM+스튜디오페시
119 DSLSM+트로피크
120 DSLSM+SPTL

122 PART 2-3 **삶을 리셋하다**
124 감성공업+라이크모노핸드메이드
125 그라운닷+로앤신
126 그라운닷+토요가구클럽
127 그라운닷+파운드파운디드
128 그라운닷+HSJG
129 기브앤테이크+테일야드
130 대승테크+HSJG
131 디지털편백+우드스튜디오 움
132 모월+다린
133 목공방녹턴+에스투빅터
134 보다.담다+솥
135 새턴바스+스튜디오페시
136 아우트로+이목스튜디오
137 오드볼+프래그난츠
138 우드스튜디오 움+고정호스튜디오
139 우디스트+나너팀

140 우디스트+모두스튜디오
141 인디앤코+오래도록작업실
142 인디앤코+이수
143 펠리토+토요가구클럽

144 PART 2-4 **일상을 담다**
146 8월의홍시+더블랙
147 9E:83+스튜디오아직
148 그라운닷+에스투빅터
149 네임포네임+아찔
150 네임포네임+오투스튜디오
151 더버터컵가든+신민정
152 도담+정유주
153 드로잉캔들+로앤신
154 디쉐이프+전희원
155 디쉐이프+젠디자인플랜
156 라익디스+DSLSM
157 루다하우스+노디코마
158 리플렉쉘+실크도넛
159 메탈포인트+아키올로지
160 보쌈코웍컴퍼니+강상규
161 세라믹페이지+LHM
162 소품소생+디자인콜론디
163 소품소생+UUJP
164 손쓰세라믹+아찔
165 슬로우와이즈+크레카
166 신도아트+더블랙
167 신우철+라연수
168 어고스튜디오+빈지니
169 어바웃매터랩+스몰스플레쉬

170 오다+블루오션
171 우드스튜디오 움+세네카
172 유민+케라믹코드
173 의식주의+리메이크
174 의식주의+파운드파운디드
175 커먼플래닛+신우철
176 커스텀빌리지+프라이데이러브
177 큐앤코+라이크모노핸드메이드
178 플라스틱베이커리 서울+스몰스플레쉬
179 플레버스+수키 아카이브
180 alltag+스튜디오 뮤트
181 LHM+세라믹페이지

182 PART 3
런칭패드관

210 PART 4
DDP디자인페어 행사 소개

220 PART 5
디자인 전문가들의 시선

Greeting

Beautiful Life
우리의 일상을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2022 DDP디자인페어에 초대합니다.

〈DDP디자인페어〉는 청년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이 만나
세상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온·오프라인에서 개최되는 전시에서 선보임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시장에 진출하게 하는 의미 있는
플랫폼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 해를 맞게 되는 〈DDP디자인페어〉는
'Beautiful Life'라는 주제를 두고 소상공인과 디자이너가
이른 봄부터 준비하고 개발해온 상품과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였습니다.

작은 소품에서 공간,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역량 있는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트렌드와 아이디어가
소상공인의 기술과 제조역량을 만나
선보이는 매력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상품을 통해서
디자인의 산업적·공공적 가치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 지속가능한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소망과
메시지를 조명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디자인 2022〉 기간에 개최함으로써
〈DDP디자인페어〉가 소상공인, 청년 디자이너와 믿음직하게
동행하며 서울만의 새로운 디자인상품으로 서울시의
매력을 더하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에 부합하는
저력 있는 프로젝트로서, 그 역할과 가치를 더욱 단단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함께 미래와 희망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꿈꾸며
가능성이 현실로 실현되는 〈DDP디자인페어〉를 만들어
앞으로도 지속하겠습니다.

_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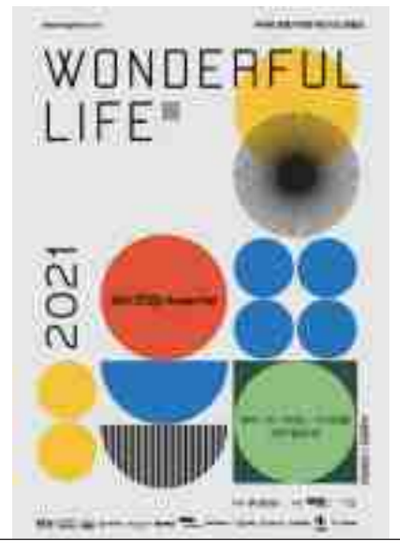
History

2019

참가자 — **269**
콜라보레이션 팀 — **43**
전시 방문객 — **32,111**

2020

참가자 — **124**
콜라보레이션 팀 — **103**
온라인 방문객 — **207,574**



2021

참가자 — **260**
콜라보레이션 팀 — **106**
런칭 — **64**
전시 방문객 — **21,397**
온라인 방문객 — **597,204**

2022

참가자 — **289**
콜라보레이션 팀 — **120**
런칭 — **69**
전시 방문객 — **90,345**
온라인 방문객 — **56,319**

4 years

576 Design Launching

383 Creators

603 Designers

861,097 Visitors

온라인 플랫폼 국내외 누적 방문객 (2022년 11월말 기준)
* 전시 플랫폼 ddpdesignfair-ex.or.kr
* 매칭 플랫폼 ddpdesignfair.or.kr

Then

아시아 디자인 허브로서 일상 속 가치를 더해주는
국내 최대 디자인 비즈니스의 장

2015-2016

- 2015년 활기를 잃은 조명산업에 다시금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의 실력과 디자이너의 감성을 모아 을지로 일대와 DDP에서 '을지로, 라이트웨이(Euljiro, Light Way)' 개최

2017

- '을지로, 라이트웨이' 프로젝트의 일환인 〈By 을지로〉를 통해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의 협업 콜라보레이션 제품 개발 시도
- 유통에 의존하던 을지로 조명 제조산업 생태계의 발전과 재활성화 가능성 확인

2018

- 동대문 제조 소상공인+디자이너 협업제품 개발 〈By 동대문〉 프로젝트 진행
- DDP에서 '동대문 DDP디자인마켓' 개최
- DDP 주변 지역상인과 디자이너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세스 마련
- 소상공인+디자이너 협력과 비즈니스 담론의 장 마련

2019

- 세상에 없던 런칭 제품만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 디자인 산업 비즈니스 런칭쇼' 제1회 개최
- 소상공인+디자이너 상시 매칭 무료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제품 개발, 계약의 자발적이고도 독립적인 프로세스 확산
- 민관협력체계 기반 마련을 통한 전문성 확보
- 조명 외 타 제조 산업군 활성화 및 유입 시도

2020

- 제2회 DDP디자인페어 : 코로나19 대응하여 국제 온라인페어로 개최
- 총감독 및 분야별 전문 큐레이터 영입 및 제품개발 멘토링을 통한 페어의 품질 강화
- 개발 제품에 대해 브랜딩, 마케팅, 양산, 활로 지원까지 확대
- 소상공인+디자이너 매칭 디자인 제품개발 수 수직적 상승
- DDP베스트디자인어워드 7선을 통한 스타 디자이너 양성

2021

- 제3회 DDP디자인페어 :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 소상공인+디자이너 매칭 우수팀 106팀으로 높은 지원 및 참여율
- 총감독 및 분야별 전문가 큐레이터들의 보다 디테일한 멘토링
- 디자인 신제품 런칭 및 디자인 트렌드 기업의 전폭적인 참여
- DDP디자인스토어 큐레이션 특별 마켓 운영

디자인과의 동행,
삶의 풍요로운 아름다움이 깃든 Beautiful Life

2022 DDP디자인페어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열정적이고도 유쾌한 협업은 많은 이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해 줄 세상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 제품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다.

행사명	[서울디자인 2022] DDP디자인페어
개최기간	2022년 10월 18일(수) ~ 10월 29일(금) (10일간) *서울디자인 2022 2022년 10월 19일(수) ~ 11월 2일(수) (15일간) 온라인 연중 상시 운영
개최장소	DDP 아트홀 2관, 서울시 주변, 온라인 동시 개최 www.ddpdesignfair-ex.or.kr www.ddpdesignfair.or.kr
규모	콜라보레이션 우수 120팀, 런칭 21개팀, 69개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소상공인+디자이너 120팀
제조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협업을 통해 실용성과 심미성을 더한 신제품 런칭

런칭
디자인 신제품 런칭 21개사
기발한 아이디어와 글로벌 감성을 담아 만들어진 신제품 런칭으로 K-디자인을 소개

B2B 바이어데이
페어 참여 디자인 기업의 성공적인 신제품 출시를 위하여 펼쳐지는 비즈니스 지원의 장

갈라디너: 디자인 네트워킹 파티
2022 DDP디자인페어 베스트 어워드 시상식과 함께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축제의 장

서울디자인산책: 서울디자인 2022 스폿
더 많은 시민이 디자인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 전역에서 엄선한 디자인 만남의 장

2022 DDP디자인페어 공식 큐레이터

콜라보

신태호
Maezm 공동대표

안강은
이네 아트매니지먼트 대표

정미
이온에스엘디 대표

조은환
Maezm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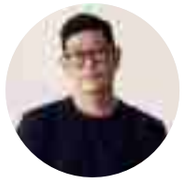
하지훈
계원예대 리빙디자인과 교수

런칭

마재철
㈜이노메싸 대표

박근하
루밍 대표

백종환
WGNB 대표


유화성
AGO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양태오
태오양스튜디오 대표

이달우
마음스튜디오 대표

이지현
코웨이 디자인전문가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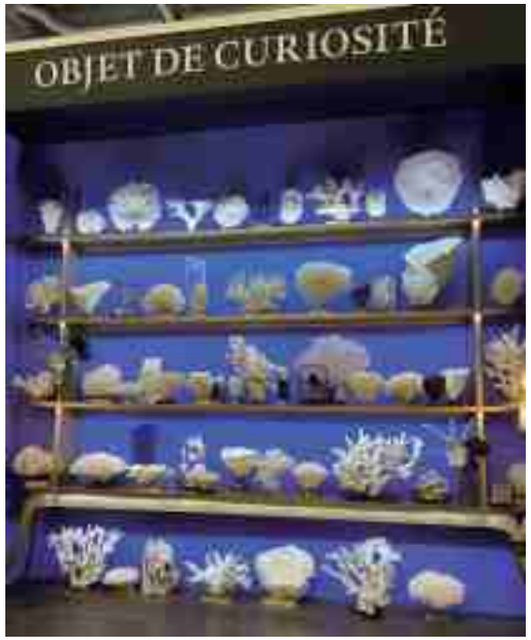
DESIGN TREND
DDP디자인페어 트렌드 11

자연으로부터의 영감

Elizabeth Leriche의 트렌드 전시회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은 여전히 인테리어에 대한 영감의 주요 원천이다. 한 예로 흙빛 색상과 소박한 분위기는 여전히 유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민족에서 영감을 받은 장식이 사랑받고 있다. 자연으로부터의 영감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바다에서 나오며 바다의 유동성을 연상시키는 많은 해양 테마 장식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세계가 에너지 위기의 한가운데 선 지금, 대안적 에너지인 태양에 주목하는 시의적절한 전시가 열렸다. 디자인을 통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전시 '에너지 쇼 - 태양, 햇빛 그리고 인간의 힘(The Energy Show - Sun, Solar and Human Power)'이 지난 9월 15일 개막했다. 태양전지를 품은 유리식기, 태양광 텍스타일을 활용한 셔츠, 햇빛을 이용한 충전식 조명 키트, 직사광의 에너지를 곧바로 음식 조리에 이용하는 태양광 조리기 등 태양을 이용한 인간의 노력은 더욱 획기적이자 실용적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by Leriche



by Harto

by Joe Sayegh

by Un-common

by Kronbali

쓰레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新 소재

일본의 한 디자이너가 선보인 최근의 작업은 다름 아닌 새로운 소재다. 기존의 통나무를 대체할 이 소재는 나뭇가지, 잎사귀, 나무껍질, 씨앗, 흙 등 보통은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던 숲 속의 요소들을 주 재료로 한다. 굳이 숲에서만 구할 필요는 없다. 거리, 공원, 정원, 공사현장 등 일상 속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부산물들은 이제 어엿한 주 소재의 재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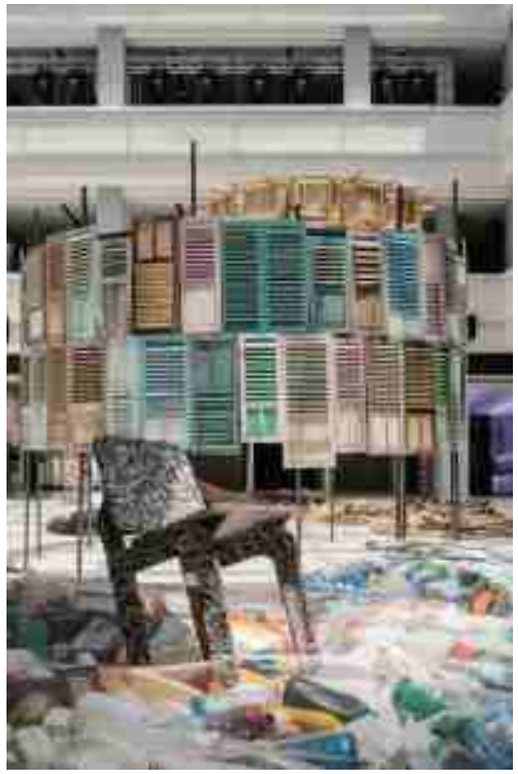
'전세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쓰레기가 상품이 됨으로써 다시 한번 진정 이로운 관계의 맺음에 대해 생각해 볼 시기이다'

@ANQA Studio

@inhabit a+Cooloo furniture

Studio Periphery, Courtesy of Potato Head and OMA

@Interesting Times Gang



TREND #03

진정한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이나 희귀 자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재료로 만든 제품이나 재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친환경 제품과 지속 가능한 제품의 구분이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레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구매 습관도 변화하고 있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라도 사용기간이 짧아 쉽게 버려지는 것 대신 재활용이 가능해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지구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으로 친환경 제품과 지속 가능한 제품의 구분이 더욱 중요하다 볼 수 있다.

소파 브랜드인 DFS는 오래된 가구에서 가능한 모든 재료를 재활용하는 회사인 Clearabee와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성 영역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DFS의 'Sofa Rescue'는 오래된 소파를 회수 및 재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Fuorisalone 2022 Source @www.fuorisalone.it

Four Tents. Courtesy of Simone Post

Courtesy of Fadaa Space; Courtesy of Dubai Design Week

Fuorisalone 2022 Source @www.fuorisalone.it

포장 폐기물 감소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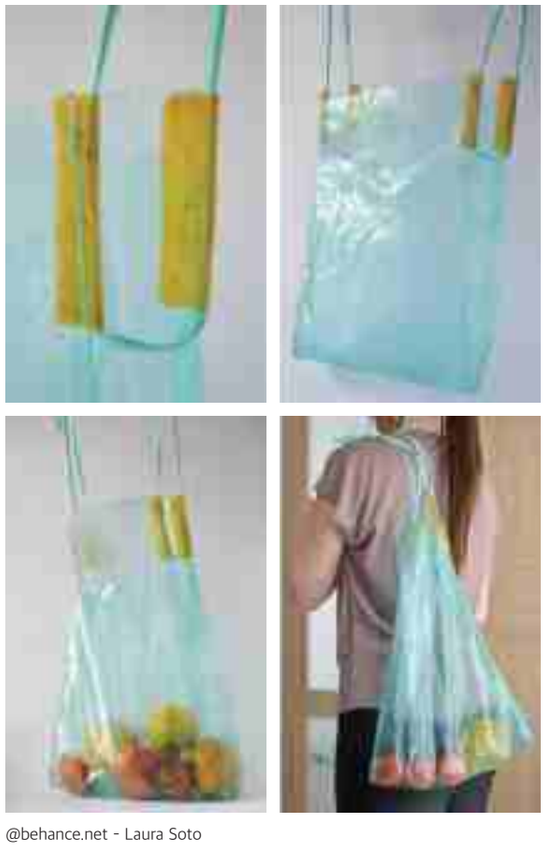
온라인 구매로 인해 제작 및 배출되는 포장 폐기물은 업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 배출원 중 하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보다 배출하는 폐기물이 6배나 많다고 한다. 이는 인류는 물론 기업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디자인 분야에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horr의 '지속 가능한 포장 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6%는 지속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더욱 노력했다. 또한 86%는 포장이 지속 가능한 경우 소매점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77%는 앞으로 더 많은 브랜드가 100% 지속 가능한 포장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렇듯 지속 가능한 포장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높은 편이다. (작년 기준)

@behance.net - Felix Bell

@behance.net

©DSLSM



@behance.net - Laura Soto

미래지향적 레트로와 빈티지

2022년 메종&오브제 에디션에서는 레트로와 빈티지 스타일이 강세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트로'와 '빈티지' 하면 떠올리는 분위기와는 또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레트로와 빈티지가 메타버스와 디지털 아트에서 영감을 받은 미래적인 미학과 짝을 이루어 매우 흥미로운 스타일로 새로운 디자인과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디자이너 Franklin Azzi의 전시를 비롯하여 다른 많은 디자인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Back to the Future'는 확실히 기억해야 할 트렌드이다.

Maison Dada by Goodmoods

The Beach Club. Architect Tristan Auer

So home hotel by Goodmoods

Franklin Azzi. Retro Futur exhibit

가속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23년에는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가상 및 증강 현실(VR/AR),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초고속 네트워크와 같은 변혁적 기술의 혁신과 개발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변혁적 디지털 기술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들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증강 작업, 하이브리드 및 원격 작업, 비즈니스 의사 결정, 수동 작업, 일상 작업 및 창의적 작업 등의 자동화를 위한 새로운 솔루션은 이러한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다. 이로써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상호 지원함으로써 사소하고 일상적인 작업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완료할 수 있는 '지능형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지점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한편 Ai의 도래가 디자인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커져가는 요즘, 실제 Ai를 브랜딩 디자인에 활용한 사례가 등장했다. 디자이너 제시카 월시(Jessica Walsh)가 이끄는 뉴욕의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월시(&Walsh)는 최근 원전 옹호 운동가 아이소도프(Isodope)의 브랜딩에 Ai를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활용은 디자이너들에게도 도전으로 여겨져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Berl Berl_Jakob Kudsk Steensen_Photo by David Stjernholm

Martin Sanchez, Unsplash Photo Community

@Diane Wallinger

@www.jakobsteensen.com

@Diane Wallinger

@Diane Wallinger

모두를 위한 럭셔리

"NEW LUXURY: FROM UBER LUXURY TO LUX POPULIS(최고의 럭셔리인 우버 럭셔리에서부터 럭셔리한 팝 문화인 럭스 포퓰리스까지)"는 2022년 메종&오브제의 메인 테마였다. NEW LUXURY는 장인 정신, 신기술, 대중문화에 뿌리를 두고 아시아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Goodmoods의 So home' 호텔에서 선보인 것처럼 집에서의 럭셔리가 점점 호텔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럭셔리'는 많은 아르데코(art deco)에서 영감을 받은 연출 요소, 끝없는 월페이퍼, 광택 및 래커 마감 등에서 볼 수 있는 고급스러움으로 정의되고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기에 사람들은 기존과 다른 것에 대한 감정과 환상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욕구와 필요성을 느낀다"

메종&오브제 상임위원
뱅상 그레구아르(Vincent Gregoire)

Sofa design by Charles Zana for Dedar

by teamlab

So home hotel by Goodmoods

풍부하고도 채도가 높은 색조

2023년에는 다크 레드, 브라운, 그린 컬러가 특히 주목받을 것이다. Meredith Ellis Design의 Meredith Ellis는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이제 많은 이들이 다시 여행을 다니면서 더 대담하고 두려움 없이 빨간색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벤자민 무어가 2023년 올해의 색상으로 밝은 레드와 오렌지가 섞인 컬러인 '라즈베리 블러쉬(Raspberry Blush)'를 선택하기도 했다.

Photography by AETHIONAETHION

Photography by AETHIONAETHION

Courtesy of Sanjyt Syngh Objects + Spaces

Courtesy of Sanjyt Syngh Objects + Spaces

행복 그리고 유쾌함

약 2년간의 펜데믹이 지난 후 다양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홈데코(Homedeco)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이라는 공간에 창의성과 즐거움을 더하게 한다. 재미있는 모양, 창의적인 패턴, 둥근 모서리가 있는 다채로운 디자인은 수년 간의 미니멀리즘과 그레이와 베이지 컬러에 대한 반응으로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쾌함과 즐거움을 주는 인테리어에 이어 몸과 마음을 세심하게 고려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성장하고 있다. Leslie Banker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Leslie Banker는 "사람들은 집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디자인이 자신의 공간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집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자신과의 건강 및 행복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려고 하는 욕구가 2023년 대부분의 디자인 결정을 지배할 것이다.

Le Caf by Uchronia studio and designer Julian Sebban

Maison Matisse by Cristina Celestino

Jules by Maison Dada

Bosa at Maison et Objet

멀티플레이어 공간으로의 확장

최근 집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공간의 쓰임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팬데믹으로 외부 활동 보다는 개인적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집은 휴식과 충전의 공간을 넘어 재택근무를 위한 홈 오피스, 지인들과 소소한 파티를 즐기는 아지트까지 일, 공부, 운동, 여가생활 등 일상의 모든 활동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 연출이 요구되고 있다. 모듈형 혹은 다용도 가구를 활용해 공간의 기능을 쉽게 변화시키거나, 공간 분리 아이템으로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한편 재택 근무를 마치고 일터로 복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사무공간이 업무 공간으로서의 집과 경쟁하게 된 지금, 기업들은 사무공간을 새롭게 생각하고 있다. 과거 물리적 공간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근무환경, 프라이버시, 경험 등 직원을 중심에 둔 요소들을 고민하는 중이다. 팬데믹 이후 '일터로의 복귀' 전략에 발맞춰 사무용 가구 역시 변화하고 있다.

Spotify offices work from home dezeen

Spotify offices work from home dezeen

Kinzo

Kinzo

Spotify offices work from home dez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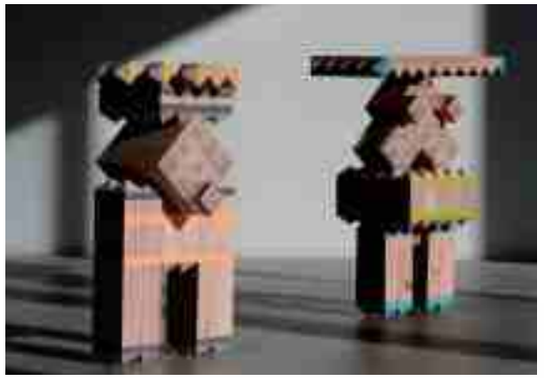
모듈형 가구의 반전

개인의 스타일을 표출하는 공간 연출에는 능동적으로 맞춤 구성할 수 있는 모듈형 가구가 제격이다. 분해와 조립을 직접 하며 쓸모를 만들어가는 재미 또한 쏠쏠하며, 취향과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확장, 축소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다. 사용자의 기호에 맞춘 다채로운 옵션으로 무한한 조합이 가능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공간에 따라 변형이 가능한 모듈형 가구는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다.

yankodesign

yankodesign

yankodesign



yankodesign

yankodesign

yankodesign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가 제안하는 2023-2024 컬러 트렌드

글로벌 매크로 트렌드를 살펴보면 팬데믹 기간동안 지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진정한 휴식과 웰니스가 재조명되고 이모셔널 웰빙emotional well-being에서 쾌유의 개념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에코 등의 키워드가 강조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은 현실 세계의 디지털화, 현실과 디지털 세계가 혼재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는 개인의 디지털화, 초개인화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개념이 새로운 가치에 대한 키워드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사회 전반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5개의 주요 지표를 정했다. 이후 각 지표들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테마 4가지를 도출하였다. 각 테마별 사례 분석과 대표 컬러 추출을 통하여 2023-2024 쉬프트 컬러 디렉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_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장 이상화

@shutterstock.com

@shutterstock.com

① 지속가능성(ECO)

지속가능성이란 착한 생산, 착한 소비, 착한 상호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다양성과 포용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MZ 소비자들에게도 인기 키워드인 비건, 제로 플라스틱과 같은 개념 있는 가치소비를 시작으로 순환 디자인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② 웰니스(Wellness)

단순한 휴식을 넘어 정신적, 감정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심신의 건강 전반을 뜻한다. 숙면의 중요성은 물론, 스마트기술과 과학적 접근에 의한 새로운 셀프 케어의 개념까지 확대되고 있다.

③ 사회적 변화

팬데믹으로 인해 개인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적 문화는 각자의 특성을 점점 강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러한 변화는 트렌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④ 테크놀로지(Technology)

기술의 발달로 현실과 가상이 혼재 되는 등 새로운 환경이 나타났다. 미래지향적 기술은 주거 공간과 이동공간 등 공간적 측면의 가능성은 물론, 새로운 디자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현실의 디지털적 요소들이 혼재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의성이 창출되고 있다.

⑤ 본질적 가치(Exclusive)

산업 전반의 변화에 따라 '가치'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럭셔리'의 개념은 그동안 보편적으로 떠올리던 개념에서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가치를 더 존중하고 중시하는 측면에서의 '새로운 럭셔리'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글로벌 매크로 트렌드 토대로 분석한 5가지 지표 토대로 도출한 4개의 테마를 소개한다.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가 제안하는 2023-2024 컬러 트렌드

Theme 01
혁신적 창의성 Fresh Crush
#창의성 #독보적인 #감각

- 개인이 본인의 관심사로 수익까지 창출하는 시대이다. (Micro-entrepreneurs)
- 환경보호, 인권, 다양성, 반전(反戰) 등 긍정적 메시지를 담은 행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Positive Activism)
- 레저, 유흥에서도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중시한다. 또한 격리로 교육 제약이 있었지만 오히려 디지털화되어 창의 커뮤니티가 강화되었다. (Pursuit of Value & Knowledge)
- 팬데믹으로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은 Z세대는 오히려 미래를 생산적으로 대비하고 창의적인 자기 표현에 적극적이다. (Optimist & Creative)

Color Direction
- 스트롱톤, 비비드톤의 컬러 강조
- 각 컬러들의 풍부한 색감 연출

Lively Red / Sunshine Apricot / Lime Sherbet / Lagoon Blue / Royal Blue

Theme 02
감성적 케어 Emotional Care
#셀프케어 #감성 #치유

- 조명, 향 등을 활용한 명상적 공간 등 이모셔널 웰니스(Emotinal Wellness)를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셀프 케어의 기본이 수면과 숙면으로 옮겨졌다. (Restorative Solution)
- 총체적 의학(Holistic Health)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새로운 스마트 기술 증가로, 웰니스 산업은 2025년 기준, 2020년 대비 60% 증가한 수치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Global Wellness Institute, 2021)
- 전세계 직장인 53%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일보다 건강과 웰빙을 우선시한다. (Microsoft의 2022 Work Trend Index)

Color Direction
-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부터 투명파스텔 컬러 지속 강세
- 페일, 라이트 뉘앙스 컬러 등 더욱 차분하고 모던한 방향의 연출

Korea Wheat / Pinky Sand / Espresso / Thyme Green / Forest

Theme 03
디지털 & 테크 Meta Punk
#융합 #디지털 #테크노 에스테틱

- 미래형 테크놀로지는 공간의 기능성,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과 가상 요소를 혼합시키면서 새로운 창의성을 창출시킨다. (Techno Aesthetic)
- 현실과 가상의 혼합 현실, 초현실적 디지털 표현이 비현실적 컬러와 텍스처로 표현됨에 따라 과감하고 실험적 디자인 경향이 나타난다. (Mixed Realities)
- 공간, 패션, 레저, 게임 등 몰입형 활동은 물론 사회적, 문화적 경험이 가능한 디지털 공간 '메타버스'를 통해 더욱 자유로운 표현 및 초현실적 비주얼 기반의 실험적 경험이 늘어난다. (Metaverse)
- 가상현실, 혼합현실이 확대되는 동시에 변하지 않는 본질과 현실에 대한 모티프가 대자연의 키워드로 강렬하게 표현된다. (Steady Reality)

Color Direction
- 디지털 웰니스와 디지털 세계를 꿈꾸게 하는 감각적 컬러
- 브라이트톤의 컬러 부상

Balloon Blue / Orange Fizz / Poster Green / Digital Lavender / Sepia Mauve

Theme 04
본질적 가치 Timeless Value
#의식있는 #타임리스 #고급스러운

- 팬데믹으로 여행이 제한됨에 따라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 자체를 추구하는 이들을 위해 로드 트립, 캠핑카 등의 키워드가 급상승했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교통수단 등의 움직임이 있다. (Eco-conscious Green Travel)
- 많은 브랜드들이 스마트폰, 가전 등에 스티로폼, 플라스틱 패키지를 대체하여 대나무, 사탕수수 등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Recycled Materials)

Color Direction
- 따뜻하고 화사한 브라운 계열 컬러 강조
- 풍부하고 유기적인 버건드톤의 레드 사용
- 촉감을 강조하는 화이트톤

Snow White / Terracotta / Vin Chaud / Tidal Pool / Onyx Black

PART 2

소상공인+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우수 120팀

베스트 어워드
Best Award
7

삶을 리셋하다
Reset Life : Calming Coral
20

나를 찾아서
Find Persona : Living Coral
30

상상과 모험
Imagination and Adventure :
Lavender
27

일상을 담다
Keep the daily Life : Verdigris Green
36

이보다 더 어려울 순 없었던 우수팀 선정의 시간

2022년 DDP디자인페어 콜라보레이션 제품개발 우수 매칭팀 선정 심사

기대 이상의 우수한 제품들로 심사 현장은 짜릿한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심사 과정 내내 우수팀 결정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남을 정도로 어려웠던 시간이었다고, 참여한 심사위원들의 짧은 소감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

2022년 8월 18일,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통해 매칭 확정된 180여 팀 중 실물 제출한 166팀들의 기획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상품력이 깃든 제품들이 속속 도착하며 하나 둘씩 심사 테이블 위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결코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완성된 제품인 만큼 매칭팀들의 집중도는 최고조에 달했을 터. 그에 따라 완성된 제품들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2022 DDP디자인페어의 주제 'Beautiful Life'에 걸맞게 사람을 위해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공존하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들은 콜라보레이션 큐레이터들의 멘토링과 더불어 상품 제작 진행 시 계약 등에 관한 법률 상담과 전문 교육 등을 지원받으며 진행되었다.

2022년 DDP디자인페어 콜라보레이션 제품개발 우수팀 선정 심사는 가구, 조명, 생활소품, 패션&뷰티 분야로 나뉘었다. 심사는 콜라보레이션 큐레이터와 런칭 큐레이터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심사위원들이 참여, 각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내고 수렴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양산 가능성, 시장성, 실용성을 겸비한 '상품성'과 '전시 적합성' 그리고 혁신성과 신기술, 소재 융합 등이 내재된 '창의성'이 주요 평가 기준이었으며, 심사위원별 점수의 총합 및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우수팀을 선정하였다. 우수팀으로 선정된 120팀은 10월 열린 DDP디자인페어 온·오프라인 전시에 참여하였고, 제품개발비를 지원 받는 기회를 얻었다. 또한 120팀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상위 6팀, 온라인 시민 투표를 거쳐 1팀, 총 7개팀이 '베스트 어워드'로 선정되었다. 서울시장상을 수상하게 된 이 팀들은 제품 양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

드로잉캔들 — 전민우

방염 패키지가 촛대로 변신하는 ‘사각 양초 Square Candle’

소상공인

드로잉캔들

디자이너

전민우

양초를 켜면 은은한 향기가 공간 안에 퍼진다. 향이 번지는 형상을 옮겨 놓은 그라데이션 패키지에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숨겨져 있다. 바로 패키지가 촛대로 변신한다는 것. 촛대가 따로 없어도 방염 종이가 합지된 패키지를 조립하면 일회용 촛대로 사용할 수 있다. 플로럴, 우디, 허브, 시트러스 4가지 향으로 구성된 각진 사각 양초는 네모난 형태 덕분에 캔들을 쌓아 두었을 때 조형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둥근 형태의 기존 캔들보다 보관과 운송 및 재고 관리 차원에서 큰 장점이 있다. 판매하는 이에게는 편리를, 사는 이에게는 양초와 촛대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짜릿함을 안겨준다.

소상공인 드로잉캔들

Q1 DDP디자인페어 참여 계기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다 보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만 개발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외부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토대로 브랜드를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Q2 드로잉캔들에게 협업이란

협업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 분들이 양초 시장에 대해 생각하는 지점 그리고 향후 드로잉캔들이 지향해야 하는 지점에 대해 많은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제작 과정이나 마케팅 방법 관련해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많은 것을 배웠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Q3 이번 제품에 반영된 최근 트렌드나 이슈가 있다면

손쉽게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기프트 시장이 커지다 보니 양초를 선물하는 용도로 구매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사각 양초는 양초 외 촛대를 구매해야 하는 부담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Q4 페어를 통해 드로잉캔들이 기대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할 때 발생하는 시너지가 큰 만큼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른 창작자분들을 만나고 협업 제품을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페어의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층을 만나 제품을 직접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다려졌습니다.

디자이너 전민우

Q1 DDP디자인페어와의 만남은 처음이신가요?

작년에는 DDP 브랜드상품 청년디자이너로 선정되어 전시에 참가 했었고, 올해는 소상공인과 디자이너 매칭으로 페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DDP와는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Q2 이번 협업 제품의 방향성은

드로잉캔들 공장에 방문하여 직접 양초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통해 생산과 상품화 관점에서 다양한 디자인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양초 색상이 자연스럽게 블렌딩되는 드로잉캔들의 테크닉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어내려 했고, 동시에 패키지 재활용을 목표로 지기 구조를 연구하고 디자인했고요. 초반에는 삼각기둥 형태로 기획했었는데, 샘플링을 진행하며 양산의 편의성이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사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하나씩 해결하는 협업 과정에서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Q3 특별히 반영한 트렌드가 있다면

요즘은 제품이 단순히 사용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산되고 버려지는 것까지 전반적인 사이클을 고려하는 디자인 시도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양초를 감싸는 패키지가 단순히 안전하게 상품을 보호하는 목적 외의 활용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그 결과 ‘촛대’의 기능을 더하는 식으로 디자인을 풀었습니다.

Q4 매칭을 통한 협업이 처음이셨는데 힘든 부분도 있었나요?

힘든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양초 제작 공정에 대해서 직접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몰드 종류에 따라 결과물 마감도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것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드로잉캔들 대표님의 노하우가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5 페어를 마무리 한 후, 향후 목표가 궁금합니다

우선 양산 관련한 이슈들이 많아 문제 없이 잘 해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페어를 통해서 디자이너로 대중과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앞으로 재미있는 협업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고 스튜디오 — 전형호

유기적 조형감의 생명력을 담은 사이드 테이블, ‘The leaf series’

소상공인

어고 스튜디오

디자이너

전형호

형태만 보면 사이드 테이블이라는 용도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기존 가구의 수직수평 구조에서 벗어나 유기적 형태의 유연한 곡선이 돋보이는 The leaf series는 건축 기법 중 하나인 캔틸레버 구조를 이용해 디자인했기 때문이다.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는 상태의 보를 뜻하는 캔틸레버는 다양한 형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있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조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이유로 제품 디자인 요소로 채택되었다. 가구의 기능적 쓰임을 넘어 장식적 요소가 강조된 오브제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 제품! 유연한 곡선의 형태로 인해 기존에는 대량으로 제작하기 힘들었지만, CNC 조각기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소상공인 어고 스튜디오

Q1 DDP디자인페어에 처음 참여하셨나요?

네, 첫 참여입니다.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와 작년부터 눈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빙 퍼니처를 다루는 소상공인인데 아트 퍼니처 디자이너와 협업하게 된다면 제작 경험에 있어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 기대하여 참여했습니다.

Q2 협업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협업이다 보니 원활한 소통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어요. 서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작업 방법들이 있다보니 다양한 조언과 피드백을 나눌 수 있었고, 각자의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협업 과정의 장점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3 아쉬운 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디자인과 제작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나무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포기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아쉬움이 남았고요. 그 외에는 저희의 기술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디테일을 완벽하게 실현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4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협업 제품 제작이라는 목표를 넘어 함께 한 디자이너와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저희의 작업물이 많이 홍보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디자이너 전형호

Q1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신 이유는

신진 작가나 신생 브랜드들이 대중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알리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기회들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한 개인이 아닌 팀으로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느껴져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협업 제품 디자인 시 주목했던 것은?

가구 외의 다른 제품군들은 발전된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반해 가구는 큰 틀의 수직, 수평의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기존 가구에 대한 통념을 뒤엎고 더욱 생동감이 넘치는 오브제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구를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행태는 곧 하나의 생명이다”라는 컨셉으로 부드럽게 구부러지는 선과 역동적인 입체의 실루엣에 생명력을 표현하고, 변형적인 선을 통해 비가시적인 생명력이 담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Q3 협업 과정은 어떠했나요?

소상공인 측에서 디자인 관련 부분은 제가 전담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디자인을 풀어가는 과정이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캔틸레버 구조로 인해 지지하는 부분이 없다보니 중심축을 잡기 어려웠어요. 목업(실물 모형) 작업을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쌓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가구를 보는 관점이나 제작 경험 등이 서로 다르다 보니 혼자 작업할 때보다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Q4 협업 이후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협업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디자인이 대량 제작되는 프로세스를 직접 볼 수 있었고, 좋은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완제품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상품성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술,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성장하면서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라이트팹 — 모멘텀 스튜디오

세상 유니크한 조명으로 탄생한 원자 구조, ‘아토믹 케이지 Atomicage’

소상공인

라이트팹

보자마자 유니크함에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는 이 조명, 원자(Atom) 구조에서 착안한 형태를 케이지 프레임에 접목시켜 만든 ‘아토믹 케이지’이다. 조명을 보호하는 컨셉트로, 전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주변의 원형 프레임들이 구체 형태의 조형을 형성함으로써 내부의 중심인 전구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고안한 조명이다. 프레임의 고정축은 윙볼트로 조절 가능하며, 고정축을 풀면 하나의 동심원을 그리는 형태로 되돌아와 교체가 용이도록 설계되었다. 산업 현장 뿐 아니라 엣지 넘치는 리빙 오브제로 어디에서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소상공인 라이트팹

Q1 협업 상품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는데 어떠세요?

일반적인 조명 제품 위주로 작업하던 형식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멘텀 스튜디오와의 협업을 통해 참신한 디자인의 조명을 만들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Q2 협업 이후의 목표점이랄까요,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디자인 및 개발 과정이 마무리되면 제품 양산을 거쳐 실제로 출시할 예정이고, 추후에는 후속 제품 개발까지 진행하여 꾸준한 교류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Q3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디자이너와 교류하며 폭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고, 매해 국내 디자인 트렌드와 흐름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참가자들과 DDP디자인페어가 함께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하여,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디자이너와 소상공인들에게 다채로운 기회와 경험의 장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이너

모멘텀 스튜디오

디자이너 모멘텀 스튜디오

Q1 벌써 3회째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상적인 경험을 만들었고, 더 다양한 분들과 폭 넓은 디자인 경험을 쌓기 위해 올해 재참여했습니다.

Q2 독특한 특징의 협업제품에 반영된 이슈가 있을까요?

최근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련 이슈가 여러 곳에서 불거짐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조명 제품군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조명 설비가 구축되지 못한 산업 시공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현장 작업의 진행을 보조함으로써 생산성에 기여하는 제품, 그리고 높은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공간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며 원활한 유지/보수가 가능한 제품을 고안하고자 하였습니다.

Q3 협업 과정 시 어디에 중점을 두셨는지요

협업한 라이트팹은 오랜 기간 조명 산업계에서 수많은 경험을 가진 브랜드이기에, 진행하며 조명 디자인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새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품을 실제 생산하기 위한 설계와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레토릭 로앤김

간결함 속에 숨은 의미, ‘커틀러리 세트 Rhetoric Cutlery Set’

소상공인

레토릭

디자이너

로앤김

로앤김과 레토릭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도 심미적 감각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사용자들을 위한 커틀러리 세트를 제작하였다. 레토릭의 원형 도시락 키트는 ‘원’이라는 조형언어를 통해 매일 반복되는 루틴의 힘과 리사이클링 철학을 강조한다. 커틀러리 세트는 이러한 도시락 키트의 디자인 스토리와 맥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간결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스푼, 포크, 나이프는 겹쳐 놓을 수 있으며, 뒤에 뚫린 구멍에 고리를 걸 수 있도록 해 휴대성을 강조하였다. 점점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몸소 실천할 이들에게 딱 맞춤인 제품이다.

소상공인 레토릭

Q1 DDP디자인페어 참여하신 계기는

레토릭은 명확한 디자인 솔루션으로 환경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저희의 첫번째 프로젝트인 환경적 실천을 독려하는 ‘도시락 키트’의 확장성을 고민하던 차에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2 협업 제품을 소개해주세요

펜데믹을 계기로 우리는 식생활에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레토릭이 주목한 것은 SNS 상 ‘#용기내’ 해시태그 같은 환경적 실천과 연계된 다회용 식기였습니다. 이에 친환경 소재의 도시락 키트를 우선 개발했는데, 최적화된 구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협업을 통해 스푼, 포크, 나이프로 구성된 커틀러리 세트와 친환경 실리콘 밴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우리 사회 속 식문화를 되짚어 보고 시의성 있는 친환경 이슈와 디자인의 연계성, 식사 행위와 환경의 필연적 연결이라는 스토리텔링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해요.

Q3 협업 제품을 제작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나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빨리 결정되었고, 시제품 제작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어 놀라울 정도였어요. 다만 제품의 화보 이미지를 여러 컨셉으로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빠듯해서 한 가지 컨셉으로만 진행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나중에 제품을 양산하는 단계에서 컨셉 베리에이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Q4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한 소감이 있다면

로앤김의 적극적인 태도와 열정적인 창의성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함께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결과물까지 잘 나와서 대만족입니다. 게다가 베스트 어워드까지 수상하게 되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참고로 레토릭이 10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DDP 뮤지엄 3층 둘레길 갤러리에서 열리는 DDP 오픈큐레이팅 vol.23 〈도시락 RE:BOOT - 나를 챙기는 삶〉 전시를 하고 런칭관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DDP디자인페어 기간 동안 레토릭의 다양한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보여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디자이너 로앤김

Q1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여했습니다. 작년에는 한지 공예 작가 ‘클레시드라’와 공동 작업을 했었는데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재료를 다루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제품이 여러 매체에 소개되면서 큰 보람을 느꼈기에 올해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2 이번 협업 제품의 주안점은 무엇인지?

레토릭의 기존 브랜드 감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원이라는 디

베스트 어워드 4

자인 언어를 바탕으로 한 미니멀하고 감각적인 커틀러리 세트를 디자인하려고 노력했어요. 원은 복잡한 세계 속에서 기본적인 미학과 무한한 가능성, 더불어 리사이클링과 루틴의 힘을 의미합니다.

Q3 협업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제 마음대로 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브랜드를 위한 제품을 디자인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미팅을 자주 하면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나갔습니다.

Q4 DDP디자인페어 이후 계획을 알려주세요

2022 프랑스 파리 메종 오브제에서 이번 결과물을 전시하게 되었어요. 레토릭에서 향후 투자를 받아 제품을 양산할 계획인데, 이번에 맺어진 인연으로 지속적인 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써드 — 아몬드 스튜디오

스테인리스 그릇의 유니크한 변신, 팬던트와 테이블 램프 ‘Unstack Series’

소상공인

원써드

디자이너

아몬드 스튜디오

스테인리스의 차가움과 나무의 따뜻함을 동시에 품고 있는 램프. 은은하게 퍼지는 조명 빛은 아늑함이 느껴진다. 황학동 주방거리 중고용품매장에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스테인리스 그릇을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조명들이다. 쓰임을 다하고 방치된 그릇들이 인상적인 조명으로 탈바꿈한 것인데, 비교적 간단한 가공을 통해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탄소와 폐기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팬던트 램프인 동시에 탁상형, 플로어형 램프로도 연출이 가능해 유연한 실용성까지 놓치지 않았다. 도심제조업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몬드 스튜디오의 디자인에 원써드의 업사이클링 철학이 더해져 두 팀 모두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제품이 탄생했다.

소상공인 원써드

Q1 DDP디자인페어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황학동 주방거리에 위치한 원써드는 ‘불필요한 제조 및 소비를 줄이자’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원써드에서 진행했던 업사이클링 작품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아몬드 스튜디오의 조수아 디자이너가 협업을 제안해 주셨어요. 원써드가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Q2 협업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방법은?

식당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이 스테인리스 그릇인데요. 많이 쓰이는 만큼 멀쩡한 중고 제품들이 이곳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소재를 이용하는 것이 진정한 ‘새활용’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테인리스 소재 특성상 강한 강도로 인해 자르거나 구부리는 등의 형태 변형 및 재가공이 쉽지 않았어요. 구멍을 뚫거나 얕은 접시를 접는 것 등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오히려 단순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Q3 협업 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황학동 주방거리 인프라 활용 경험과 아몬드 스튜디오의 을지로 도심제조업 인프라 활용 경험이 저희들의 협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혼자 작업할 때보다 폭넓은 아이데이션이 가능했고 시도해보지 않았던 제작방식과 재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Q4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DDP디자인페어는 주제나 제품 카테고리 등에 큰 제한이 없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나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어 좋았어요. 앞으로 다양한 디자이너팀과 소상공인팀의 교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어가 끝난 후에도 개인적으로 협업을 진행할 상대를 찾는 좋은 장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첫 참여를 계기로 앞으로 매년 참가할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아몬드 스튜디오

Q1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작업하던 기존 영역에서 확장되어 다른 영역의 작업까지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소상공인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어 재참여하게 되었어요.

Q2 이번 협업 제품의 제작 과정과 방향성을 설명한다면

스테인리스 그릇을 타공해 조명의 갓으로 활용하였고, 전구

가 고정되는 부분은 나무를 돌려 깎아 만들었습니다. 중고 주방용품을 업사이클링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선 황학동 주방거리에 쌓여져 있는 여러 소재 중에 어떤 소재를 선택할 지에 대한 고민부터 했어요. 소재의 활용과 확장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거든요. 황학동에는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가게들에서 나온 주방용품들이 늘어가지만, 이를 찾는 수요는 줄고만 있어요. 어두운 창고에 쌓여 있던 주방 용품들이 새로운 용도로 다시 태어나 빛을 냈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아 조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Q3 협업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황학동 주방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소재를 구매하고 어떤 제품으로 만들지 함께 고민했어요. 지역 특성이나 자원 등을 상세히 알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협업을 통해 디자이너로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할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Q4 협업 이후의 과제나 목표가 있을까요?

중고 스테인리스 그릇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시리즈를 이어나가고 싶어요. 다양한 모양의 그릇들을 조합해 조명의 형태를 확장시키는 것에 더해 조명 외의 제품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 황학동에는 멜라민 그릇도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소재를 활용한 제품도 개발해 보려고 해요.

Q5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얻은 것은?

업사이클링 제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소재 특성상 제한 요소 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경험 그리고 업사이클링 진행 시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를 알게 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싸 스튜디오 — COCS

자연물을 닮은 자연 소재의 발매트, ‘침식 프로젝트 Erosion Project’

소상공인 — 유싸 스튜디오

디자이너 — COCS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자연 곳곳의 지형은 시간이 축적되며 만들어진 흔적이다. 바람에 의한 운반, 파도에 의한 침식, 화산의 폭발 등을 통해 자연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낸다. 불규칙적인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욕실 용품인 ‘Erosion Project’는 이러한 지형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자연의 선’을 모티프로 제작되었다. 물을 흡수하는 규조토를 활용한 소재 실험의 결과로 탄생한 발매트는 실용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갖추었다.

소상공인 유싸 스튜디오

Q1 협업 제품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Erosion Project는 시간의 흔적인 침식, 풍화 작용을 제품으로 재해석한 제품이에요. 욕실과 거실의 경계에 있는 발매트라는 매개체에 사용자의 시간과 기억을 담으려 했습니다.

Q2 제품 제작 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생소한 재료이다 보니 제작에 들어가는 규조토의 비율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샘플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Q3 협업 과정 시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

행사 주제에 맞추어 사용자의 공간에 시간과 기억을 담는 “뷰티풀 라이프”라는 컨셉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또한 침식 작용을 통해 자연이 만들어내는 곡선을 시각적으로 제품에 구현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발에 편안한 느낌을 주고자 했습니다. COCS 박채원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하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인 욕실 용품을 제작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Q4 DDP디자인페어 참여 소감이 있다면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났을 때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고 또 이것을 창의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협업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디자이너 COCS

Q1 DDP디자인페어는 어떤 계기로 참여하셨나요?

작년에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DDP디자인페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색다른 소재와 공법에 대한 갈증이 많았는데, 저의 이러한 욕구와 협업 프로그램의 취지가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참여했습니다.

Q2 협업 제품 디자인 시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점이 있다면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었기에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전달하는 것에 방향성을 두었어요. 그러한 방향성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만들어낸 지형’에서 모티프를 찾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품의 주 재료는 흙(규조토)으로,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의 순환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지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Q3 협업 과정은 어떠했는지

저는 고화도에서 소성하는 생활 자기를 주로 디자인했어요. 기존 작업과 이번 작업 모두 흙을 재료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새로운 재료와 제작 방식을 시도한 면에서 차이가 있지요. 협업을 진행하면서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법을 시도해 볼 수 있어서 값진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며 서로 성장할 수 있었기에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4 협업 이후의 목표나 계획이 궁금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곁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불변의 것들이 주는 편안함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편안함을 전달할 수 있는 작업들을 진행해보고 싶어요.

아크플래닛 — 로이스토

발상의 전환에 재미를 더한 수납장, ‘도모 DOMO’

소상공인

아크플래닛

디자이너

로이스토(신지호)

기존의 수납장과 확연히 다른, 진정한 발상의 전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수납장이 있다. 일반적인 수납장이 문을 열고 닫는 행위만 가능하다면, ‘도모’는 Door Motion, 즉 문의 개폐방식에 변화를 주어 움직임을 통한 재미를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아크릴 소재의 문도 눈길을 끄는데, 착색 기술을 통해 무궁무진한 색의 조합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그라데이션 색을 선택하여 각자의 개성과 취향을 맘껏 드러낼 수 있으며, 아크릴의 투명함으로 인해 공간 속 은은한 분위기도 즐길 수 있다.

소상공인 아크플래닛

Q1 DDP디자인페어에 재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도전적인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통해 아크릴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멋진 결과물을 창조하는 기쁨이 있었기에 DDP디자인페어에 재참여했습니다.

Q2 협업 제품 구현 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도모는 세상에 없는 독특한 수납장입니다. 아크릴의 투명도와 발색 특성을 활용한 아름답고 기능적인 제품인데, 아크릴의 까다로운 가공성으로 인해 기능적 구현에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용 부품을 변경하고 수차례의 시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Q3 협업 과정 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협의 과정을 통해 디자이너의 기획 의도를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각자의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했습니다. 현업의 빠듯한 일정으로 중도 포기를 생각했을 만큼 힘들었지만,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보람찬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로이스토(신지호)

Q1 DDP디자인페어에는 처음 참여하셨나요?

네, 처음 참여했습니다. 다년간 회사의 일원으로 5성급 호텔 프로젝트를 하며 다양한 공간의 가구를 디자인했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이너로서 무대에 오를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는데 우연히 DDP디자인페어를 접하게 되었고 나의 첫 무대를 DDP디자인페어에서 펼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2 협업 제품에 반영한 최근 트렌드가 있다면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맞춤형 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모의 문도 착색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어요. 색의 표현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거나 집안 전체의 톤을 맞추어 통일감 있는 인테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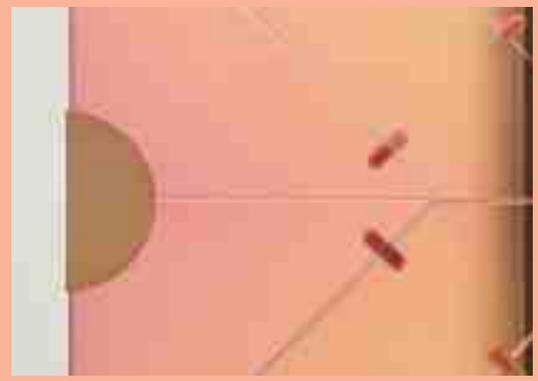
Q3 협업 과정 시 어디에 중점을 두셨나요?

협업을 하며 중요하게 여긴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보다 많은 자료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입니다.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이었고, 하드웨어를 접목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도전이었는데요. 실제로 제작 기간도 다소 부족해 어려움은 더 컸지만, 소상공인과 서로 소통하며 틈틈이 자료를 공유하였고 전시 전날까지 밤을 세워가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Q4 협업 이후의 과제가 있나요?

도모의 하드웨어는 기성제품의 구성을 따라 설계하였습니다. 향후 도모의 개폐 방식을 정밀화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하드웨어 구성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도모의 디자인은

유지하되 개폐 방식의 모션이 없는 일반 가구의 특성을 가진 베이직 라인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PART 2-1

소상공인+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우수 120팀

(나를 찾아서
Find Persona : Living Coral)

#페르소나
#자기보상선물
#소박한 풍요로움

노스트로 — HSJG

고급스러운 깜찍함, 위빙 도그 백 Weaving Dog Bag

소상공인

노스트로

디자이너

HSJG

앙증맞은 가죽가방을 매고 있을 강아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하네스와 리드줄을 겸한 '도그 백(Dog Bag)'은 반려인과 반려견의 즐겁고도 위생적인 산책을 위해 만들어졌다. 기능적 편리함을 위해 가죽가방에는 트임을 만들어 배변 비닐봉투를 뽑아 쓸 수 있도록 했으며. 가죽가방과 가죽 핸들을 이어주는 로프는 취향대로 소재와 색깔을 교체할 수 있어 개성적인 연출이 가능하다. 반려인의 편리와 개성은 물론 반려견의 고급스러운 멋까지 돋보이도록 한 제품이다.

소상공인 노스트로

"DDP디자인페어에서 맺은 디자이너들과의 긴밀한 협업의 과정에서 제게 부족했던 디자인적 경험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추후 지속적인 업무 파트너쉽을 맺을 계획입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속적으로 참여할 생각이에요. 디자이너들과 함께 소비자를 만족할만한 좋은 제품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자이너 HSJG

"DDP디자인페어는 재참여로 협업을 통해 탄생한 작품이 여러 매체에 소개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올해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우선 가죽이라는 소재가 주는 고급스러움을 적용하여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특별함을 전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에 대한 연구와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DDP디자인페어는 매칭부터 전시하기까지 몇 달에 걸쳐 긴호흡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많고 소상공인과의 협력이 중요하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치게 되면 디자이너로서 한단계 더 발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니들앤코 — 오렌지도어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에콜로지 온 니트 포스터 Ecology on Knit Poster

소상공인

니들앤코

디자이너

오렌지도어

아름다운 그리움, 'Beautiful Nostalgia' 라는 컨셉트로 만들어진 니트 포스터 안에는 멸종위기의 야생 생물 이야기가 담겨 있다.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떠오른 기후변화의 이슈와 무분별한 남획으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의 단양 쑥부쟁이 그리고 상제나비 등을 선정한 후 아르누보 그래픽 스타일로 적용하여 숫자만을 남겨둔 기념일 달력을 만든 것이다. 디지털로 대체되지 않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버려지는 달력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코 상품으로 만들었다. 천연소재 면사를 염색하여 테이블 매트, 키친 크로스, 핸드 타월 등의 홈 스타일링 제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소상공인 니들앤코

"2021년 DDP디자인페어 우수팀으로 선정되었고, 좋은 결과물을 얻었기에 재참여 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 뜻이 맞는 디자이너와 매칭됨으로써 그동안 작업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감각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함께 제작한 달력은 펜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집안 꾸미기를 좋아하는 소비자들과 증가하는 1인 가구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리빙 제품입니다. 천연소재 면 100% 원사를 사용하여 멸종위기의 식물, 곤충, 해양 식물의 일러스트 디자인하여 친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생산 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홍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가 되길 기대합니다."

디자이너 오렌지도어

"협업을 통해 제작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히고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 재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환경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멸종위기의 야생 생물' 이라는 스토리를 담은 제품 디자인을 고민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오로지 환경 운동가와 동물 보호 단체만의 몫이 아닌 개개인의 참여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니들앤코와 매칭 되어 현재 공감하고 있는 이슈를 논의하며 제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달력의 아날로그적 가치, 명확한 기능성, 그리고 공간적인 장식 역할은 물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니들앤코의 친환경적인 면사를 소재한 '에콜로지 온 니트 포스터'가 시리즈 제품으로 진화하고 브랜드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오렌지도어 특유의 미적 감성을 담은 스타일로 자연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이어 가고자 합니다."

드로잉캔들 — 손민식

(폐기물의 예술적 변신, ‘본 누드 Born Nude’)

소상공인

드로잉캔들

DRAWINGCANDLE

디자이너

손민식

2022 ddp Design Fair

플로어 스탠딩 조명인 ‘Born Nude’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미적인 오브제로 재탄생 시킨 제품이다. 최소한의 포장 등 친환경적 고민을 하는 브랜드인 드로잉캔들은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스티로폼을 사용해야 했고, 그때마다 버려지는 스티로폼이 마음에 걸렸다. 이에 손민식 디자이너와 드로잉캔들은 버려지는 스티로폼을 내장재로 재활용하여 가볍게 조립할 수 있고 몰드 시스템을 통해 대량 생산이 용이한 ‘Born Nude’을 만들었다. 공예적인 미감이 돋보이는 조명이 전하는 친환경의 가치는 ‘Born Nude’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이다.

소상공인 드로잉캔들

“날로 쌓여가는 폐기물들의 재활용은 많은 창작자들의 숙제이기도 하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완충재인 스티로폼의 폐기를 고민해왔고, 이를 활용해 ‘Born Nude’를 제작하였습니다.
몰드 시스템을 통해 대량 생산이 용이해 생산성이 좋고, 친환경 레진을 사용해 친환경적 강점을 살리면서도 공예적인 미감을 더해 재활용품이 아닌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된 조명입니다. 공예적인 느낌은 살리되, 양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업성을 챙겼기에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에 있는 적절한 지점의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손민식

“몰드 시스템을 통해 조형이 쌓이는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드로잉캔들과 만나 친환경을 주제로 하면서 조형적인 이미지까지 챙긴 조명을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디자인 영역이 아니라 예술품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형태는 조형적으로 하되, 제작은 실용적으로 하고자 했어요. 두 영역의 간극을 허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했습니다. 혼자 작업할 때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번 협업을 통해 양산의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라원_깨끗한주방 — 포움

(유니크한 페이즐리가 일상 속으로)

소상공인

라원_깨끗한주방

디자이너

포움

비교불가의 독특한 개성으로 인해 멋을 아는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페이즐리. 페이즐리 컨셉트의 텍스타일 디자인이 목욕가운, 비치타월, 이불 및 베개쿠션에 접목되었다. 순면 원단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은 모두 살리면서, 기존 단색 위주로 생산하던 제품에 화려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더해 일상에서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색다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했다. 흡수력 좋고 잘 말라 위생적이고 세균 번식이 적다는 실용성은 물론 모노톤을 벗어나 화려함을 입은 생활용품들은 일상의 특별한 느낌표가 되어 줄 것이다.

소상공인 라원_깨끗한주방

“라원의 소창과 광목의 특별한 장점이 디자인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어요. 저희의 장점을 다른 디자이너의 장점과 접목한다면 특별한 요소가 많은 멋진 제품이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라원은 그동안 하얀 느낌의 아이보리 또는 초록과 회색을 토대로 깨끗함을 강조한 제품을 제작해 왔어요. 저희의 제품에 포움만의 패턴을 더함으로써 라원의 소창과 광목 원단의 장점은 살리고 모노톤의 지루함이나 단조로움을 벗어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포움과의 협업은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단순히 소상공인으로 제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협업을 통해 디자이너의 놀라운 디자인을 접목하면 더 발전적이고 매력적인 제품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포움

“지금까지는 패션 제품들을 개발하고 제작해왔어요. 생활용품에 텍스타일 디자인 입히는 작업은 처음이다 보니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제품의 컨셉트로 잡은 것은 독창성과 화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군과 같이 두었을 때 단연 돋보일 수 있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라원과는 소통도 잘 되었고, 제가 선택했던 제품군과 디자인의 컨셉트에 대해서도 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셨습니다. 협업을 진행하며 제가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아닌 다른 업종의 제품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부할 수 있었던 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로이스토 — 오드오피스

취향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는 모듈 테이블 '오드로이'

소상공인

로이스토

사무 공간에서 사용성을 최적화한 모듈 타입의 테이블 겸 수납함으로 사용자 니즈에 따라 제품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상단과 하단이 분리 되어 테이블이 놓일 공간에 맞게 배치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파트는 컬러나 재질을 선택할 수 있고 해체, 조립이 쉬운 넉다운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맨 아래칸에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며 가방이나 부피가 큰 물건도 수납할 수 있게 공간 변형이 가능하다. 맨 위 선반은 노트북 등을 올려 놓고 사용하는 등 보조 테이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칸칸마다 활용성이 가득하며 취향 따라 선택의 폭이 넓은 다재다능 테이블이다.

소상공인 로이스토

"로이스토의 디자이너들도 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를 만나거나 더 좋은 디자인을 발견하고 제작 및 상품화를 위하여 DDP디자인페어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오피스 공간 그리고 그 안에 배치되는 가구에 유니크한 활용성을 부여하자는 방향성을 토대로 디자이너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디테일이 많이 적용되어야 하는 제품이기에 목업 때는 생각지 못한 문제점들로 당혹스러웠지만 디자이너와의 원활한 협의 및 진행을 통해 좋은 제품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철재 생산을 베이스로 한 로이스토와 철재 사무가구를 디자인하는 오드오피스의 매칭이 최고였다고 자부하는 만큼 이번 제품이 양산화되어 보다 편리하고 사용성에 용이한 제품으로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이너

오드오피스

odd-office

디자이너 오드오피스

"오피스라는 공간에서 느꼈던 불편함, 예를 들면 신발이나 가방, 우산과 같이 부피가 크거나 보관이 번거로운 개인 물품 수납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 제품을 기획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최대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멀티 수납함을 만들게 된 것이죠. 사용성을 고려한 제품이지만 재택 업무, 공유 오피스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환경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일하는 공간이나 영역이 혼재 되면서 리빙 인테리어 제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까지 고려하였습니다. 이렇듯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오피스 형태와 그 문화를 들여다 보고, 이를 제품으로 풀고 있는 '오드오피스'만의 가치와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르마블 — 계리

파도의 유연한 입체감을 담은 소파 테이블 '디 오션 The Ocean'

소상공인

르마블

TOTAL MARBLE
LE MARBLE

새로움을 지향하는 대중을 타겟으로 하는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의 바람은 유연한 소파 테이블 시리즈로 탄생됐다. 최소한의 요소로 조형성을 더하면서 사용성과 생산성까지 높이는 구조를 갖춘 이 제품. 머릿속 상념을 비우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바다의 감수성과 해저 지형을 그대로 담은 천연 대리석 그리고 견고한 스틸 커브로 구성된 입체 구조는 르마블과 디자이너 계리만의 독창성이 빚어낸 작품이다. 단단한 물성의 금속을 곡선형으로 디자인하고 무게감 있는 견고한 포세린과 천연석을 좀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해석한 이 테이블은 실용적 기능은 물론 예술과 상업성의 경계를 드나드는 환상적인 경험과 밝은 위로를 전한다.

소상공인 르마블

"천연 대리석인 포세린이 다양한 각도로 활용되어 대중에게 좀 더 친숙한 소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DDP디자인페어에 재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자재를 수입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회사로서 사용하고 남은 소재를 활용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디자이너와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다양한 시선에서 다채로운 작품이 나온다는 점에 이끌렸지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단단하고 무거운 포세린의 특성으로 인해 입체적 구현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디자이너의 곡선 디자인과 금속 프레임을 활용한 구조 변경을 통해 명쾌하고도 경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최대한 뒷받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마감이나 디테일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환호와 감탄이 나오는 디자인에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자이너

계리

디자이너 계리

"디자이너에게 자신의 디자인이 양산되어 대중에게 판매 및 사용이 된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제품 홍보 및 지원이라는 DDP디자인페어의 실질적 서포트에 감동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갤러리가 아닌 다양한 상업공간은 물론 집안에서도 예술을 향유하고 즐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으며 실용성은 물론 예술 감성을 함께 전하고자 했습니다. 양산이 목표이다 보니 디자인할 때 현실적인 제작 과정, 가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의미 있는 도전으로 서로 의견을 맞춰나가는 과정 자체가 가슴 뛰는 경험이었습니다. 무탈하게 양산되어 대중에게 가까이 닿고 판매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높은 판매율은 이후 계속해서 새로운 디자인 시리즈를 낼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디자인 제품을 양산하여 기존 제품 시장의 편견이나 경계를 보란 듯이 무너뜨리고 다양함과 새로움을 대중에게 전달하여 높은 문화 영역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메라톤 — 라바우언

(안정감 있는 텐션의 ‘ML 라운지 체어’)

소상공인

메라톤

디자이너

라바우언

메라톤과 라바우언은 아치 구조의 다리와 등판을 이루는 로프가 특징인 ‘ML 라운지 체어’를 선보였다.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소재의 특성을 잘 융화시킨 ‘ML 라운지 체어’. 메라톤의 클린터치 HPL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우아한 곡선의 부드러운 실루엣을 만들어 내고, 라바우언 가구의 시그니처 로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몸을 감싸주는 안정감 있는 텐션을 구현해냈다. 다양한 색상과 질감의 HPL로 제작할 경우, 또 다른 느낌의 라운지 체어 연출도 가능하다. 안락한 착석감을 선사해줄 ‘ML 라운지 체어’로 나만의 오롯한 휴식을 즐겨보자.

소상공인 메라톤

“다양한 소재를 개발해 온 메라톤은 수많은 인테리어사들에 고급 자재를 제공하며 디자인의 가치를 끌어올려 왔습니다. 이번 DDP디자인페어 참여하여 라바우언과의 협업을 통해 유망한 디자이너가 자유로운 발상과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디자이너 라바우언

“메라톤의 클린터치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고급스러우며 우아한 구조를 만들어 내고, 라바우언 가구의 시그니처 로프가 가지고 있는 물성적 특성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몸을 감싸주는 안정감있는 체어를 완성했습니다. 메라톤 측에서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공유해주셔서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저희의 디자인적인 의견을 존중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메탈라이브러리 — 오오오엘

(아치 형태의 금속 프레임이 매력적인 ‘aaa table’)

소상공인

메탈라이브러리

디자이너

오오오엘

금속 프레임 다리가 매력적인 테이블이다. 3개의 아치형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삼각형 비율로 완벽한 구조를 이루며 테이블 상판을 지지해 좌우 흔들림이나 수직 압력에 강하다. 최대한 얇은 파이프를 사용해 다리 부분에 넓은 공간감을 부여하고, 부드럽게 밴딩된 아치 형태는 공간에 포인트가 되어준다. 대담하고 실용적인 미드센추리 모던 스타일의 인테리어에 제격인 테이블이다.

소상공인 메탈라이브러리

“뻔한 디자인의 작업들을 해오던 중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디자이너와 협업하게 되어 재미있고 새로운 작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작업을 하는 것보다 이처럼 협업을 통해 자극을 받으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디자이너 오오오엘

“스테인리스 스틸뿐 아니라 다양한 다리 색상으로 고객들의 니즈 대응하기 위해 화이트&블랙 도장의 후속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3인용을 시작으로 사각형 4인용, 오각형 5인용 등의 디자인으로요. 디테일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제품이 구현되는 하나의 사이클을 알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품질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추후 개선을 통해 해결해나가려고 합니다.”

모월 — 세컨드룸

(조용히 행운을 빌어주는 ‘클로버 트롤리 Clover Trolly’)

소상공인

모월

디자이너

세컨드룸

밝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모두 남모를 고민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 모월과 세컨드룸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응원보다는 조용한 행운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에 클로버를 모티프로 한 트롤리를 제작했다. 클로버 트롤리는 조립형 가구로 우드, 스틸 등의 상판을 마음대로 조합할 수 있어 사용자는 원하는 무드에 맞춰 다양한 연출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조형적 독특함으로 입체적인 인테리어에 용이하고 이동도 수월해 원하는 곳에 쉽게 배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모월

“이번 작업은 기존 저희가 생각해왔던 아이디어에서 벗어나 디자이너의 새로운 시각을 경험해 볼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진행하며 가장 고민스러웠던 점은 제품의 조립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스틸 가구에 대한 경험이 많은 디자이너 덕분에 조립식 가구를 만들 수 있었고 저희의 아이디어를 더해 스틸 브라켓을 사용함으로써 원하는 곳에 상판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소재 경험이 많은 디자이너를 만나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제작 과정 중의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세컨드룸

“작년 DDP디자인페어에서 좋은 소상공인과 만나 만족스러운 협업 과정을 경험했었기에 올해도 참가했습니다. 개인 작업실을 새로 오픈하며 받은 선물들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어요. 받는 사람의 행복 혹은 행운을 빌어주는 가구를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아 클로버를 디자인 컨셉트로 삼았습니다. 협업을 통해 그동안 다룰 기회가 없었던 새로운 소재인 합판에 대한 특징과 다양한 가공법을 알게 되어 더 넓게 생각하며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스케치 단계에 머물렀던 아이디어지만 모월과 함께 의논하고 디테일하게 구상하면서 재미있으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박준희도자기 — 스몰 스플레쉬

(자르고 붙인 화병, ‘Ceramic : Cut and Paste’)

소상공인

박준희도자기

디자이너

스몰 스플레쉬

전통 도자기를 모티프로 하여 형태와 크기가 다른 4가지의 화병을 다양한 비율로 자르고, 붙여 하나의 화병이 탄생했다. 세라믹 제품의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에 대한 실험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화병 ‘Ceramic : Cut and Paste’은 특색 있는 외형으로 인해 인테리어 오브제나 화사한 꽃을 꽂는 화병으로 제역할을 톡톡히 해 낸다. 옛 도기들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미감의 오브제는 개성있는 공간 연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소상공인 박준희도자기

“석고 몰드에서 나올 수 있는 기물에 다양성을 주기 위해 하나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들의 몰드 조합을 시도해봤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했죠. 하나의 몰드에서 나온 피스끼리 합치면 쉽게 제작할 수 있었겠지만,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지키고자 각기 다른 형태의 기물에서 나온 몰드를 조합하고자 했습니다. 작업 과정이 까다로웠지만 결국 각 몰드의 경첩 부분을 없애고 주입구 부분에만 경첩을 다는 방법을 통해 여러 몰드가 흔들림 없이 합쳐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스몰 스플레쉬와 함께 개발한 제품을 시리즈로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디자이너 스몰 스플레쉬

“이번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면서 아직 제가 다뤄보지 못했던 소재로 디자인을 진행하고 싶었어요. 박준희도자기와 매칭이 되어서 세라믹 제품의 소재의 특성이나 제품의 제작 과정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보다,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할 수 있는 디자인 언어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작업을 계기로 ‘Ceramic : Cut and Paste’를 다양한 제품 시리즈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세라미꼬 스튜디오 — 권영규

‘꽃’을 꽂으면 ‘새’로 변신하는 화병 ‘버드 베이스 Bird Vase’

소상공인

세라미꼬 스튜디오

디자이너

권영규

‘자연물을 이용한, 자연을 닮은 디자인’이라는 의도에서 시작한 아이디어는 공작새를 모티브로 한 화병으로 탄생했다. 언뜻 보면 간결하고 산뜻한 소품처럼 보이지만 꽃을 꽂으면 새로운 이미지의 사물로 변신한다. 머리와 몸통부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각 구멍에 어떤 꽃을 꽂는지에 따라 다양한 새 형태가 연출되는데, 기분이나 분위기에 따른 꽃 선택만으로도 단조로운 일상에 재미와 위로를 전할 수 있다. 몸통부 구멍에 많은 꽃이 꽂혀 있더라도 머리의 구멍을 통해 손쉽게 물을 갈아주거나 추가할 수 있어, 심미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오브제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화병으로서의 기능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는 제품이다.

소상공인 세라미꼬 스튜디오

“작년 DDP디자인페어에서 협업 제작했던 작품들에 대한 기억이 좋아 올해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스케일에 욕심이 생겨 조금 큰 사이즈의 화병을 만들었습니다. 제품화를 위해 몰드를 제작해야 했는데 몰드에서 제품을 탈형하는 과정에서 상하부 건조도의 차이 때문에 기물 자체가 조금씩 뒤틀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몰드를 최대한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 제작하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디자이너와 소통하며 디자인적으로 다양한 관점들은 물론 디자인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권영규

“DDP디자인페어에 두 번째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업을 하며 소상공인과 최우선으로 협의한 내용은 ‘산업디자인스러운 디자인’은 지양하자는 것이었어요. 고객들이 ‘도자기’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최소한의 관념은 유지하려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협업 과정에서 적절할 때마다 세라미꼬 스튜디오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갈등 없이 즐겁게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업 제품을 추후에 세라미꼬 스튜디오의 정식 상품으로 등록하고자 하는데요. 상품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남아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차차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실리만 — 라이크모노핸드메이드

모던 클래식 감성의 ‘오세라 테이블 매트 O cera table mat’

소상공인

실리만

디자이너

라이크모노핸드메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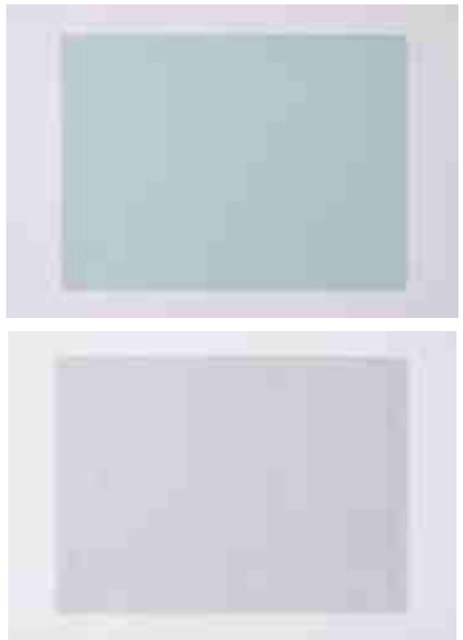
한국 고유의 창틀을 모티브로 한 패턴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테이블 매트는 톤 다운된 키 컬러를 사용해 차분하고 정갈한 느낌을 자아낸다. 주요 타겟인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단아한 미색과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라인 일러스트는 한국적인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려는 디자이너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밀착력이 뛰어나고 세척이 용이해 일상 생활용품으로 더할 나위 없는 이 제품은 한국 전통 기단에서 영감을 받은 ‘오세라’ 식기와 잘 어울려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한 테이블 연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실리만

“대규모 디자인페어에 여러 번 참여해 보았지만 이렇게 소상공인과 신진 디자이너를 위한 자리는 처음입니다. 몰랐던 디자이너들도 알게 되고 함께 협업까지 해 회사 내부의 디자이너들과는 다른 시너지가 생길 것을 기대했습니다. 도자기와 실리콘의 재질 차이로 인해 컬러 작업 시 괴리감이 생겨 제품 본연의 색을 뽑아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처음 의도했던 것과 같은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DDP디자인페어는 많은 고객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디자이너 라이크모노핸드메이드

“실리만에서 ‘오세라’ 식기 라인을 새로 런칭함에 따라 이와 어울리는 디자인 매트를 제작했습니다. ‘오세라’가 담고 있는 컬러, 외형 등의 한국적인 요소를 단순화, 패턴화시켜 한국적이되 너무 전통적이지 않고, 도자기의 절제미, 단정함, 고급스러움을 더해줄 수 있도록 디자인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행하며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으나 실리콘은 잘 알고있는 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께 여러가지 조언을 들었습니다. 구현할 수 있는 색이 무엇인지, 디자인을 할 때 어느 범위까지 해야할지 등등 혼자 했다면 알기 어려웠을 내용들도 알게 되었고, 여러번의 미팅과 조율을 통해 결과물을 만드는 동안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아우트로 — 비아컬렉티브

‘표류하는 별’과 같은 책선반, Drifting Star

소상공인

아우트로

디자이너

비아컬렉티브

조형미가 뛰어나 마치 조각 작품처럼 느껴지는 이 책선반은 우주에서 표류하는 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표류하는 별’은 우리 인간처럼 외롭지만 단단한 중력을 토대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간다. 디자인의 핵심인 구를 중심으로 뻗어져 나가는 선들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이며 우리가 지나치는 사람, 감정, 스쳐가는 인연을 상징한다. 뻗어나가는 판재는 선반 역할에 충실해 실용적이면서도 어떤 책을 꽂고, 얹느냐에 따라 벽면에 다양한 인상을 부여할 수 있다.

소상공인 아우트로

“협업을 통해 새로움을 더하는 작업이 장점으로 느껴져 DDP 디자인페어에 참여하였습니다. 비아컬렉티브와 협업한 제품은 ‘표류하는 별 시리즈’ 책선반으로, 기존에 없던 조형을 구현해내느라 최적의 제작 프로세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단순 시제품 제작만이 아닌 대량생산을 염두에 두고 생산 시간, 단가, 설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디자이너와 많은 의견을 나누며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자이너 비아컬렉티브

“이전에 없던 조형의 조합은 물론 기능까지 충실한 제품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고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아우트로와 함께 작업하게 되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제작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플레이스 — 홍경민

상승과 안락, 역설적 이미지의 ‘블루밍 체어 Blueming Chair’

소상공인

아이플레이스

디자이너

홍경민

3장의 꽃잎이 모여 유려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이 전해지는 의자가 되었다. ‘블루밍 체어’는 열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인 청춘을 꽃에 빗대어 표현한 의자로, 피어오르는 상승과 감싸는 듯한 안락의 역설적 이미지들을 아울러 보여준다. 구조적으로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암체어 형식을 차용해 2장의 꽃잎은 등받이를, 1장의 꽃잎은 좌판을 이루도록 하고 의자를 구성하는 3개의 형태는 통일하되 사용에는 문제가 없도록 했다.

소상공인 아이플레이스

“‘블루밍 체어’는 기존 의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제작했고, 구조 또한 기존에 없는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모델링 구조를 실제 구현하며 조립 부분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여러 번의 목업 작업을 통해 안정적인 구조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도전적인 디자인을 진행하기 위해 3D프린터를 적극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3D모델링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냈고, 3D프린터를 사용함으로써 의도했던 모델링 형태를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었기에 시행착오와 제작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블루밍 체어’가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대량생산까지 이어져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디자이너 홍경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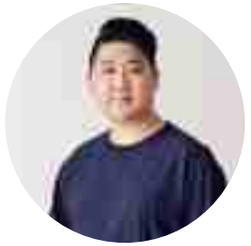
“저희만의 스토리가 담긴 디자인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작업했습니다. 제작에 중점을 두고 협업하다보니 제가 미처 몰랐던 구조나 제작 부분을 아이플레이스에서 잘 이끌어주셨어요. 혼자 작업할 때보다 더욱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DDP디자인페어에서 소상공인과 협업한다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제작 과정에서 기대 이상의 것들을 배워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주산업 — 젠디자인플랜

(인공지능과의 협업, ‘Ai Concrete Bench’)

소상공인 **아주산업**

디자이너 **젠디자인플랜**



UHPC(초고성능 콘크리트)라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만든 것처럼 자연스럽다. ‘Ai Concrete Bench’의 유기적인 형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얻어낸 결과물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조형과 구조를 보여준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주산업과 젠디자인플랜은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개념에 UHPC라는 신소재를 더하는 작업을 나무랄 데 없이 멋지게 보여주었다.

소상공인 아주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벤치입니다. UHPC의 특징인 높은 성형성을 토대로, 스트릿 퍼니처 디자인의 미래를 보여드리고자 개발한 제품입니다. 이번 협업은 ‘인공지능’과 높은 압축강도와 낮은 흡수율로 100년 이상을 바라보는 소재 ‘UHPC의 지속가능성’이 만나 미래 산업에서 두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3D 프린터로 인쇄는 가능하겠지만 UHPC를 거푸집에 부어서 300kg에 달하는 제품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품 구조를 해석하고 생산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우려와는 달리 큰 무리 없이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젠디자인플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을 연구하는 연구자이자 디자이너로서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차갑고 딱딱한 느낌의 콘크리트를 부드럽고 유기적인 조형으로 제안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좀 더 새로운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협업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알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많은 사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나아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더 많은 길을 개척해나가고 싶습니다.”

우디스트 — 인트

(타고 오르는 빛이 인상적인 테이블 조명, ‘콜로세움 Colosseum’)

소상공인 **우디스트**

디자이너 **인트**

면과 면 사이의 공간, 빛과 면이 만나 타고 오르는 빛이 인상적인 조명, ‘콜로세움’. 원형의 바닥판을 에워싸는 높낮이가 다른 3개의 면이 로마의 상징적 건축물인 콜로세움을 연상시켜 붙여진 이름이다. 조형미가 뛰어나 아트 오브제 역할도 가능한 이 조명은 건전지를 이용한 무선 조명이라 원하는 공간 어디든 배치할 수 있고, 4단계 빛 조절과 타이머 기능이 있는 리모컨이 있어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내추럴 컬러 제품은 유광, 블랙 컬러 제품은 무광으로 차이를 줘서 실내 분위기 및 사용자가 원하는 무드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소상공인 우디스트

“면과 면 사이의 공간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원하는 각도로 회전 시켜 빛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 리모컨으로 빛의 세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선 조명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없고,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우러집니다. 예쁜 가구들은 많지만 가격까지 합리적인 가구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요. 심미성과 합리적 가격 모두를 갖춘 상품을 만들고자 했는데, 디자이너분께서 제 바람을 잘 이해하고 합리적인 디자인을 제안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DDP디자인페어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평소 하지 않던 작업을 하게 되어 개인 작업에도 시너지가 생겼습니다.”

디자이너 인트

“빛이 면에 닿아 반사되는 느낌을 조명에 표현하고자 했어요. 360도의 원을 다양한 각도로 나누고 각기 다른 면적을 줘 변형시켰으며 면과 면 사이의 공간, 빛과 면이 만나 타고 오르는 빛의 느낌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심미성, 편의성, 생산성 모두를 중점에 두고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멘토링 이후, 우디스트에서 약간의 디자인 변화도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감사했고, 협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조명을 스케치하고 관심을 두고 있기에, 협업 이후에도 더 다양한 조명을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짐머만 — 까레 데 발렌시아

똑똑함을 장착한 ‘스마트 스툴 Smart Cube & Smart Ai Station’

소상공인

짐머만

디자이너

까레 데 발렌시아

말끔한 외형의 ‘스마트 스툴’. 그 이름답게 곳곳에 스마트한 기능이 숨겨져 있다. 스툴 상판에는 2개의 무선 충전 구역이 있어 휴대폰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수월하게 충전할 수 있고, 터치 액션으로 손쉽게 열 수 있는 서랍에는 옵션에 따라 지문 인식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 미니 금고처럼 사용 가능하다.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형태이지만 똑똑함을 장착한 ‘스마트 스툴’을 통해 사용자는 기존 가구에서는 느껴 볼 수 없었던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짐머만

“짐머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알리고,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색다른 영감을 얻고자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했습니다.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스툴에 지문인식 잠금장치, 무선 충전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 장착해 가구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편의성과 신선함을 주는 제품을 제작한 값진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디자이너 까레 데 발렌시아

“기존의 가구에 없는 스마트 기능을 추가해 형태와 기능적인 면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입니다.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협업을 통해 스마트 퍼니처라는 새로운 제품군을 만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던 것을 실제로 제품화시켜 선보일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디자이너, 소상공인 모두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초타원형 — 손태선

기념비와 같은 행거, Organic Tower 1

소상공인

초타원형

디자이너

손태선

한국식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채광, 바닥재, 천장의 형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대체로 동일한 주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탓에 개인의 미적 취향을 발현하는 도구로서의 사물 혹은 집안에 율동감을 더해주는 사물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초타원형과 디자이너 손태선은 행거 ‘Organic Tower 1’을 통해 이와 같은 한국적인 주거 공간의 특징을 강조 및 확장하고, 일상 속 풍경을 예술화하는 독특한 비례와 구조를 선보이고자 한다. 평범한 기능의 제품이지만, 집안의 사물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질적인 요소인 동시에 다양한 색과 재질을 엮어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주는 기념비의 역할을 담당한다.

소상공인 초타원형

“이번 작업은 한국 주거 환경의 스케일을 기반으로 디자인한 제품이 기능을 넘어 인상적인 풍경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태선 디자이너는 ‘Organic Tower 1’을 통해 제가 생각한 스케일 안에서 자연 재료인 나무를 이용해 자연적인 풍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제품을 개발하며 양산 가능성과 디자이너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계적 미학 및 공예적 가치 모두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NC 가공을 한 나무 두 조각을 살짝 어긋나게 겹치도록 해 치밀하면서도 여유로운 감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손태선

“초타원형과의 협업은 기존 작업에서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형태와 비례를 탐구하고, 효율적인 제작 방법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유기적인 형태를 위해 도면부터 CNC 공법까지 컴퓨터 3D 기반 프로세스를 폭넓게 활용했습니다. 협업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고 오히려 초타원형의 실행력과 다양한 소스들이 더해져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었습니다. 향후 ‘Organic Tower’ 시리즈를 더 간편하고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조립식으로 만들어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초타원형 — im.joooon

(빛을 모으고 전구를 보호하는 조명, Light Shield 1)

소상공인

초타원형

디자이너

im.joooon

'Light Shield 1'은 콘크리트와 철로 만들어진 거대 윈드-쉴드(Wind-shield) 구조체를 폴리카보네이트와 알루미늄 재료들로 번역하여 실내 공간에 어울리도록 구축한 조명이다. 기존의 윈드-쉴드가 바람을 막기 위한 구조였다면, 이 제품은 빛을 모으고 전구를 보호하는 구조를 취하며 형태와 재료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서사에 주목하게 만든다. 바람을 막기 위해 설립된 건축 스케일의 거대 구조체가 실내의 공기에 흔들릴 정도로 얇고 작아지다 이윽고 아름다운 조명이 되어가는 디자인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이 조명은 사용자의 배치와 사용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쓰임과 풍경을 만들어 낸다.

소상공인 초타원형

"자연에 반응하는 구조체인 윈드-쉴드에서 착안한 조명입니다. 밀링 머신의 완벽한 가공에 PVC의 자연스러운 탄성을 통해 인공적이지만 자연스러운 재료의 미감을 더했습니다. 주어진 목표를 향해 디자이너와 같은 의견을 내고, 제약을 통해 조율하며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했는데요. 스케치와 모델링 그리고 이미지와 동영상을 만들며 모든 협업 제작 과정을 순차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im.joooon

"'Light Shield 1'은 폴리카보네이트와 알루미늄, 그리고 LED를 소재로 한 조명입니다. 제작 초반부터 생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되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제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단일 제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협업 과정을 통해 혼자 작업할 때 보다 더욱 분명한 브레인스토밍이 가능했고,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합니다."

다보니 자연스레 완성을 향해 가고 있었죠. 이번 시제품을 계기로 향후 색상이나 갓의 형태에 대해 더욱 다양한 제안을 해보려

커먼플래닛 — 오세디자인

(미니멀리즘 오브제의 감성의 찻잔 세트 '쉼 Relax')

소상공인

커먼플래닛

디자이너

오세디자인

파스텔 톤의 색감으로 시선을 끌고, 이내 아기자기한 모양새로 우리의 궁금증이 폭발하게 하는 이 제품. 무엇을 담는 것일까? 뚜껑을 열어보고 독특한 손잡이를 잡아보면 깨닫게 되는 존재, 세상 하나뿐인 어여쁜 찻잔 세트이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함과 동시에 트렌디한 컬러들을 디자인에서 자유자재로 재해석하고 있는 이 제품의 이름은 'Relax'다. 찻잔의 고유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도자기에서 흔히 보지 못했던 미니멀한 모양과 컬러가 적용되어 보는 이의 마음까지 설레게 만드는 아우라를 갖고 있다.

소상공인 커먼플래닛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디자이너와 소통하고 상품 제작을 위해 호흡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제게 활력을 더하는 좋은 경험이었기에 올해에도 재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찻잔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마 소성 중 재료가 수축할 경우 원형에서 뒤틀림이 발생하고, 타 소재가 결합되는 경우 정교한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타 소재 사용을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추후 양산을 위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더욱 강구할 예정입니다. 도자 재료의 특성이나 장점을 잘 살리고,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으로서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하였고, 저희 또한 디자이너에게 배우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다른 참가팀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접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볼거리가 다양한 전시에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 보람과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디자이너 오세디자인

"항상 새로운 경험을 찾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DDP디자인페어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긴장도 했지만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고민들이 훨씬 더 즐겁게 다가왔습니다. 매칭된 소상공인과 단순 전시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 추후 양산을 위한 제품 생산을 목표로 협업하였습니다. 일상 속에서나 나만의 공간에서 소장하고 싶은 오브제 디자인 제품이 홈 리빙 카테고리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요즘, 단순 오브제로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기능적인 니즈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찻잔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었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품의 기능적 퀄리티를 더 디테일하게 살리고, 디자인 CMF 등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개성 있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로서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습니다."

큐앤코 — 스튜디오 뮤트

(재미를 더한 입체적인 편집 카펫, ‘Piece-Play’)

소상공인

큐앤코

디자이너

스튜디오 뮤트

사용자가 다양한 공간에 맞춰 피스들을 조합하여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컨셉트인 카펫을 제작했다. 카펫은 바닥에 깔리는 것이기에 평면적일 수 밖에 없는데, 이들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카펫에 입체적인 요소를 더하고자 했다. 고민 끝에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살려 지금의 구성을 개발했다. 보편적인 컬러의 두 가지 패브릭은 길이, 형태, 터프팅의 질감, 짜임 방식 등에서 대조를 이루는데, 이 둘을 연결했을 때 특별한 시너지를 만들어 낸다. 재미와 리듬감이 느껴지는 입체적인 카펫 ‘Piece-Play’. 한층 감각적인 공간을 구현해내는데 제격인 카펫이다.

소상공인 큐앤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의 ‘집’에 대한 인식은 단순 주거 공간의 개념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공간에 맞게 카펫을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카펫 기능을 사용하기 전부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협업은 카펫의 가치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카펫이 장식적인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실내공간의 벽이나 바닥 마감만큼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무엇보다 협업을 통해 제가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디자이너 스튜디오 뮤트

“지극히 장식적인 서구 문화인 ‘카펫’을 한국 고유 문화와 대비해보니 자연스레 조각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고유의 조각보는 자투리 천에 예술성을 가미하여 작품으로 승화한 것인데요. 이러한 구성 방식이 카펫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대어져 있는 천들의 컬러와 패턴은 터프팅의 질감과 올의 굵기, 길이 등으로 대비될 수 있게 했고 소비자들이 모듈화한 조각들을 재조직하여 구성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을 통해 완성시켰습니다.”

태광로드텍 — 정수현, 홍종휘

(섬세한 빛으로 거리를 밝히는 경관 조명, ‘SHADOWING’)

소상공인

태광로드텍

디자이너

정수현, 홍종휘

거리, 공원 등 일상 속 공공장소에는 수많은 경관조명들이 있다. 개인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적 요소를 강조하기 어려운데 디자이너 정수현, 홍종휘는 미적인 요소들이 부각된 경관 조명을 디자인했다. 전통 건축의 따뜻한 재질과 대비되는 스테인리스와 미니멀한 원형의 디자인으로 전통과 현대의 감성이 조화롭다. 섬세한 빛과 바닥에 드리운 그림자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며 바라볼수록 마음까지 풍성해진다.

소상공인 태광로드텍

“오랜 기간동안 가로등을 제작하고 납품해왔는데, 항상 좋은 디자인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를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정수현, 홍종휘

“태광로드텍 가로등의 특징 중 하나인 전통적인 성격을 살려 지역 관광명소 개발 시 사용될 수 있는 조명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상업화된 화려한 조명보다는 섬세한 빛으로 밝혀진 거리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조명에 빛과 그림자를 모두 담음으로써 은은한 그늘의 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티앤컴퍼니 — 라프리카라

(아프리카의 해 지는 풍경에서 영감을 받은 토트백, ‘카루 미니 토트백 Caru mini tote bag’)

소상공인

티앤컴퍼니

2022 ddp Design Fair

디자이너

라프리카라

L°APRICALA

‘카루 미니 토트백’은 태양을 상징하는 동그란 손잡이와 사각의 본체를 조합한 매력적인 가방이다. 감각적인 외형으로 인해 데일리룩을 강조하기에도 좋고, 천연 소가죽의 고급스러운 재질 덕분에 격식을 갖춰야하는 자리에도 유용하다. 추후 계절감을 부여하기 위해 퍼 커버를 더하거나,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 플라스틱 가방 끈, 로프 백 스트랩 등 추가 악세사리도 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티앤컴퍼니

“디자이너의 철학과 상상력을 적극 반영하여 현실화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서로의 이해가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죽 가방 제작에 주력해 온 경험을 살려 디자이너의 개성을 모두 담은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라프리카라

“클래식하면서도 재미있는 디자인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태양 모티브의 동그란 손잡이가 포인트인 제품으로, 곡선 디자인을 가죽을 사용해 높은 퀄리티로 제작해 줄 수 있는 업체가 필요했습니다. 디자인을 실제 실용성있게 제작해내는 과정을 함께 해 디테일의 차이가 드러나는 결과를 직접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프리징기프트향원 — 빠레브 주식회사

(입체적인 하트가 매력적인 샴푸바와 비누, ‘Heart of Love’)

소상공인

프리징기프트향원

디자이너

빠레브 주식회사

일상의 소소한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제로 웨이스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액상 샴푸 대신 샴푸바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실천이 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심미적인 욕구까지 만족시킨 제품이라면 더 좋지 않을까? 앙리 마티스의 ‘Heart of Love, 1949’ 그림 속 빨간 하트를 모티프로 디자인된 샴푸바는 아름답게 굴곡진 곡면을 가지고 있어 만족스러운 그립감을 제공한다. 알록달록한 색감과 은은한 향의 샴푸바와 비누들이 욕실에 기분 좋은 상쾌함을 선사한다.

소상공인 프리징기프트향원

“빠레브 주식회사와의 협업 제품은 앙리 마티스의 하트를 주제로 한 디자인 비누로, ‘사랑에 빠진 심장, Heart of Love’를 부제로 합니다. 평면의 하트를 3D디자인으로 표현한 후 금형과 몰드를 제작했습니다.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의 교감을 통해 작품에 담긴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디자이너 빠레브 주식회사

“저희 제품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감성과 스토리를 담아 최상의 퀄리티와 품격으로 소비자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품의 부드러운 사용감과 편안함을 고려하여 감각적이면서 트렌디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제품 개발에 있어 참신한 감각과 한 발 앞선 아이디어로 더욱 돋보이는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아즈 — 와이에이

(물방울, 물결, 파동을 담은 인센스 홀더와 트레이, ‘WATAVE’)

소상공인

피아즈

디자이너

와이에이

인센스 홀더 겸 트레이로 활용할 수 있는 오브제 ‘WATAVE’는 생명의 원천인 물에서 영감을 받았다. 물방울, 물결, 파동 등 다양한 물의 형상을 담은 트레이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조합해 사용할 수 있다. 청량감이 필요할 때는 아크릴 소재의 트레이를, 따스함이 필요할 때는 원목 소재의 트레이를 추천한다. 힐링의 공간에 향을 더하고 싶을 때 ‘WATAVE’는 유용하고도 편안한 벗이 되어 줄 것이다.

소상공인 피아즈

“와이에이와 협업하여 ‘WATAVE’라는 이름의 인센스 홀더 겸 트레이를 제작했습니다. 아크릴과 원목 두 가지 소재로 제작했는데요.아크릴의 경우, 의도한 색상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또한 인센스를 꽂는 황동 볼 제작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듭 시도한 끝에 결국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와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며 많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극복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판매 경로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디자이너 와이에이

“생명의 원천이자 미학적 관점에서도 매력적인 소재인 물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제품입니다. 안에 다양한 물의 모습을 녹여내고자 파동, 물결, 물방울의 모습을 담아낸 것이지요.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는 시대인 만큼,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조합할 수 있는 모듈 형태의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이전에는 다뤄본 적 없던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DDP디자인페어 참여를 통해 저만의 색을 녹인 제품을 만들어낸 만큼, 이후에도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성교구 — 로우리트콜렉티브

(몰입의 순간으로 이끌어주는 ‘다이브 시리즈 Dive Series’)

소상공인

한성교구

한성교구

디자이너

로우리트콜렉티브

장자의 호접몽 속 묘사된 무아(無我)의 상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의자와 조명은 사용자를 몰입의 순간으로 안내한다. 조명 손잡이에 걸쳐 있는 책 한 권을 집어들고 조명을 기울여 의자를 비추면, 의자에 앉는 순간 현실은 고인 물처럼 흐려지고 경계는 모호해진다. 이러한 순간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 낸 ‘다이브 시리즈(Dive Series)’는 수동적인 교육 방식에 맞춰 일방향으로 제작된, 기존 교구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배움과 성장의 과정을 능동적 형태로 경험하게 해준다.

소상공인 한성교구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교육용 가구를 새롭게 탐구해 보고자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했습니다. 걸쳐진 책에 의해 높이가 변하는 조명과 물결을 따라 깊게 앉을 수 있는 의자는 물속으로 가라 앉듯 책 속의 세상으로 독자를 안내합니다.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티클 플라스틱 패널과 금속 구조물의 결합이나 조명 구조물의 회전 구동 등 새로운 방식과 기술을 고안해 적용했습니다. 디자인과 제작의 과정에서 상호간의 의도와 여건을 이해하고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절충과 협의를 거쳐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로우리트콜렉티브

“재료의 경계를 넘어보거나 새로운 공정을 적용해보는 등 실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데에 협업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DDP디자인페어에 재참여했습니다. ‘다이브 시리즈(Dive Series)’는 몰입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가구로, 몰두할 때 무언가에 빠지는(to dive into) 경험을 수영장의 입수 사다리에서 영감을 얻어 표현했습니다. 교육시설에 사용되는 학습용 가구를 생산하는 한성교구와 협업한 이 제품은 티끌 플라스틱 패널과 금속 프레임을 이어 제작했습니다. 한성교구는 교육가구 제조 공정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학습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경험을 살펴온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완성도 높은 협업 제품을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파트너였다고 생각합니다.”

황동메탈 — 권도연, 김산하, 송수빈

(메탈과 아크릴, 상반된 소재의 'Hang series')

소상공인

황동메탈

2022 ddp Design Fair

디자이너

권도연, 김산하, 송수빈

중력에 의해 흘러내리는 듯한 메탈이 아크릴에 걸려있는 것만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의자와 테이블, 조명. 그 외형이 범상치 않다. 빛을 투과하는 아크릴과 반사시키는 메탈, 두 가지의 상반된 소재를 활용하여 일상 공간에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투영하는 이 제품은 'Hang series'라는 이름답게 늘어뜨려진 외형이 빛을 발하는 인상적인 제품이다.

소상공인 황동메탈

"디자이너와 함께 디자인을 기획하고 이를 시각적인 결과물로 도출해 내는 과정들을 경험하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루어왔던 메탈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메탈이라는 소재의 매력을 더욱 더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권도연, 김산하, 송수빈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양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생각을 담은 디자인을 제품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생산 방법을 배우고 익힌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성이 적절히 융화된 디자인을 선보일 것입니다."

황동메탈 — 스튜디오 씰

(뒤집힌 압정 모양의 스툴, 'Thumbtack stool series')

소상공인

황동메탈

2022 ddp Design Fair

디자이너

스튜디오 씰

스툴 좌판의 면적이 좁아 위에 앉으면 좌판이 자연스럽게 가려진다. 얼핏 불편해 보이는 스툴은 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편하다. 스툴들은 모여 있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데, 모여 있을 수록 바닥에 압정이 깔려 있는 풍경이 연출되어 보는 이들을 웃음짓게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황동메탈

"기발한 아이디어 못지 않게 디자인을 실현하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스튜디오 씰의 뻔뻔스러움과 황동메탈의 금속 가공 기술력이 만나 디테일을 살린 스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씰의 반짝이는 에너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들의 기발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현해내기 위해 세밀한 작업 방식을 시도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디자이너 스튜디오 씰

"흥미와 재미 그리고 웃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항없는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디자인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제작할 때는 구현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작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노하우를 통해 디테일을 재현할 수 있었고, 기대 이상의 디자인 퀄리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향후 'Thumbtack stool series'가 공원이나 역, 횡단보도 앞, 학교 등에 배치되어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재미를 더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PUM — 스튜디오 아직

(겹겹이 겹쳐진 밴드의 유니크함, ‘Banding Lamp’)

소상공인

PUM

2022 ddp Design Fair

디자이너

스튜디오 아직

스마트 가전이 넘쳐나는 요즘, 여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물씬 풍기는 조명이 있다. PUM과 스튜디오 아직은 겹겹이 겹쳐진 밴드가 전등갓 역할을 하는 조명 ‘Banding Lamp’를 선보였다. 끈을 두를 수록 그림자가 겹겹이 쌓여 물리적으로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플로어 램프로, 빛을 가리는 행위를 통해 사용자가 빛의 밝기 조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추구하는 제품이다. 전구와 밴드를 교체할 수 있어 능동적인 공간 연출에도 유용하다. 소박하면서도 군더더기가 없는 외형은 불이 꺼져 있는 시간 동안에도 공간에 고즈넉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소상공인 PUM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을 이어준다는 좋은 취지에 동의해 이번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명은 안전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공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협업을 진행하며 디자이너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면서 상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 퀄리티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서로 협력하여 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가구를 만드는 디자이너의 감수성에 다양한 재료를 믹스 매칭하는 소상공인의 노하우를 담아 일상에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리빙제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디자이너 스튜디오 아직

“휴대폰으로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전구를 켜고 가리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조명기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했습니다. 스마트한 제품도 좋지만 때로는 단순한 제품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업체에 맡길 때와는 다르게 제작 과정에 참여하여 소상공인과 전반적인 공정을 같이 했어요. 금속의 특성이나, 마감 종류까지 제작 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DDP디자인페어가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와의 협업 외에도 적극적인 멘토링, 디자인과 제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되면 좋겠습니다.”

RKRN — PACK

(일상 속 최소한의 문화공간 진열장 ‘PACK 시리즈’)

소상공인

RKRN

디자이너

PACK

1980~90년대, 우리 일상에는 4:3비율의 브라운관 TV가 있었다. 마치 하나의 가구와 같은 아날로그 TV의 형태는 그 자체로 레트로한 감성을 자극하는 아이콘이다. 이를 모티브로 집안에 두고 항상 들여다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진열장이 탄생했다. 이 최소한의 문화공간인 진열장을 통해 사용자는 취향이 반영된 취미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다. 투명 아크릴 판재(면)와 알루미늄 브라켓(점)이 연결된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향후 어떠한 크기와 재료의 판재라도 쉽게 교체해 쓸 수 있도록 안정성과 체결력을 갖추고 있는데, 덕분에 사용자는 마치 큐레이터가 된 듯 이 공간의 마감을 바꾸고 내부를 꾸미는 등의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소상공인 RKRN

“DDP디자인페어에는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협업 제품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판재를 연결하는 브라켓의 기능을 확장하며 최대한 단순함을 유지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에 하나의 면을 문(door)으로 만들기 위해 브라켓에 경첩 기능을 더하고, 다시 기둥과 다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자이너 PACK은 여러 전시와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작품을 담기 위한 가구가 갖추어야하는 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었기에 매우 분명하고 설득력 높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실체화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PACK

“PACK에서 자체 개발한 ‘PACK 시리즈’ 디자인에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더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보고자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의 미감은 유지하되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 및 개선하여 경량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품 양산, 홍보 및 판매가 이번 협업의 최종 목표인데요. 우선 일상 생활에서 자신만의 취향을 수집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색적인 프로모션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PART 2-2

소상공인+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우수 120팀

상상과 모험
Imagination and Adventure : Lavender

#지속가능디자인
#디자인상상
#디자인모험

금호싸인텍스 — 리메이크

느림의 미학,
‘슬로우 리백 Slow Re:Bag’

소상공인

금호싸인텍스

디자이너

리메이크

Re:make

트렌디한 디자인의 이 가방에는 느림의 미학이 숨겨져 있다. ‘슬로우 리백(Slow Re:Bag)’이라는 이름의 이 제품들은 통일신라 시대 암막새에 있는 문양과 조선시대 떡살 문양을 활용해 디자인되었다. 전통문화 유산에서 느껴지는 예술적 가치는 물론 폐플라스틱을 가공한 업사이클링 소재를 이용하는 등 지속가능성의 가치까지 고려했다. 컬러풀한 색감과 세련된 디자인 속에 숨어있는 컨셔스 패션(Conscious fashion, 의식 있는 의류 및 소비)에도 주목해 볼 만한데, 자연의 힘을 빌려 기후 위기 문제를 느림으로 승화하고 제품 하나가 제작되기까지의 인고의 시간들을 담아냈다.

소상공인 금호싸인텍스

“패스트 패션에 익숙한 요즘, 생산부터 보관, 마케팅, 판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친환경과 윤리를 고민하는 디자이너를 만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제조하는 소상공인 또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오랜 기간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일이고 스타트업 기업들과 일을 자주 하는 편이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패션 이외에도 다양한 방면의 디자이너와 협업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디자이너 리메이크

“이번 협업 제품에는 컨셔스 패션을 반영해보려고 했어요. ‘의식 있는 패션’이란 뜻으로 소재 선정에서 제조 공정까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과정에서 생산된 패션 제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환경 트렌드를 말하죠. 친환경 염료를 사용해 오염수가 발생되지 않는 프린트 방식으로 원단을 가공해 제품을 제작했습니다. 패션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금호싸인텍스 대표님과 협업하게 되어서 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성기계 — 빈지니

바람이 지나간 찰나를 포착한 벽선반
‘바람의 모양 Shape of wind’

소상공인

대성기계

DS

디자이너

빈지니

Been Jee N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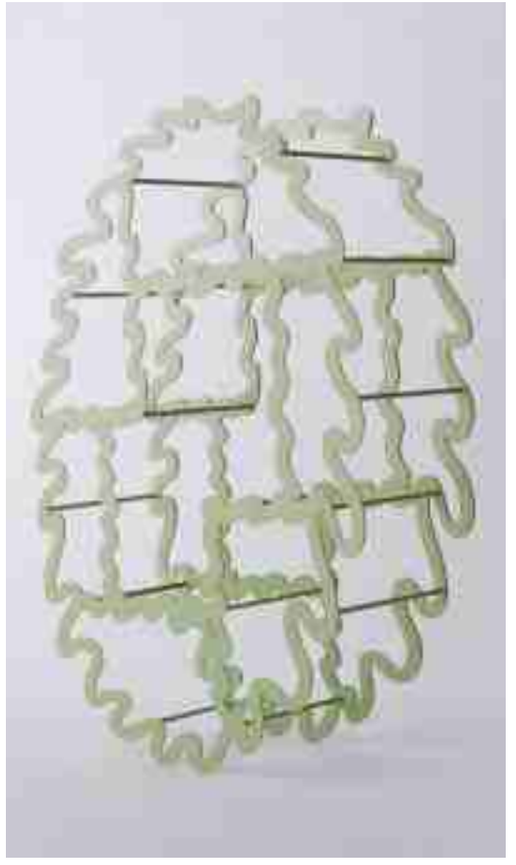
바람이 지나간 찰나의 순간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모습일까? 대상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그 대상을 투영해버리는 바람을 상상해 디자인한 벽선반이다. 디자이너 빈지니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따분함 속에서 시작되는 무한한 상상을 오브제 같은 가구로 선보였다. 사용자에게 제한 없는 상상을 전이해 줄 이 선반은 무미건조한 공간 속 의도치 않은 순간, 예상치 못한 찰나의 느낌표가 되어 줄 것이다.

소상공인 대성기계

“디자이너가 원하는 형태로 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시제품의 무게로 인해 벽선반으로 설치할 때의 문제를 고려해야만 했죠. 무게를 가늠해보니 가벽을 제외한 환경에서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협업을 진행하며 디자이너가 원하는 형태를 구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 색상 등에 많은 신경을 썼고 더불어 실제로 쓰임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으로 제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디자이너 빈지니

“공간 속에서 오브제 역할을 하는 벽선반을 디자인했습니다. 협업을 진행하며 제작 방법이나 제작 가능성의 여부 때문에 디자인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계속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런 과정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용자의 시각에서 제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고요. 다양한 금속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가지고 있는 대성기계와 매칭이 되어 조금은 수월하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성기계 — 주얼리스튜디오 수진

(세 가지 기능을 담은 ‘하우 멀티홀더 HOW Multiholder’)

소상공인

대성기계

디자이너

주얼리스튜디오 수진

주로 선박이나 자동차에 이용되는 부품을 제작하는 대성기계와 디자이너이자 공예 작가이기도 한 주얼리스튜디오 수진은 장식성이 부각되는 디자인보다 기능을 중점으로 한 기하학적인 형태의 제품을 제작했다. 가정용품뿐만 아니라 기계, 건축용으로도 널리 쓰이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소재인 알루미늄으로 만든 이 멀티홀더는 티라이트, 향초, 인센스 홀더 기능을 하나로 묶은 멀티플레이어다. 차가운 재질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감성으로 서로 상반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아노다이징 표면 처리를 함으로써 부식이 일어나거나 표면이 쉽게 상하지 않고 사용자의 취향이나 분위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성기계

“DDP디자인페어에 처음 참여하였는데 서로 다른 감성을 지닌 디자이너 분들과의 작업이 진중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주얼리스튜디오 수진과의 협업으로 만든 멀티홀더의 첫 디자인은 나사산을 내어 돌려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었는데요. 나사산을 내기에 무른 재질의 알루미늄 재질로는 대량 생산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디자이너와 의논 후 나사산이 없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료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비춰지는 형태, 색상과 더불어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완성되었을 때 실제로 쓰임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디자이너 주얼리스튜디오 수진

“금속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로 다양한 금속을 가공하는 대성기계와의 소통으로 디자인에 적합한 소재를 찾고 그에 맞는 디자인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저에게 아주 유익했습니다. 혼자 작업할 때에는 시행착오로 인해 작업 시간이 길어지곤 하지만, 이번 협업에서 소상공인의 노하우와 만나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다양한 소재를 경험하며 많은 소상공인과 협업하길 바라며 계속해서 많은 노하우를 배웠으면 합니다.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며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을 온·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었고 그 분들과 협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얼리스튜디오로서 주얼리 제작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한수제화협동조합 — 펜슨디자인

(한국스러운 힘, 삼겹살 이미지의 스니커즈 ‘그래픽 슈즈’)

소상공인

대한수제화협동조합

디자이너

펜슨디자인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K-pop, K-드라마에 이어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삼겹살을 즐기는 것은 더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삼겹살 이미지를 신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재밌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이 디자인은 유니크한 스니커즈가 되었다. 얼핏 보면 독특한 마블링 같지만 자세히 보면 삼겹살 이미지의 스니커즈, 한국스러운 힙함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유발하기에 딱 좋다.

소상공인 대한수제화협동조합

“수제화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아직 조금은 올드하고 식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제작한 스니커즈는 젊은층도 수제화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도있게 보강해서 나오면 잘 팔리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디자이너, 소상공인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다 협업을 하다보니 어느 정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창의적인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해 생산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디자이너 펜슨디자인

“눈에 띄는 독특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강력한 이미지를 뽐내거나 개성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라 생각해요. 좀 엉뚱한 컨셉트여서 소상공인과 소통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패브릭에 문제 없이 프린팅하기 위해 원본 이미지와 프린팅 과정의 질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한수제화협동조합 — 핸드플러스

(숨은 스마일 찾기, 스마일 국화문 캔버스화)

소상공인

대한수제화협동조합

디자이너

핸드플러스

매화, 난초,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의 하나로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진 국화를 활용한 스마일 국화문 캔버스화는 전통무늬 새활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태어났다. 장수와 복락을 상징하는 길상 문양인 국화문에 스마일 모티브를 더하고 색상 요소를 재미있게 더해 저마다의 문양과 빛깔을 뽐낼 수 있도록 했다.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단에 왁싱 처리를 해 자연스러운 스크래치가 표현되도록 했고, 생활 오염을 막아주는 원단을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전통의 재해석뿐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한 캔버스화이다.

소상공인 대한수제화협동조합

"협업을 진행하던 초기에는 핸드플러스의 구상이 제품에 잘 표현될 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감각의 디자인을 제공해 주신 덕분에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왔고, 실제 제작하는 저희도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실력있는 디자이너들과 함께 여러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디자이너 핸드플러스

"많은 디자이너들이 K-문화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 전통무늬를 현재에 맞게 활용한 제품 제작을 목표로 했습니다. 국화문에 스마일 문양을 접목시키고 색상도 재미있게 매치해 보았는데요. 미래에 전해져야 할 것들 중에는 문화만이 아니라 환경도 포함된다고 생각해 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원단을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동경금속 — 후스디자인

(메탈 볼과 밴딩 파이프가 인상적인 '논 체어 NON CHAIR')

소상공인

동경금속

디자이너

후스디자인

메탈 볼과 밴딩 파이프의 조화로 탄생한 유니크한 디자인의 'NON CHAIR'는 안락한 느낌의 색감 덕분에 어느 공간에서든 자연스레 어우러진다. 또한 동글동글한 외형의 특징을 지닌 덕분에 키즈카페나 호텔, 펜션의 라운지 등 트렌디한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추후 동경금속과 후스디자인은 'NON CHAIR'가 지닌 형태적 특징을 응용하여 벤치 및 테이블까지 확장시킨 '논 퍼니쳐 시리즈 Non Furniture Series'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동경금속

"동경금속이 가지고 있는 메탈 볼 가공 및 스핀닝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작했습니다. 제품의 형태적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디자인 컨셉트이길 바라며 협업을 시작했는데 후스디자인을 만나 동경금속의 상징적인 기술력이 의자의 유니크함을 살리는 디자인 요소로 부각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디자이너 후스디자인

"메탈 스핀닝과 메탈 볼 제작에 특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동경금속의 금속 가공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고자 했습니다. 상생이라는 취지에 맞게 디자인의 결과물이 양사 간의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중심에 두고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금속가공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작 방법을 협의할 수 있어서 컨셉트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최종 디자인 전개까지 시행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라익디스 — 강종길

(암석층 패턴에서 들리는 선율을 시각화한 러그, ‘론도 Rondo’)

소상공인

라익디스

디자이너

강종길

2022 ddp Design Fair

자연 풍화나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 깎이거나 퇴적된 암석층에서 ‘리듬’이 발견되었다. 반복되는 주제 선율 사이 사이 변주되는 음악 형식을 일컫는 ‘론도’처럼 암석의 종류, 구조 등 주어진 조건 속에서 기후와 같은 변수에 의해 드러나는 패턴이 흥미로운 멜로디를 만들어 낸 것이다.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수려한 디자인의 러그를 통해 틀에 박힌 일상 속에서의 변주를 잠시나마 느껴볼 수 있다.

소상공인 라익디스

“강종길 디자이너의 회화 작품을 러그에 담아낸 제품입니다. 이 작업은 작가에 대한 존중과 시장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까다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라익디스의 생산 노하우를 담아 제품화하는 것이 이번 협업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디테일한 붓 터치를 표현할 수 있는 제작 방식은 물론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퀄리티와 가격, 마케팅, 유통을 포함한 시장성까지 모두 고려하여 값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강종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현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가꾸고, 집안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많이 쓰죠. 집안에서 가장 넓은 면을 차지하는 바닥을 통해 여유를 즐기고 힐링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의 작업을 발전시켰습니다. 협업을 통해 디자이너의 이상적인 생각과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태도를 조합함으로써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르마블 — 스튜디오 플라스틱

(넓은 판형으로 즐기는 대리석 가구, ‘이클립스 Eclipse’)

소상공인

르마블

TOTAL MARBLE
LE MARBLE

디자이너

스튜디오 플라스틱

‘대리석의 고유한 무늬를 최대한 넓은 판형으로 즐길 수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가구 ‘Eclipse’. 무거운 무게로 인해 가구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대리석을 수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탄생하였다. 모듈 가구의 형식을 가진 금속과 대리석의 유려한 조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질감 없이 사용자들의 공간에 맞게끔 구성할 수 있으며, 대리석의 매력적인 질감을 각자의 공간 속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한편 대리석을 경량화 해 부담을 덜어냄과 동시에 효율적인 수납 가구의 기능을 구현했다.

소상공인 르마블

“천연석으로 해보지 않았던 결합 방식과 구조 등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디자이너와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열정을 공유함으로써 하나 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협업을 통해 더 다양한 관점에서 소재를 바라볼 수 있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스튜디오 플라스틱은 대리석이라는 소재의 무게감과 딱딱함을 제한으로 여기지 않고, 대리석의 가능성을 유연하게 풀어나가 소재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매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디자이너 스튜디오 플라스틱

“대리석의 새로운 가능성을 꾸준히 탐구해왔던 르마블이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리석을 활용한 가구에 도전해 보길 원해, 모듈 가구를 제안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중들에게 다분히 고급 소재로 인식되고 있는 대리석의 이미지는 그대로 살리면서, 기존 모듈 가구의 산업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공예적인 이미지를 담은 금속 프레임 구조의 디자인에 도전해보고자 했습니다.”

미식 — 박지선

실용성을 담은 이동하는 예술 조각, ‘피스 콤비네이션 트롤리 Piece Combination Trolley’

소상공인

미식

디자이너

박지선

얼핏 보면 하나의 조각품인 것 같은 이 트롤리는 기능적 역할 뿐만 아니라 오브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디자이너의 감성이 투영된 조형적 디자인을 살리되, 기계적 생산이 가능한 설계로 이동성을 장착한 트롤리가 탄생한 것이다. 선의 감각이 살아 있는 역동적인 디자인을 느낄 수 있고 블랙 스테인을 먹인 합판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무드를 선보인다. 또한 유리를 활용하여 실용성과 공간감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축에서 오는 선재와 면재의 조형적 콤비네이션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이동하는 조각 예술품’이다.

소상공인 미식

“작가들의 개별 작품들은 수공예 기반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양산 방식에 대한 고민이 늘 뒤따릅니다. 이는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텐데요, 박지선 작가와는 특정 공정을 단순화하는 방식을 고민함으로써 양산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미식은 작가들의 작업 방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이끌어 나가면서, 만들어진 작품을 어떻게 프로모션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이번 DDP디자인페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공개하는 상품을 국내 여러 기업과 다양한 소비자, 그리고 해외 브랜드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미식이라는 아티스트 콜렉티브를 작품 유통이 활발하게 가능한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디자이너 박지선

“아이디어 구상부터 결과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혼자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DDP디자인페어의 매칭 프로세스는 신선함 그 자체였습니다. 덕분에 미식이라는 멋진 팀과 매칭되어 만족할 만한 상품을 만들었고요. 이제 가구는 리빙 영역에서의 단순 기능을 넘어 오브제로서 기능하는 만큼, 기능성을 갖춘 것은 물론 일상 속에서 하나의 아트 피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트롤리의 디자인으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아트 퍼니처를 큐레이션하는 미식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Piece Combination trolley’는 트롤리의 ‘이동성’이라는 특성을 살리고, 역동적인 선의 감각이 살아 있는 컨셉트를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재료와 조형에 대해 연구하고 서치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체어 작업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디자이너로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DDP디자인페어가 앞으로 더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더 큰 발판을 제공하여 글로벌화 되길 바랍니다.”

미식 — 손태선

시각적 자연을 경험하는 사이드 테이블 ‘Marine Biology Series Side Table’

소상공인

미식

디자이너

손태선

추상적인 외형 때문일까? 경험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연상시키는데 어찌보면 자연 속의 어떤 형태를 표현하는 듯하다. 사이드 테이블이라는 설명이 붙어야 그 용도가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예술성이 돋보인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미덕은 가구의 실용성이 아닌 자연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 일종의 시각적 자연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작품의 곡선에서는 건강미까지도 느낄 수 있는데, 시각적 자연을 넘어 마치 인체의 한 부분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미식

“손태선 디자이너는 가구를 하나의 조각으로 바라보고 디자인 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단단한 물성의 소재를 부드러운 형태와 다양한 조형으로 표현함으로써, 조각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고려하며 만듭니다. 협업을 통해 이러한 작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디자이너 손태선

“자연의 신비로운 형태가 충돌하며 생성되는 감성적 시각의 곡선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의례적으로 떠올리는 바다생물이 아닌, 생물의 아름다움을 추상적으로 변용한 이미지를 작품의 모티프로 삼았습니다. 미식은 디자이너에게 방향성과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한 방식에는 많은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DDP디자인페어는 다양한 시도와 여러 제작 방식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미식 — 이시산

경계 그리고 모호한 관계성의 스툴, ‘Neo-primitive’

소상공인

미식

디자이너

이시산

LEE SISAN

원시성과 현대성, 자연과 인공, 오브제와 가구. 여러 경계들에서 모호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의자, ‘Neo-primitive’는 나무가 가진 고유성을 알루미늄 주물 방식으로 담아냈다. 자연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루미늄이라는 철의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인공의 물질 속에 자연이 이질감 없이 스며든 의자는 경계에 서서 새로운 쓰임에 대한 가치를 전한다. 심미적인 측면을 극대화한, 작품과도 같은 이 가구는 단조로운 공간에 특별함을 더한다.

소상공인 미식

“집과 가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다양한 소규모 가구 브랜드가 탄생하게 만들었고, 가구 기반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기성 가구와 달리 심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하나의 작품 같은 가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시산 디자이너와 함께 나뭇가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탐구하였고, 알루미늄 주물이라는 방식을 접목시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이시산

“최근 가구의 일반적인 역할 이외에 다양한 가치를 가진 가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과 삶 속에서 가구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쓰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파트너였던 소상공인 미식이 갤러리를 운영하는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협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알루미늄 주물방식을 연구하고, 이를 가구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보다.담다 — 발헤임

떠다니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의자, ‘대기 Atmosphere’

소상공인

보다.담다

디자이너

발헤임

의자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조만 갖추고 선과 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의자는 대기권에 존재하는 비행체, 흐름 등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분해와 결합이 쉽도록 볼트와 너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가지 형태와 컬러를 가진 등판과 팔걸이 등의 요소를 자신만의 취향으로 조합할 수 있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Atmosphere’라는 이름답게 떠다니는 분위기를 자아내 사용자의 우주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소상공인 보다.담다

“‘Atmosphere’는 의자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조로만 이루어져 쉽게 분해와 결합이 가능하며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한 의자예요.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기존에 써보지 않았던 다양한 하드웨어와 마감 기법을 시도해 보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가장 적합한 가공법을 찾기 위해 디자이너와 많은 소통을 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협업심을 기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발헤임

“원자재 가격, 가공 비용, 무게, 사용감 등 현실적 요소와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조율 과정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목공을 전문으로 하는 소상공인이기에 스틸을 사용할 때 구조적인 문제와 가공 방법을 깊게 고민해주셨고, 덕분에 좋은 의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스틸 파이프를 베이스로 하여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해 좀 더 다채로운 개성을 표현하는 의자 시리즈를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보다.담다 — 보니또

무드와 실용성을 두루 갖춘 ‘CURVE LIGHT’

소상공인

보다.담다

디자이너

보니또

3개의 전구가 조화를 이루는 ‘CURVE LIGHT’는 벼, 갈대, 파도 등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곡선을 형상화했다. 스탠드 조명의 받침은 조명을 받치는 특성상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 받침이 단순히 조명을 받치기만 하는 용도를 넘어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핸드폰을 올려 놓을 수 있는 거치대와 충전 단자를 추가했다. 자연 속 아름다운 곡선이 녹아있는 ‘CURVE LIGHT’는 직선이 많은 기존 가구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발휘한다.

소상공인 보다.담다

“협업을 진행하며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디자이너와 많은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디자인만 하다가 여러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디자인을 더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디자이너 보니또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면서 좋은 디자인의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과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생각했습니다. 협업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고, 혼자일 때 보다 배움과 깨달음을 더 크게 느끼게 되어 좋은 추억과 경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존 프로세스가 아닌 새로운 프로세스를 접목하여 더 쉽고 빠르게 결과를 만들 수 있기도 했고요. 소상공인과의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어려움마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김다은 — 김민준

애서가(愛書家)들의 자기표현, ‘무트 moot’

소상공인

스튜디오김다은

디자이너

김민준

무트(moot)는 책을 세워 보관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꽂아 전시대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테이블 오브제이다. 읽던 책의 구간을 표시하는 책갈피와 같은 실용적인 역할을 넘어 일상 공간의 무드를 바꿔줄 수 있는 조형물이 되기도 한다. 생산성에 유리한 알루미늄을 소재로 유기적 곡선을 조형하였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텍스처로 마감했다. 애서가들은 스스로를 표현할 때 현재 읽고 있는 책과 그 내용으로 설명하곤 하는데, 이런 점에서 무트는 애서가들의 자기표현을 도와줄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소상공인 김다은

“제품을 제작할 때 단가가 적절한 제작 방식을 찾고, 사용에 적당한 무게감으로 구현하면서 유기적인 형태를 살려내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사형 주조가 가능한 형태로 조형하고, 내부의 두께를 조절해 무게감을 해결하는 식으로 고민하며 결국 방안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형가로서 실용적인 디자인과 아트 사이에서의 타협점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는데, 실용에 대한 관점을 더 잘 이해하는 디자이너와 협의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김민준

“요즘 문진, 홀더 등 다양한 오브제 성격의 데스크 웨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더불어 아날로그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애서가들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협업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작업을 구상하고 디자인하는 작업자들이 만난 것이다보니 서로가 원하는 느낌을 조율해서 담아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품 제작에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각자 해왔던 다른 경험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주산업 — 에프스퀘어스튜디오

초고성능 콘크리트에 조형미를 더한 세면대, ‘엘립소이드 Ellipsoid Basin’

소상공인

아주산업

디자이너

에프스퀘어스튜디오

조형미가 돋보이는 세면대 ‘Ellipsoid Basin’은 기존 세면대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기분 좋게 깨트린다. 어찌 보면 나른하고 진부한 화장실이란 공간 안에서 인테리어 포인트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한 내구성은 물론 유동성이 높아 성형에 유리한 초고성능 콘크리트인 UHPC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디자인으로 세면대 벽면으로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스럽게 배수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형태와 기능 사이에서 깊어진 고민을 조형성, 심미성을 가미함으로써 유쾌하게 해결하였다.

소상공인 아주산업

“자원 이슈와 함께 대두되는 ‘지속가능성’에 가장 어울리는 소재가 바로 UHPC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정도 수명의 일반 콘크리트와는 달리 UHPC는 높은 압축강도과 낮은 흡수율로 100년 이상의 수명을 가진 콘크리트이기 때문이죠. UHPC 소재로 만든 세면대는 수분에 취약한 콘크리트라는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지 대중에게 좀 더 널리 알리기에 좋은 상품이 될 것입니다. 물이 튀지 않게 하는 등 사용 시 불편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형태적으로 더욱 미려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접점을 찾는 것을 중점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물이 볼 바깥 쪽으로 튀지 않도록 세면대의 벽을 안쪽으로 말아 올렸고, 제품명에서 볼 수 있듯 전체적으로 타원체의 부드러운 곡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건자재 생산과 판매인 아주산업은 DDP디자인페어에 첫 참여함으로써 UHPC라는 소재가 건축과 토목 외에도 주거, 상업, 여가, 문화 등 여러 공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나아가 UHPC의 시장이 더욱 커지길 바랍니다.”

디자이너 에프스퀘어스튜디오

“이번에 협업한 아주산업에서 주력하고 있는 UHPC 소재를 활용하여 세면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면대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하되 독특한 형태로 시선을 끌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다 우선 소재와 색상에 있어서의 일탈을 디자인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색의 콘크리트가 아닌 강렬한 코랄 색상으로 시선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형태에도 변화를 주었는데요. 초반에는 조금 더 각진 형태였는데 점점 타원체로 변화시켜 지금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물이 닿는 타원체 내부 형태는 전혀 변함이 없었고요. 협업의 과정을 거치며 변화와 반전이 있던 모든 순간을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참여한 DDP디자인페어는 디자이너로서 그동안 실현시키지 못했던 좋은 디자인을 소상공인과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어고 스튜디오 — 최우영

이중적 삶의 문양을 담은 사이드 테이블, ‘AXIS SERIES’

소상공인

어고 스튜디오

디자이너

최우영

자유로움을 추구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우리들의 삶을 각각의 문양으로 풀어서 제작한 사이드 테이블 ‘AXIS STOOL SERIES’. 유기적인 형태로 자유로움을 표현하였으며 반복되는 우리들의 일상을 작업 과정에 담아 보여주고자 한다.

소상공인 어고 스튜디오

“리빙 퍼니처를 다루는 소상공인으로서 아트 퍼니처 디자이너와의 협업은 저의 제작 경험에 있어서도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트렌드나 이슈를 반영하기 보다는 디자이너가 일상 속에서 발견한 아이디어와 감성을 담아내어 제작했습니다. 작품 제작이라는 목표를 넘어 함께한 디자이너들과 각자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성된 느낌을 받아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DDP디자인페어 전시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홍보가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디자이너 최우영

“기존의 제작 작업 프로세스와 구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방법을 찾고 싶었던 의욕이 강했었는데요.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작업 방식과 제작 과정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쓰임새를 가진 소형 가구를 중점에 두고 진행했고, 효율적인 제작을 위해 프로세스를 최소화하는 것에 신경 썼습니다. 디자인을 스케치 하고 구상하더라도 제작 방법과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막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협업을 통해 보다 폭넓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류엘리먼츠 — 손태선

자연의 소멸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스툴, ‘Marine Biology Series Stool’

소상공인

오류엘리먼츠

ORYUELEMENTS

디자이너

손태선

역설적이게도 소멸 당한 생명의 물질이 자연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오류엘리먼츠와 디자이너 손태선이 협업 제작한 스툴은 불타고 살아 남은 나무(숯)의 색인 검은색을 띠고 있다. 숯은 갈라짐과 골이 있고, 은은한 매력을 자아내는 검은색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스툴은 숯을 유기적인 형태로 깎아낸 듯 하다. 자연을 모티프로 하면서 동시에 자연의 소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스툴, 형태는 추상적이지만 색상은 직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시각적인 경각심을 전달한다.

소상공인 오류엘리먼츠

“스툴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태워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나무가 너무 많이 타거나 적게 타면 원하는 텍스처가 나오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손태선 디자이너와의 협업 과정에는 새로운 텍스처를 찾는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손태선 디자이너는 기존 작업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번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이러한 점이 오류엘리먼츠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디자이너 손태선

“오류엘리먼츠와 함께 협업한 제품은 나무를 일일이 붙이고 덩어리를 깎아 만든 스툴입니다. 그런 스툴을 불에 태워가며 소멸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했습니다. 자연의 파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이죠. 소상공인 분과 구상부터 제작 등 작업 전반 과정을 함께 고민하니 혼자일 때보다 더 편하고 재미있게 작업한 것 같아요. 협업을 통해 오류엘리먼츠의 물성에 대한 이해도와 탐구 방식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스오프 — 조영진

공학적 우수성과 심미적 의외성의 ‘ITO 시리즈’

소상공인

오스오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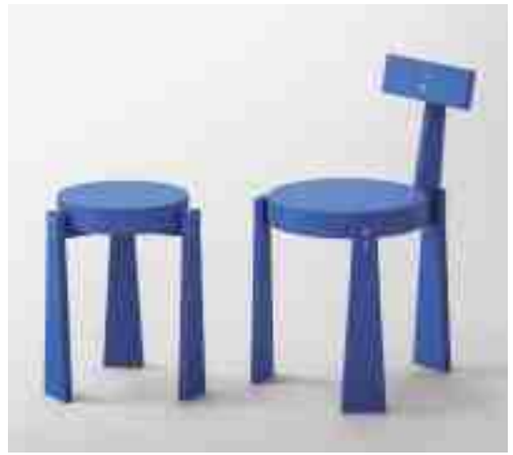
OS OF

디자이너

조영진

CHO YOUNG JIN

'ITO 시리즈'의 주요 소재인 MC나일론은 공학적 우수성을 지닌 소재로 산업 분야에서 목재 및 금속류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이다. 산업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립 구조를 노출시킴과 동시에 하중을 잘 견디기 위해 지면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실루엣을 만들어냄으로써 ‘ITO 시리즈’만의 독특함을 느끼게 한다. 공학적 우수성 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의외성까지 챙긴 이 제품은 일상 속에 생기와 재미를 더해준다.



소상공인 오스오프

“우리는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은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지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소재인 듯 합니다. ‘ITO 시리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인 MC나일론을 사용한 제품으로, 조립식이지만 충분한 견고함을 갖춘 구조와 형태이고 무엇보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재활용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조영진

“오스오프와의 협업 과정에서 저희는 서로가 가진 역량을 존중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았습니다.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각자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수정, 발전시키는 과정을 밟았고요. 저는 주로 제품의 디자인 캐릭터를, 오스오프는 가구의 구조적인 부분이나 실제 제작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두고 진행했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티키타카 패스를 주고 받는 듯 협업 과정을 거치며 저희의 아이템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어 유의미한 경험이었습니다.”

유싸스튜디오 — 장승태

폐기물 보존과 동반의 가치를 담은 스툴, ‘SIDE BY SIDE’

소상공인

유싸스튜디오

디자이너

장승태

‘어떻게 하면 폐기물 자체를 가구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스툴 ‘SIDE BY SIDE’을 탄생하게 했다. 쓰레기를 압축시켜 가구 안에 넣고, 여기에 에코 에폭시를 부어 폐기물을 보존 시키는 방법으로 제작된 이 스툴은 위에 앉을 때 마다 쓰레기와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일상 속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다시 바라보면 진중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소상공인 유싸스튜디오

“항상 환경오염이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는 만큼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산업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제작 방식을 고수하려 하는데요. 실제로 작업을 진행하다보면 이러한 점이 디자인적인 난관으로 다가 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장승태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가치 있는 디자인을 실행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디자이너 장승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슈화되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아파트 수거장에서 수집한 쓰레기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난 이후의 쓰레기 그 자체를 다시 일상 속 오브제로 가져온 것이지요. 무엇보다 혼자 작업할 때와는 또 다른 작업방식을 가진 분과의 협업을 통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고, 가치관과 시야 등이 더욱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시산 — 이시평

다른 소재에서 오는 오묘한 동질감의 오브제 거울, ‘인버스 Inverse’

소상공인

이시산

LEE SISAN

디자이너

이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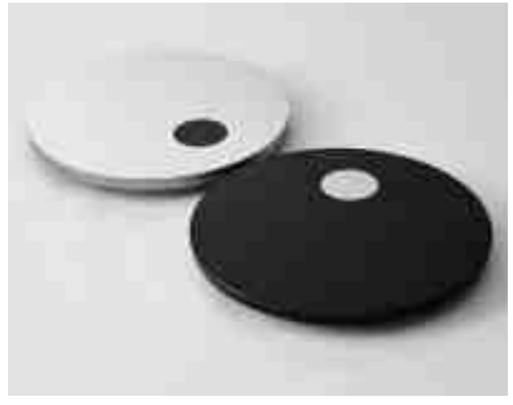
Inverse, 역(逆)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만든 거울이다. 각기 다른 물성을 가진 철재와 석재를 컷팅한 후 이를 반대로 배치하여 제작한 것인데, 상반된 소재로 조합된 두 거울의 외형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기에 특별하고도 기발한 재미가 깃들어 있다. 석재로는 ‘인디안 블랙’ 대리석을 사용하여 반사되는 거울과 시각적인 대비를 주었다. 놓이는 위치에 따라 공간을 확장시킬 수도 있는 이 거울은 장식 오브제 그 자체만으로도 엣지 넘치는 미감을 건넨다.

소상공인 이시산

“속성이 다른 물성인 철재와 석재를 컷팅한 후, 이를 반대로 배치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상반된 소재로 조합된 두 거울의 외형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블랙 대리석을 사용하여 반사되는 거울과 시각적인 대비를 주고 싶었기에 석재에 철을, 철에 석재를 상감하되 단차 없이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여러 번의 테스트 끝에 계획했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디자인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공간 속에서 장식적인 오브제가 되기도 하면서 거울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였고, 결과물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이시평

“소상공인이 가구 및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라 제가 평소 다뤄보지 않은 석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협업 과정에서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아무래도 둘다 디자이너다 보니 수월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지는 석재를 이용하여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일정 등의 여건 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최근 트렌드를 바탕으로 소재와 제작 공정,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합리적인 디자인을 내놓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디자인 연구를 하려 합니다. DDP디자인페어에 먼저 참여했었던 동료 디자이너들의 후기가 좋아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뜻이 맞는 소상공인과 함께 좋은 제품을 만들고 전시까지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여 첫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짐머만 — 로이스토

공중(空中)에서의 울림과 퍼짐을 담은 스피커, ‘공중 the air’

소상공인

짐머만

디자이너

로이스토

예술과 실용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모습, 오브제인지 스피커인지 모호한 이 제품의 이름은 ‘공중(空中, the air)’으로 하늘과 땅 사이 빈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크릴과 빛 사이에서 울리는 소리가 빈 곳을 채운다는 컨셉트로 소리의 울림과 빛의 퍼짐을 통해 청각적이고도 시각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디자인의 기본인 점, 선, 면이 전면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목재, 아크릴, 빛(LED) 등 소재의 다양함을 꾀해 가장 기본적이되 구성 요소 모두가 빛나는 스피커 오브제가 탄생했다.

소상공인 짐머만

“로이스토와의 협업을 통해 아크릴 조형물과 목재 스피커를 조합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가운데 위치한 스피커의 인클로저는 비치 합판에 먹물로 표면 처리를 하고 그 위에 오일로 마감함으로써 나무 질감을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스피커의 상하부에는 조명을 설치하여 딥그린 색상의 아크릴 조형물에서 은은하게 빛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디자이너 로이스토

“더욱 특별하고, 돋보이는 나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닌 그 존재만으로도 인테리어 요소가 될 수 있는 스피커를 디자인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스피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는데요, 전문적인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소재로 변경해 제품군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업 제품의 경우, 상하부의 아크릴에 그라데이션을 입히거나 유리 배면 인쇄 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 기대감이 큽니다.”

커스텀빌리지 — 널스튜디오

데일리룩에 어울리는 ‘DIY 커스텀 에코백’

소상공인

커스텀빌리지

디자이너

널스튜디오

언뜻 보면 크기, 색상, 디자인 모두 무난한 검은색 에코백이다. 매일 들어도 질릴 틈이 없을 것 같은 이 가방은 탈부착이 가능한 커스텀 포켓을 장착했다. 포켓에는 커스텀 인쇄가 가능해 자신만의 스타일은 물론 감성까지 연출할 수 있고, 무엇보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원단을 사용해 친환경적 가치까지 더했다. ‘질리지 않고 오래 사용하고 싶은 에코백’을 디자인하고 싶었다는 디자이너의 바람이 듬뿍 담겨있는 제품이다.

소상공인 커스텀빌리지

“이번 협업을 통해 디자이너분들과 작업함으로써 기존 일반적인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디자인과 소재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커스텀 제조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적용 방법을 연구해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든 디자이너들이 부담 없이 원하는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디자이너 널스튜디오

“에코백이 낡아서 버려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죠.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 우리의 니즈 또한 수시로 바뀝니다. 니즈를 만족시키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 질리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오염에도 강한 컬러와 친환경 소재로 택하여 디자인했습니다.”

커스텀빌리지 — 노디코마

도시감성 친환경 리사이클 후드 맨투맨, ‘리사이클 그래픽 풀오버 Recycled fabric graphic pullover’

소상공인

커스텀빌리지

디자이너

노디코마

모든 게 복잡하게 흘러가는 듯한 도시, 그 속의 심플한 감성을 품은 컬러와 실루엣의 후드 맨투맨이다. 이 옷 하나에는 오늘날의 패션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남녀노구에게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의류이며 리사이클 페트병을 소재로 한 원단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편안한 오버핏으로 활동성을 배가 시켜주고, 일상적인 오브제들을 활용한 그래픽은 도시적이면서도 부드러운 텍스쳐의 느낌을 조성한다.

소상공인 커스텀빌리지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수익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여력이 없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커스텀빌리지는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스텀 브랜드 창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DP디자인페어를 계기로 보다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커스텀빌리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매칭을 통해 만난 디자이너와 협업하면서 기존 나염이나 전사방식이 아닌 DTF방식의 새로운 전사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컬러는 더욱 선명하게, 선명도는 더욱 오래 유지되는 맨투맨을 제작하였고요. 그리고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다품종이 가능한 방식을 통해 디자이너가 다양한 디자인을 부담 없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디자이너 노디코마

“협업은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작업 형태로, 새로운 분야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각자가 쌓아온 노하우와 제작방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패션에 대한 관심과 시장이 커짐에 따라 지속 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번 매칭을 통해 디자이너로서 실현시키기 힘들었던 기술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작 공정에서도 테크닉적 보완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요. 향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함으로써 새로운 스타일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프랙티스 — 안서후 스튜디오

각파이프의 미학적 변신, ‘밴드 시리즈 Bend series’

소상공인

프랙티스

PRACTICE

디자이너

안서후 스튜디오

다양한 사이즈로 규격화된 각파이프는 재단 및 밴딩되어 가구와 인테리어 그리고 건축의 구조체에서 흔히 사용된다. ‘Bend series’의 스툴과 의자는 산업 소재인 각파이프의 특성을 활용한 아트퍼니처이다. 장식을 배제한 미니멀한 디자인의 의자는 사용자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양산과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최적의 마감을 자랑한다.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 배출량은 줄인 혁신적인 디자인의 가구이다.

소상공인 프랙티스

“파이프를 구부리는 과정에서 오는 변형을 오차 범위 내로 줄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각도로 구부려보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최소한의 변형이 오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 제조 단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했어요. 디자이너와 함께 협업하며 최적의 마감과 단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디자이너 안서후 스튜디오

“프랙티스와 협업한 제품은 규격화된 각파이프를 밴딩 공정을 거쳐 구부린 후 용접하여 제작한 가구로, 지지되는 구조의 구부러진 각파이프의 마감에 변화를 주어 특이성을 부여했습니다. 협업 과정에서의 주안점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 제조 단가를 낮추는 것과, 양산을 위한 제조 공정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프랙티스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디테일 개발 및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단기간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DSLSM — 스튜디오 페시

필환경 시대, 친환경적 소재의 '루버 테이블 Louver table'

소상공인

DSLSM

디자이너

스튜디오 페시

기후변화에 따라 친환경 소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스튜디오 페시는 DSLSM에서 개발한 플라스틱 마블(Plastic marble)의 특성을 연구하여 가구에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바닥재나 벽면재에 사용되는 루버(Louver) 가공을 플라스틱 마블 판재에 반영하여 색상이 교차하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만들어냈다. 규칙적 패턴의 상판은 강렬한 인상과 함께 다소 묵직한 느낌을 주는데, 검은색의 직육면체 하부가 튼튼하게 받쳐줌으로써 구조적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소상공인 DSLSM

"스튜디오 페시와 협업한 제품에는 친환경 이슈 중 재활용 소재의 업사이클에 대한 고민을 담았고, 그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플라스틱 마블은 새로운 소재이므로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한 탓에 그 특징을 어떻게 활용 및 적용할 것인지 찾아내야 했는데요. 스튜디오 페시와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 소통을 한 덕분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스튜디오 페시

"접해보지 못했던 소재 플라스틱 마블에 대한 연구는 물론, 외부 가공 업체 컨트롤까지 DSLSM에서 적극 지원해주신 덕분에 마음 편히 디자인 작업에 집중하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루버 테이블에 적용한 방법을 향후 다양한 가구군으로 확장하고, 전시를 통해 대중들에게도 선보임으로써 친환경 소재인 플라스틱 마블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DSLSM — 트로피크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담은 업사이클 의자, '리타이벡 체어 Retyvek Chair'

소상공인

DSLSM

디자이너

트로피크

친환경 패키지를 제작하고 남은 부산물로 HDPE 업사이클 판재인 'Plastic Board'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새로운 소재의 특징을 토대로 새로운 해석을 더하는 디자이너의 감각이 더해져 업사이클 의자가 탄생했다. 두께와 밀도가 불규칙한 업사이클 판재에 공예적 공법이 가해지며 지속 가능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새롭게 떠오르는 업사이클 소재에 대한 활용 사례와 비전을 보여주고자 하는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의 강인한 의지 또한 돋보인다.

소상공인 DSLSM

"디자이너께서 직접 소재를 실험하며 디자인을 도출했고 업사이클 HDPE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디자인을 보여주신 만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 전체가 흥미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DDP디자인페어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시되고 홍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참여 디자이너와 소상공의 성장은 물론,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페어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이너 트로피크

"지속가능한 가치를 중심으로 꾸준히 소재를 연구해오고 있는 소상공인을 만난 건 저에게 큰 행운이자 배움의 기회 그 자체였습니다. 직접 연구하고 협업하며 쌓아온 소재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해 주신 덕분에 소재 실험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형태과 공법을 시도하면서 과정 전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DSLSM — SPTL(스페이스 텔러)

(플라스틱 마블 속을 유영하다, '나다르 Nadar')

소상공인

DSLSM

디자이너

SPTL(스페이스 텔러)

디자이너는 업사이클 소재인 PMB(Plastic Marble Board)의 그라데이션을 보고 포르투갈 여행에서 보았던 베이지색 모래사장과 딥그린색 바다를 떠올렸다. 이 이미지는 제품 디자인으로 이어졌는데, 'PMB'로 가구의 기틀을 잡고, 유리 소재의 상판을 얹힌 사이드 테이블과 소반이 바로 그것이다. 투명한 상판 덕분에 어떤 물건을 올려 놓든 그 물건은 하단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마블 속에 떠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품의 이름을 포르투갈어로 '수영, 헤엄치다'의 뜻을 지닌 'Nadar'라고 붙였다. 'Nadar'를 통해 업사이클 소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즐겨보자.

소상공인 DSLSM

"협업을 진행하며 무엇보다 스페이스 텔러의 관점과 생각을 존중했습니다. 새로운 소재이다 보니, 가공과 제작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공을 위한 피드백만 제공하고, 소재에 대한 해석과 디자인은 전적으로 스페이스 텔러를 믿고 진행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하는 스페이스 텔러만의 디자인 프로세스와 스타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SPTL(스페이스 텔러)

"PMB 소재에 대한 이해도를 토대로 제작하며 평활도, 즉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에 대한 이슈를 개선하면 소재의 활용도가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부터 존재했던 이슈에 대해 사전 체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험해보니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디테일을 조정해 나가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제품을 차질없이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이제민

PART 2-3

소상공인+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우수 120팀

(삶을 리셋하다
Reset Life : Calming Coral)

#엔데믹
#뉴노멀
#미니멀어게인
#저성장경제

감성공업 — 라이크모노핸드메이드

대도시 속 1인 생활자를 위한 가구, ‘플랜테이블 Plantable’

소상공인

감성공업

디자이너

라이크모노핸드메이드

용도를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이 제품은 실제로 다양한 쓰임이 가능한 커스터마이징 가구다. 1인용 휴식 의자가 되기도 하고, 식물을 키우는 화분 혹은 테이블로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로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인테리어와 생활 패턴 등에 관심 갖는 것이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고, 외부와의 단절로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획, 제작되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이동이 용이해 한 공간 안에서 다채로운 연출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소상공인 감성공업

“라이크모노핸드메이드와 협업한 제품은 소파로 쓰다가 테이블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닛화한 제품입니다. 식물 재배도 가능해요. 다종의 생활 행위를 가구 하나에 집약함으로써 작은 공간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는 일반적으로 목재라는 소재에 집중해 고정관념에 사로 잡히기 쉽운데, 패브릭을 능숙하게 다루는 디자이너와 협업함으로써 한층 확장된 시야를 갖게 된 점이 좋았습니다.”

디자이너 라이크모노핸드메이드

“같은 공간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어떨까? 하나의 아이템을 다양하게 이용한다면, 같은 공간도 다른 공간처럼 느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한 쓰임이 많은 제품입니다. 쿠션을 올리면 벤치 소파로, 쿠션을 내리면 좌식 테이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한 켠에는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서랍장이 있으며 아담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또 다른 테이블 위나 바닥에 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라운닷 — 로앤신

면과 직선적 구조의 조화의 원목 의자, ‘스트럭쳐 체어 Structure Chair’

소상공인

그라운닷

디자이너

로앤신

ROH&SHIN

일반적인 원목 의자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는 이 의자. 얼핏 보면 심플하지만 꼼꼼히 살펴볼수록 센스와 똑똑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의자에는 좌판과 등받이, 다리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보강대는 물론 사용자의 사용성과 안락함을 위한 기울기가 중요한데, 이 제품은 이러한 특징을 역이용하여 컨셉트를 잡았고, 연결성 있는 레이아웃을 생각하며 만들었다. 각 파트에 포인트가 되는 보강대를 끼워 넣고 다른 컬러 또는 다른 소재-화이트 오크와 월넛-를 사용해 디자인함으로써 앉으면 앉을수록 견고함을 느낄 수 있다.

소상공인 그라운닷

“협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제품 개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올해 처음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와 매칭된 후 제작 구현 및 상용화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초반에는 화이트 오크와 월넛을 이용한 면과 직선적인 구성의 의자를 제작하는 방식이 생소하여 다소 난해했습니다. 그러나 디자이너와 함께 의견을 조율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협업의 장점을 몸소 실감한 만큼 이번 DDP디자인페어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행사가 더욱 활성화되어 다양한 협업과 양질의 상품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디자이너 로앤신

“혼자 활동하는 디자이너로서 홍보는 물론 좋은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여 DDP디자인페어에 재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매칭된 소상공인 그라운닷은 목재라는 소재의 물성과 제작, 가구 산업에 대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셨기에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의 피드백을 솔직하게 주셨기에 디자인의 완성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고요.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의자를 양산한 후 로앤신과 그라운닷의 효자상품으로 자리하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향후 계획입니다.”

그라운닷 — 토요가구클럽

(아크릴을 통해 목재의 짜임이 보이는 스툴, POND STOOL)

소상공인

그라운닷

디자이너

토요가구클럽

스툴의 좌판은 투명한 아크릴과 결합함으로써 스툴 내부의 좌판과 하단부의 짜임 구조를 의도적으로 드러낸다. 나무를 소재로 하는 짜맞춤 작업은 작업자의 기술과 노하우에 따라 그 만듦새가 결정되는데, 아크릴을 통해 보여지는 짜임구조에 시선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좌판과 하단부를 구성하는 8개의 피스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제작하였다. 간결하지만 탄탄한 결합을 그래픽적인 요소로 사용한 것도 이 스툴만의 독특함이다.

소상공인 그라운닷

"DDP디자인페어에는 올해 처음 참여했는데, 다양한 형태와 소재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함으로써 폭넓은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총 5개의 디자이너팀과 협업 제품을 만들었는데, 토요가구클럽과는 체리목을 이용한 스툴을 만들었어요. 익숙치 않은 제작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도 했지만 소통을 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디자이너 토요가구클럽

"목공방 그라운닷과 함께 'Pond Stool'을 제작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작업 방식을 디자인에 적용하고 소상공인은 디자이너의 의도를 이해하여 작업하는 과정이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재의 특성이나 마감 같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 성공적인 협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라운닷 — 파운드파운디드

(벤치로 변신이 가능한 웨빙 스트랩 스툴, 'KNOT Stool')

소상공인

그라운닷

디자이너

파운드파운디드

found/Founded

목재와 웨빙 끈의 조합을 위트 있게 풀어냄으로써 소비자가 컬러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스툴이다. 스툴의 개수를 늘리고 웨빙의 길이를 연장하여 한 번에 고정하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벤치의 형태로 확장된다. 베이직한 형태의 원목가구에 결합된 웨빙 스트랩은 내부의 마감재를 보이지 않게 감추는 것과 동시에 스툴을 단단히 묶어 고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전달한다. 견고함을 높여주는 하드웨어의 기능도 갖추었는데, 고정된 웨빙을 손잡이처럼 잡고 들어올리면 스툴을 편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

소상공인 그라운닷

"DDP디자인페어에는 처음 참여했는데 다양한 형태와 소재를 응용한 제품 개발로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드 메이플과 자작나무 합판 그리고 웨빙 스트랩을 이용한 스툴을 만들었는데 생소한 제작법 구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업팀과 함께 의견을 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참여 의지가 높은 만큼 앞으로 디자인페어가 더욱 활성화되어 다양한 협업과 양질의 제품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디자이너 파운드파운디드

"소재의 변화를 통해 사용자에게 색다른 감각을 전달하고자 목재와 다른 소재를 결합시켜 공간에 신선함과 재미를 불어넣을 수 있는 스툴을 디자인했습니다. 이에 실력과 열정을 다각도로 겸비한 소상공인팀과 매칭 되어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세트 구성으로 다양한 가구를 만들고자 했지만 일정 상 스툴만 제작했는데요. 이후 다른 가구 라인업까지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라운닷 — HSJG

(매거진랙 기능을 더한 협탁 겸 스툴, ‘A 테이블’)

소상공인

그라운닷

자연스러운 멋과 따스한 감성이 느껴지는 이 가구. 협탁일까? 스툴일까? 침대, 거실 등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높이를 가진, 두 가지 매력을 겸비한 협탁 겸 스툴이다. 침대로서의 적정 높이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높이를 동시에 고려해 설계되었다. 이 밖에도 디자이너의 숨은 세심함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매거진랙 기능을 더해 평소 자주 보거나 좋아하는 잡지를 꽂을 수 있도록 한 점은 이 가구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든다. 사용자의 휴식과 안정 추구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가구다.

소상공인 그라운닷

“HSJG와의 협업을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다양한 형태와 소재를 응용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폭넓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아가 상품화까지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HSJG

디자이너 HSJG

“나무라는 소재가 지니는 고유의 따뜻함과 자연적 감성을 가져와 일상 속 휴식을 제공하는 다목적 가구를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사용자들은 휴식을 제공하는 여러 섹터들에 맞게 가구를 배치해 다양한 휴식을 즐길 수 있어요. 공간과의 어울림과 사용자의 안정된 휴식을 주기 위하여 레드오크 소재를 사용했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적정한 높이의 스툴의 역할과 함께 자주 보는 서적을 놓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기브앤테이크 — 테일야드

(바다의 활동적 감성을 담은 의자와 스툴)

소상공인

기브앤테이크

GIVE&TAKE

Sharing hearts and mind, not just a material

‘Surfboard table chair’는 시트 등받이에 디자인 정체성을 담아 서핑보드 구조로 사용되는 스트링어(stringer)의 이미지를 적용하였고 연결된 뒷다리와 함께, 총 3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다. 해파리 형상에서 영감을 얻은 스툴 ‘Jellyfish stool’은 중앙 스틸 코어에 고정된 세 개의 다리가 상단 시트에 다시 고정되는 구조다. 시트의 형태는 밴딩된 다리 선을 강조하고 앉을 때의 편의성을 고려해 디자인되었다.

소상공인 기브앤테이크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방향을 이해하고, 실용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전반을 진행했습니다. 구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였고, 최선의 방향성을 찾게 됨으로써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재료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협의하며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 좋은 제품을 완성시키는 데에 도움이 됐습니다.”

디자이너

테일야드

2022 ddp Design Fair

디자이너 테일야드

“작년 DDP디자인페어에서 선보인 서핑보드 라운지 체어에 이어, 서프보드 테이블 체어를 만들었습니다. 서핑이라는 컨셉을 강조하기 위한 구조를 고안하고 다른 재료와의 결합을 통해 디자인 의도를 확실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스케치에서 스툴 디자인이 진행되었는데,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브앤테이크와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했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승테크 HSJG

센스와 실용,
그리고 감각이 깃든 리빙 용품

소상공인

대승테크

2022 ddp Design Fair

디자이너

HSJG

두 개의 다른 무늬목을 결합하거나 각각 사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한 도마 세트와 수저통 세트. 수저통 세트는 하나로 합쳤을 때 위생을 위해 먼지나 이물질 차폐가 가능하고 분리 시 각각의 수저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부에는 배수를 위한 구멍이 있어 세척 후 보관할 때 생기는 물을 배출할 수 있다. 오거나이저 세트는 알루미늄을 가공 및 절곡한 제품으로 각각의 기능을 지닌 모듈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어느 사무 환경에나 어울릴 수 있으며 트레이, 메모지 디스펜서, 연필꽂이, 테이프 디스펜서, 북엔드로 구성되어 있는 각 파트는 하나로 결합되어 정돈된 사무 환경을 만들어 준다. 조형과 소재의 아름다움과 함께 기능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소상공인 대승테크

"협업을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으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디자인 부분에서 요즘 트렌드는 물론 나아가야할 방향성 또한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제품들이 더 많이 알려져 많은 매출과 이익을 통하여 상호간의 발전적인 시너지를 내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HSJG

"환경에 위해되지 않는 원목과 알루미늄 소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소재 가공 업계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대승테크와 매칭되어 서로의 시너지를 통해 좋은 작품을 하게 되어 매우 좋았습니다.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한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실체화 한 것에 매우 큰 기쁨을 얻었고, 이번 기회로 다양한 소비자에게 상품화하여 서로간의 긍정적인 발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디지털편백 우드스튜디오 움

소소한 일상을 빛내줄 특별한 살림살이 소반,
'반 ban'

소상공인

디지털편백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 '소반'이 일상 속 개성 있는 실용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우드스튜디오 움과 디지털편백은 독창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Ban(반, 盤)'이라는 현대적인 소반을 제안했다. 소반과 쟁반으로 이용 가능한 이 제품은 한쪽으로 빠지지 않는 결구법인 주먹장(dovetail)에 착안하여 하부 프레임을 양쪽으로 살짝 벌릴 경우 탈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결합된 상태에서는 상·하부에 선반이 있는 소반으로, 분리된 상태로는 각각 소반과 쟁반으로 사용된다. 단순한 탈착 과정으로 인해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디지털편백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모던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소반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수종으로 제작하여 다양한 컬러 매칭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제품의 각도 부분 구현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먹장 형태로 만들다 보니 9도 정도 기울이는데, 조금만 벌어져도 윗판과 끼워지지 않고 빠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를 이용하여 각도를 일정하게 뽑아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디자이너

우드스튜디오 움

디자이너 우드스튜디오 움

"우리 전통 가구는 가는 선과 비례미가 특히 아름답습니다. 선을 살린 느낌을 디자인적 요소로 끌어와 주먹장(dovetail)이라는 결구법에 재미와 아름다움을 더하였습니다. 전통가구의 재해석, 구조(결구)법의 노출, 제작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데, 협소한 공간에서 지내는 1인 가구에 적합한 가구입니다. 제작까지 고려하여 디자인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협업을 통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모월 — 다린

시간을 잇는 협탁, 시간이 쌓이는 협탁
‘잇다; 시간을 잇다 Connect; time goes on’

소상공인

모월

디자이너

다린

젠가를 모티브로 한 시각적 개념 속 모듈 형식의 협탁으로 디자인된 ‘잇다’는 정사각형 형태 안에서 여러 공간을 분리하여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면 그대로 잊히거나 버려지는 가구가 아닌 모든 시간 속에서 요긴한 존재로서 가치가 담겨 있는 가구를 만들고자 한 목표대로 어느 공간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여러 방향으로 각도를 바꾸어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제품을 쌓아 올려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사용자의 의도나 공간에 특성에 따라 변신을 가능케 한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의 유연한 소통방식이 돋보이는 상품이다.

소상공인 모월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처음 만나보는 디자이너의 시각을 더해 하나의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가장 컸습니다. 그 기대는 값진 성취로 나타났습니다. 협업을 시작하면서 스케치 단계에서의 초기 디자인은 구조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와 의견을 조율하며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변경, 발전시켰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앞으로 모월에게도 새로운 자극과 방향성을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디자이너 다린

“DDP디자인페어에 처음 참여하는 만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비례하여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구했던 방향성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소상공인 팀과 매칭되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디자이너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심한 구조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거나, 공간 구조를 활용함에 있어 기발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고요. 저희는 협업 과정에서 ‘각자만의 시간’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소중한 추억이 쌓이면서 행복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듯 시간이 쌓이면서 더욱 견고해지고 곁에 두고 싶은 가구를 만들고자 한 것이죠. 또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홈-힐링 시간이 길어진 만큼 곁에서 든든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가구를 만들려 노력했고요. 하나의 협탁이지만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그런 가구말이에요. 아직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학생 디자이너로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과정들을 토대로 많은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목공방녹턴 — 에스투빅터

고양이와 집사 모두 행복한
‘팻파트먼트 Petpartment’

소상공인

목공방녹턴

디자이너

에스투빅터

소재가 주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디자인의 ‘팻파트먼트’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삶을 컨셉트로 제작된 캣타워로, 고양이와 집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구조와 동선을 정리하여 다양한 각도에 따라 다른 멋을 보여주는 이 제품. 기존의 캣타워는 높은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위로 오르기 위한 도구였다면 팻파트먼트는 전면부부터 남다르다. 집사들의 깔끔한 인테리어를 위해 고양이에게 필요한 구조가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뒷면은 창가에 위치하여 밖을 볼 수 있도록 개방감에 집중했다. 측면에는 집사들도 사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만들어 책이나 고양이 간식, 장난감 등을 보관할 수 있으며 우측면은 고양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4면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집사와 고양이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건축적 요소를 디자인에 접목한 팻파트먼트는 동물과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제품이다.

소상공인 목공방녹턴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게 되면 공방 홍보에 도움이 될 듯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 브랜드를 홍보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죠. 막상 참여하고 매칭을 통해 디자이너를 만나 작업을 하다 보니 홍보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디자이너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꽤나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목과 스틸을 사용하여 집사가 보기에도 멋지고 고급스러운 캣타워를 작업했는데 디자이너가 추구한 디자인 방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22년 DDP디자인페어 행사가 끝난 후에는 공방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이번 페어를 통해 큰 성취감을 얻은 만큼 내년 재참여를 생각 중입니다.”

디자이너 에스투빅터(S2VICTOR)

“DDP디자인페어는 저희만의 디자인 감성을 보여주기 좋은 장이고, 디자이너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여 재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만족할 만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반려묘를 키우는 집사의 인테리어를 보면 주로 반려묘 위주의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개선하고자 건축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심플하고 모던한 요소를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집사가 바라보는 면에는 원목과 스틸의 고유 패턴을 보이게 하여 인테리어의 심미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해 더 알게 되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 팀원 중 한 분께서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덕분에 서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한 제품이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 것을 목표로, 좀 더 양산성에 맞춰진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담다 — 솥

(한옥을 모티프로 디자인한 모듈 가구, ‘한옥 Hanok’)

소상공인

보다.담다

디자이너

솥

원색의 색감이 돋보이는 모던한 느낌의 이 가구, 의외의 면을 가지고 있다. 한옥을 모티프로 디자인한 모듈가구라는 점이다. 한옥 건축에 사용된 여러 제작 기법을 가구에 접목했다. 한옥의 ‘기둥’ 제작 기법인 ‘사개맞춤’으로 사용자가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에이프런의 끝선은 한옥의 구조인 ‘창방’의 곡선을 이용해 전통적인 느낌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조립 만으로도 고정할 수 있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분해, 보관이 가능해 공간 활용에도 용이하다. 또 상판의 양면은 다른 색으로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다.

소상공인 보다.담다

“디자이너 솥과 함께 한옥을 모티프로 한 모듈 가구를 제작하였습니다. 피스를 사용하지 않고 가구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 점이 가장 어려웠지만 CNC 가공 기법을 활용해 해결했습니다. 디자이너와의 협업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동향을 반영해 제품 방향을 정하고, 제작까지 이어지는 과정 전반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디자이너 솥

“한옥 모듈 가구는 테이블, 스툴, 수납장, 사방탁자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다리, 에이프런, 상판 3가지 파츠만으로 다양한 구조로 조립해 사용할 수 있는 가구입니다. 협업 과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소통과 경험이었어요. 여러 과정을 거치며 실패와 성공도 함께 경험하였고 덕분에 디자인 이상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새턴바스 — 스튜디오 페시

(새로운 욕실 문화를 이끌 욕실장, ‘그리드 GRID’)

소상공인

새턴바스

디자이너

스튜디오 페시

멀리서 보면 얼핏 하나의 격자 무늬 수납장 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하부장과 거울로 이루어진 욕실장, 그리드 컬렉션(GRID collection)이다. 음각의 선을 조각해 전면을 분할시키는 느낌을 주는 대신 하나의 그리드가 표현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150×150mm 규격의 그리드를 활용하여 거울에도 확장, 동일한 조형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모던한 느낌을 준다.

소상공인 새턴바스

“스튜디오 페시와의 협업을 통해 단순히 전시를 위한 제품이 아닌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기존 획일화된 디자인의 욕실 상·하부장에 한국의 오랜 전통인 창호 문의 느낌을 더하고, 여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리드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추후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컬러, 크기의 조합을 통하여 새로운 욕실 문화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디자이너 스튜디오 페시

“국내 욕실 가구 제조업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 중 한 곳인 새턴바스와의 협업을 통해 스튜디오 페시의 작업 스팩트럼을 확장하고, 단순히 포트폴리오로만 남는 작업물을 만들기보단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제로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제품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기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여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우트로 — 이목스튜디오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사이드 테이블, ‘로우 월 Low Wall’)

소상공인

아우트로

디자이너

이목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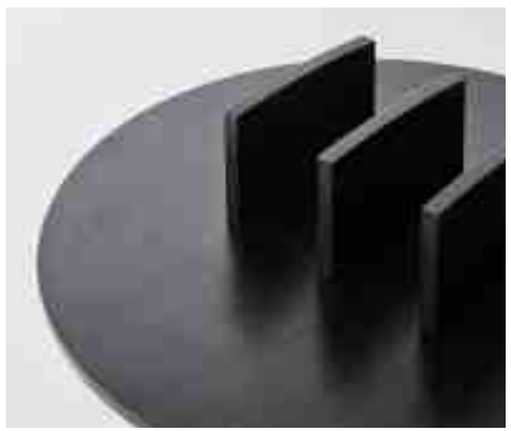
‘로우 월 테이블’은 기능적 역할이 돋보이는 사이드 테이블이다. 상판을 관통하는 테이블 다리는 테이블의 상·하부에 책꽂이를 만들어 부수적인 역할을 가능하게끔 한다. 또한 테이블 배송과 보관 시, 플랫 패킹되어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제품이다. 이외에도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오브제 역할까지 가능한, 여러모로 특별한 테이블이다.

소상공인 아우트로

“‘로우 월(Low Wall)’은 테이블 다리가 상판을 관통하여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사이드 테이블입니다. 컨셉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형, 디테일, 마감, 패키징 등 다양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최대한 유지하며 현실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았고, 여러 샘플 제작을 통해 생산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이목 스튜디오

“아우트로가 가진 기술력을 통해 다양하게 샘플링 작업을 해보고,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조립식 가구가 가지는 디자인적 한계를 극복하고 고급스러운 오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합방식과 마감, 디테일들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며 디자인하였습니다. 아우트로와 두 번째로 진행한 협업이었는데, 두 번째인 만큼 각자의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원활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오드볼 — 프래그난츠

(기능적 의문을 스스로 해소하는 의자, ‘미음 MEEUM’)

소상공인

오드볼

디자이너

프래그난츠

한글의 다섯번째 자음, ‘ㅁ’형태에서 보여지는 단순한 구조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제품이다. 직관적인 형태의 단순함은 사용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능동적으로 사용해 봄으로써 기능적 의문과 의미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음(MEEUM)’의 기능적인 키포인트는 사용자 스스로가 자신이 어떠한 목적으로 의자를 바라보는지 인식하고, 그에 따른 목적과 행위에 맞춰 등받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과 자세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사용자들의 행위에 맞춰 변화하는 의자이다.

소상공인 오드볼

“제품을 구상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등받이의 디테일이었습니다. 등받이의 각도, 넓이와 높이까지 고민하였고, 그 고민들을 반영한 목업 작업을 거쳐 최종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협업 제품을 구상하며 ‘사람들은 가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직관적이며 단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디자이너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였는데요. 이 점에 중점을 두고 그 속에서 디자인적인 재미 요소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디자이너 프래그난츠

“단순한 형태에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목적과 의미를 사용자가 직접 찾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소상공인과 디자이너라는 명확한 역할이 있음에도 경계 없이 다양한 제안과 협의를 하며 협업하였습니다. 조율에 힘든 점은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프로젝트에서 느낄 수 있는 고집과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성과 아이디어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드스튜디오 움 — 고정호 스튜디오

(우편함의 감성을 담은 선반, ‘우편함 선반 Mailbox shelf’)

소상공인

우드스튜디오 움

디자이너

고정호 스튜디오

우편함 뚜껑을 열 때 생기는 기울기를 선반에 적용하여 형태적으로 풀어낸 선반이다. 선반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은 딱딱한 각재 대신 부드러운 원기둥을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인 물성 보다는 직관적인 감성이 먼저 느껴지게 한다. 감성적 호소에만 그치지 않고 기능적 요소 또한 세심하게 고려했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로 제작하여 공간을 차지하는 부담감을 줄이는 대신 발생할 수 있는 수납의 한계를 기울어진 선반으로 해결했다. 감성적 소구를 넘어 배치와 수납 등의 꼼꼼함까지 챙긴 제품이다.

소상공인 우드스튜디오 움

“기울어진 선반이 우체통을 연상시키는 이 제품은 보던 책을 가볍게 툭 내던지듯 놓을 수 있는 선반입니다. 3단이지만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선반의 너비가 짧아 어느 공간에 두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추진하였고, 작업하며 생기는 문제점은 디자이너와 함께 논의했습니다. 제작자와 디자이너라는 각자의 영역이 있었지만, 상호 존중과 배려로 대하니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고정호 스튜디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구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평범하지도 않은 가구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협업한 제품은 우편함 선반으로 1인 가구 또는 신혼 부부를 위해 제작한 소형 선반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로 자유롭게 공간을 꾸밀 수 있습니다. 협업을 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높아지는 단가로 인해 소상공인이 난감해질 수 있을 부분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디스트 — 나너팀

(이중의 의미를 품은 ‘원 One’)

소상공인

우디스트

디자이너

나너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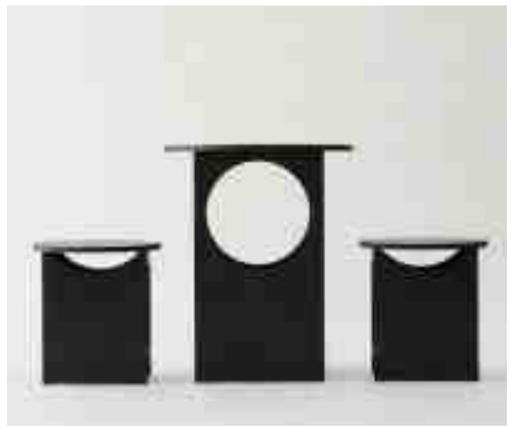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이 돋보이는 테이블과 스툴은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 ‘원(One)’이라고 명명한 이 제품은 테이블과 스툴 두개가 합쳐져 하나(One)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동그라미(원)가 드러나기도 한다. ‘원(One)’은 동그라미와 하나라는 이중의 의미를 품은 채 공간의 아늑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검은색 합판을 소재로 택해 구조적으로 단순해보이지만, 스툴의 하단부 75mm 위에 보강대를 두는 등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감까지 고려한 세심한 제품이다.

소상공인 우디스트

“원(One)은 두 명이 사용하기에 좋은 사이즈로 제작되었습니다. 미니멀한 가구로 어느 공간에 두어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좁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요구되고 있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크기와 가격으로 제품을 구성해봤습니다. 상품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디자이너 나너팀

“우디스트와 함께 작업한 제품은 한 공간이 두 공간처럼 보이는 ‘듀얼 공간’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무의식적으로 발을 올렸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높이 75mm 위에 보강대를 두었는데요. 편안한 느낌을 선사하는 ‘원(One)’을 통해 제품과 사용자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우디스트 — 모두스튜디오

아름다운 곡선의 처마가 스며든 가구 ‘마브 movv’

소상공인

우디스트

디자이너

모두스튜디오

한옥 처마의 아름다운 곡선에서 모티프를 얻은 1인용 바 스툴과 테이블 세트 ‘movv(마브)’. 부드럽지만 힘있게 떨어지는 처마 끝의 모습을 스툴과 테이블의 다리로 표현했다. 전면적인 대칭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주었는데 보면 볼수록 한국적 미감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옥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movv(마브)’ 또한 어느 공간에 두든 주변과 자연스레 어우러진다. 실용성 이상의 의미가 있는 가구로, 세월이 지날수록 편안함과 고즈넉함이 더해져 빛을 발할 것이다.

소상공인 우디스트

“‘마브(movv)’는 한옥의 처마를 모티프로 제작했어요. 가구의 다리 라인은 부드럽지만 힘있게 떨어지는 처마 끝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미니멀한 가구로 어느 공간에 두어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점점 작아지는 시대에 맞춰 합리적인 크기와 가격으로 제품을 구성해봤어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합리적 가격, 두가지를 모두 갖춘 상품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모두스튜디오

“K-Pop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전세계적 인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옷과 소품들, 한국이 담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들이 시선을 끄는지, 무엇이 한국적인 것인지 등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해 제작된 ‘movv(마브)’가 바 스툴과 테이블이라는 용도 이상으로 한국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인디앤코 — 오래도록작업실

조립과 해체가 용이한 ‘AB Chair’

소상공인

인디앤코

하얀색의 판재를 결합하여 견고함이 느껴지는 ‘AB Chair’. 완제품 가구의 적재 및 배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할된 부품을 쉽게 운반, 조립할 수 있는 녹다운방식을 택한 의자이다. 녹다운 방식을 실현시키기 위해 반턱맞춤 방식으로 설계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드웨어를 추가했다. 하드웨어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결구되는 방식이 중요한데, 이로 인해 자칫하면 답답해질 수 있는 형태를 보완하기 위해 등받이 여백에 선을 더했다. 명쾌하고 간결한 외양 속에 디자이너의 여러 고심이 숨겨져 있다.

소상공인 인디앤코

“최근 대부분의 가구 업체들은 중국 공장에서 사입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저희는 공방에서 제작한 수공예 제품일지라도 양산이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AB Chair’가 반턱맞춤 제품이다보니 의자를 결구하는 방식의 오차 범위를 찾는 것에 긴 시간을 들였고, 많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의자를 구성하는 소재가 나무라는 자연물이기에 쉽진 않았지만 팀원들이 가진 노하우를 발휘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오래도록작업실

ordr

디자이너 오래도록작업실

“대부분의 의자는 큰 부피로 인해 적재하기 어렵고 배송할 때 파손되고 오염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다운방식으로 의자를 제작해 배송 효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반턱맞춤을 통해 가구의 조립과 해체가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디자인을 하는 동안, 중간중간 소상공인과 의견을 나누며 실물 제작을 위해 고민하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인디앤코 — 이수

무미건조한 호텔 공간에 유니크함을 더해줄 ‘P Table’

소상공인

인디앤코

디자이너

이수

중소형 호텔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가구는 한정적인 소재와 투박한 형태로 인해 지루하고 뻔한 느낌을 주기 쉽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작된 ‘P Table’은 간결하고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무미건조한 호텔 공간에 유니크함을 더해주고, 한옥의 간결한 선에서 가져온 절제된 디자인은 공간 스타일링에 영감을 선사한다. 그 외에도 내구성과 내열성이 우수한 소재 선택, 한옥의 기둥 구조를 테이블에 접목시킴으로써 얻은 공간 효율성 등 중소형 호텔을 타깃으로 하여 여러 요소를 고려한 제품이다.

소상공인 인디앤코

“협업한 테이블의 하부 프레임을 모두 합판으로 제작하다보니 내구성의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수차례 목업을 진행하고 디자인을 수정했죠. 호텔을 위한 가구이다 보니 원활한 양산을 위한 단가 조정과 품질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고자 했어요. 디자이너와 소통하며 제작 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까지 고려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디자이너 이수

“기존 중소형 호텔의 가구를 사용하며 느꼈을 불쾌감과 불편함을 개선하여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주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소재에 대한 고민을 통해 HPL을 사용했고, 내열성과 내구성을 향상하게 시켜 중소형 호텔에서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도록 했어요. 또한 다리 중심의 보강대는 테이블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이즈와 위치를 조절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펠리토 — 토요가구클럽

색다른 공간을 만들어 주는 좌식 소파 ‘CURVY Sofa’

소상공인

펠리토

디자이너

토요가구클럽

곡선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 심미성과 확장성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좌식 소파 ‘CURVY’. 원을 그리는 궤적 형태의 좌판은 텔레비전이 벽에 붙어있는 기존의 전형적인 공간 레이아웃에서, 텔레비전이 스탠드형으로 변화됨에 따라 공간 활용이 자유로워진 것처럼 색다른 공간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게 한다. 화이트 오크 좌판 위, 라무스 소재의 업홀스터리된 소파는 낮은 버전과 높은 버전으로 구분 되어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작은 업홀스터리는 아예 제거하여 빈 공간을 사이드 테이블로도 사용 가능하다.

소상공인 펠리토

“평소 디자인 가구, 조명에 관심이 많았기에 다양한 디자이너들과 협업할 수 있는 DDP디자인페어에 열정을 갖고 처음 참여했습니다. 협업 제품을 개발하며 원단이나 가죽의 특성에 따라서 주름지는 부분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절개선을 어느 위치에 잡을지 결정하는 재단 작업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디자인 방향성 설정과 절개선이 생기는 부분을 해결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3D랜더링을 실물화 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토요가구클럽 디자이너들과 소통하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에서 조율하였고, 무사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토요가구클럽

“토요가구클럽이 지향하는 리빙 디자인 커뮤니티화를 위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과 작업을 진행하기에 용이한 플랫폼인 DDP 디자인페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제작 과정에서는 제품을 구현화했을 때 타협 가능한 선을 정하는 것과 디테일 구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소파 제작과 리빙 디자인 시장에 대한 경험이 많은 브랜드와 협업을 하게 되어 리빙 디자인 시장에 대한 흐름과 제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PART 2-4

소상공인+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우수 120팀

일상을 담다
Keep the daily Life : Verdigris Green

#소박한 일상
#한국원형
#편안함
#안정감

8월의 홍시 — 더블랙

일상 속에서 즐기는 글로벌 디저트 떡과 패키지

소상공인

8월의 홍시

디자이너

더블랙

기발한 아이디어와 트렌디한 감성을 담아 탄생된 떡 브랜드 '스노우 바브 SNOW VAV'와 패키지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선물 아이템이다. 스노우 바브는 떡의 주재료인 쌀가루가 마치 겨울 눈과 같은 느낌이기에 스노우(SNOW)를, 그리고 'Vary Awesome Vegan life - 멋진 채식주의의 변화'라는 의미의 약어인 VAV를 붙여 만든 브랜드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를 모티프로 한다. 스토리텔링은 그리스 신화에서 왔지만 한국적인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을 디자인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특히 패키지에는 새로운 지기 구조를 개발함으로써 시그니처 떡 제품 8가지를 종류별로 골라 담아 홀케이크처럼 포장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3가지 맛을 골라 포장할 수 있는 소량 패키지와 사각 모양의 설기 또는 잎새 절편, 찰떡을 개별 세트로 구성할 수 있는 기본 패키지로도 구성 및 개발했다. 지속적으로 시즌 제품을 개발하여 그 해, 그 시즌에만 맛볼 수 있는 리미티드 제품 패키지도 개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8월의 홍시

"제조업에 종사하면 할수록 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제품을 고객에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DDP디자인페어에 재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떡이 연령을 탈피하고 MZ 세대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디저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나, 떡을 담아 낼 패키지가 늘 고민이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넘치는 아이디어로 하나의 작품과도 같은 패키지를 만들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며, 본질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잡는 것 또한 신경 썼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철학과 컨셉을 공유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기존 한 사람의 시각이 아닌 협업 디자이너와 다른 각도에서 제품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부분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는 행사 참여와 전시를 넘어 실질적인 홍보를 통해 향후 DDP에서 탄생한 스타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디자이너 더블랙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품에 전략적인 디자인이 더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혁신이자 새로운 시장의 확장이라고 확신하기에 DDP디자인페어에 네 번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팀과 함께 협업을 했습니다. 그 중 떡 전문 브랜드 '8월의 홍시'와는 떡을 일상 속 디저트로 브랜드화하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 개발부터 제품화 패키지 작업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상품은 개발했으나 이후 실제 소비자에게 얼마나 어필이 될 수 있을지, 디자인 브랜드로 자리잡기까지 양사가 지속적인 투자와 협업이 가능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블랙은 항상 소상공인 대표님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참여하였기에 이번 프로젝트도 여기가 끝이 아니길 바랍니다."

9E:83 — 스튜디오 아직

컬러의 대비, 형태적 재미를 담은 '콤비 플레이트 Combi Plate'

소상공인

9E:83

디자이너

스튜디오 아직

월넛과 메이플의 두 가지 목재를 조합해 일상 생활 속 확실한 포인트가 되어줄 플레이트가 탄생했다. 목재에 경사를 준 양각 기법을 차용하여 문양의 입체감을 살린 플레이트는 향초, 컵, 장신구 등을 올려 놓거나 플레이트 그 자체로도 멋진 장식 역할을 할 수 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샬레 느낌의 디자인으로 여타의 플레이트와는 확실히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아이들을 위한 목재 교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추후 월넛과 메이플 이외에도 다양한 수종과 모양의 조합으로 발전시켜 제품화할 예정이라 더욱 기대가 된다.

소상공인 9E:83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디자이너에게 맞추려고 노력했으나 비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재현이 힘들 때에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면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곡선이 많이 들어간 유기적인 형태들을 홈에 끼워 넣고 접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습니다. 협업을 하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나와 좋았습니다."

디자이너 스튜디오 아직

"업체에 제작을 맡길 때와는 다르게 소상공인과 함께 전반적인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덕분에 목재 종류의 특성이나 두 종류의 목재를 조립할 때의 간격, 도면 작성, 목재 마감법까지 제작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소상공인,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스튜디오 아직을 유니크한 홈인테리어 브랜드로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그라운닷 — 에스투빅터

따스한 감성을 전해 줄 원목 장난감,
‘우드 토이 시리즈 Wooden toy series’

소상공인

그라운닷

디자이너

에스투빅터

원목 특유의 따스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이 핸드메이드 원목 장난감은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의 눈길까지 사로잡는다. 제품의 가치를 더욱 높이려면 손수 제작하는 노력과 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감성과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널리 알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제품이다. 우드 토이 시리즈는 어린 자녀를 위해 부모가 직접 만들어 주는 장난감으로, 아이는 자라서 이 특별한 장난감을 통해 어린시절과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 그라운닷

“에스투빅터와의 협업을 통해 레드오크를 주소재로 한 원목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생소한 제작법을 구현하는 과정이 다소 난해하긴 했으나, 디자이너와 같이 의견을 조율해 나가며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소재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DDP디자인페어가 더욱 활성화되어 다양한 협업과 양질의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디자이너 에스투빅터

“3D형태에서 핸드메이드로 구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핸드메이드는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산하는데는 비효율적이기도 하죠. 수제로 제작하되 양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향후 목공방 장난감 제작 클래스를 만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할 원목 장난감을 직접 제작해볼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임포네임 — 아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위한 배려,
‘꽉몬 풉백링 & 왈몬 산책와펜’

소상공인

네임포네임

디자이너

아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불필요한 마찰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책 시 배변 처리를 도와주는 풉백링과 반려동물의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산책 와펜을 제작했다. ‘겁이 많아 짖어요!’, ‘입마개 견종아님’ 등 반려견의 특성에 맞는 문구의 와펜은 유쾌하고도 재치가 넘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기분 좋은 공감대를 선사할 펫티켓을 위한 필수품, 풉백링과 산책와펜이다.

소상공인 네임포네임

“반려동물 산책 시 물림사고, 산책 시비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죠. 이는 반려동물마다 성격이 다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풉백링과 산책와펜을 제작했습니다. 협업으로 끝나지 않고 제품 판매까지 고려해 제품을 제작하였는데, 제품 출시까지 고려하다보니 패키지, 양산 가능한 디자인 등 신경 쓸 것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서로 잘 조율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아찔

“저희 직원들 모두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보호자예요. 그렇기에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작업하는 중간에 샘플링을 보면서 설레이는 마음이 한층 높아졌고, 실제 제작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관심있는 분야를 직접 기획하고 생산하니 보람차고 값진 시간이었어요.”

네임포네임 — 오투스튜디오

(반려견과의 바른 교감, ‘네임텍 퍼스널 장난감’)

소상공인

네임포네임

디자이너

오투스튜디오

스트레스가 쌓인 반려견의 문제 행동들은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어 펫티켓에 대한 문제까지 번지고 있다. 네임텍 퍼스널 장난감은 반려견의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 행동에 집중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교감에 집중한 모듈형 장난감이다. 반려견과 더 많이 교감할 수 있도록 장난감에 네임텍을 연결하였는데, 네임텍에는 반려견에게 필요한 메세지가 있다. “터그놀이 좋아하개”, “스트레스 풀어주개” 등 직관적인 문구로 채워진 네임텍은 사용자가 반려동물의 스트레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한다.

소상공인 네임포네임

“오래전부터 강아지는 사람과 함께 살아왔죠.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뀜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하는 삶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반려견의 욕구를 채워주고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다양한 장난감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오투스투디오와 함께 네임텍 퍼스널 장난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터그놀이과 펫티켓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서 시작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오투스튜디오

“노즈워킹, 이갈이, 터그놀이 등 반려견 스트레스 해소 솔루션들을 연구하여 반려견이 가장 선호하는 장난감만으로 구성, 디자인했습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반려견과 더 많이 교감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네임텍을 부착했습니다. 협업 제품이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해소와 펫티켓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향후 다양한 방향으로 제품을 베리에이션하여 협업, 개발하기를 희망합니다.”

더버터컵가든 — 신민정

(집안으로 끌어들인 정원, ‘가드너 모빌 Gardener mobile’)

소상공인

더버터컵가든

디자이너

신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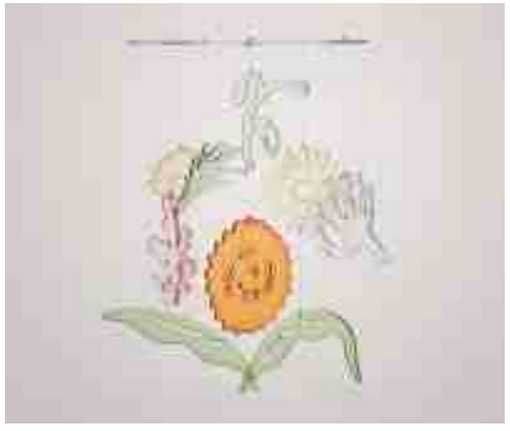
햇빛을 받은 모빌이 집안 전체를 영롱함으로 채운다. 집안으로 끌어들인 정원의 꽃은 계절마다 조합에 따라 무궁무진한 매력을 보여준다. ‘가드너 모빌’은 다양한 꽃의 형태와 라인을 연구하여 아크릴 모빌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Tropical garden’은 이국적인 꽃과 화려한 잎을 연출한 트로피칼 무드의 모빌이고, ‘Dancing snow’는 푸른 빛의 꽃과 심플한 조형으로 차분한 무드의 모빌이다. 각기 다른 색감과 스토리를 가진 모빌로 사용자는 아크릴 꽃과 풀을 직접 연출하여 마치 꽃꽂이를 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소상공인 더버터컵가든

“아크릴 제품의 색감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시장에서 찾을 수 없는 색은 직접 염료를 분배하여 원하는 색감을 찾아냈고 이를 기록, 분석하여 적절한 색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제품을 디자인할 때보다 꽃을 다루는 디자이너의 전문적인 디렉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플라워 패턴을 디자인할 수 있어서 수월하게 제품을 제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디자이너 신민정

“‘가드너 모빌’은 평면을 기반으로 하고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DIY 제품이다 보니 꽃의 종류와 수도 단순화해야 했습니다. 2D 기반의 평면디자인에서 시작하여 3D인 모빌로 구현하다보니 저에게는 낯선 작업이었지만 더버터컵가든과 소통하며 최적의 구도와 디자인을 선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모빌 이외에도 꽃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제품을 함께 디자인 할 계획입니다.”



도담 — 정유주

만졌을 때 느껴지는 그립감의 절정, ‘타원 문진 Oval Paperweight’

소상공인

도담

디자이너

정유주

타원과 원의 비율에 변주를 주어 만든 위트 있고 깔끔한 디자인의 문진이다. 집중이 필요한 공간인 서재나 오피스에 자연스레 녹아든다. 도자기, 시멘트, 돌 등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공간에 재미와 깊이감을 더해주고, 각기 다른 재료로 인해 사용자는 촉각적 즐거움 또한 느낄 수 있다. 알맞은 무게감과 그립감은 제품의 쓰임을 극대화한다. 사용자의 편의를 도우며 책상 위 감각적인 오브제가 되기도 하는 이 문진은 사용 목적에 따라 무게감과 형태에 차이를 두어 3가지 방향으로 디자인되었다.

소상공인 도담

“평소 잘 알고 있던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한다면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인지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올해 처음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경험까지 얻게 되었네요. 코로나19 이후 생활공간이나 사용하는 사물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 만큼 사소한 사물일지라도 사용성과 디자인을 잘 담아낸다면 사용자가 애정을 가지고 오래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방향을 협업 제품인 문진에 반영했습니다. 평소 디자인부터 제품 완성까지 혼자 작업을 하다가 협업을 하게 되니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각자의 작업 방식을 공유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혼자서는 힘들었을 까다로웠던 형태의 변화를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어 협업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었습니다.”

디자이너 정유주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필드에서 작업 중인 분들과 교류할 수 있고, 이제 막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인 저를 잘 알릴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올해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협업하게 된 도담도 저와 마찬가지로 사용성을 극도로 중시하는 공예과 출신이기에 저희는 문진의 역할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집중도를 높여야 하는 공간인 서재에 잘 어울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할 때 손이 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형태적으로는 타원의 비율과 위치를 조정해서 그립감을 최대로 이끄는 한편 심플함을 살려 공간에 자연스레 녹아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눈에 크게 튀지 않으면서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도자기, 시멘트, 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촉각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공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활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다른 분들과의 협업은 늘 설레는 일인만큼 2023년에도 DDP디자인페어에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드로잉캔들 — 로앤신

빛의 투과가 매력적인 캔들, ‘Fake Lamp’

소상공인

드로잉캔들

DRAWINGCANDLE

디자이너

로앤신

ROH&SHIN

‘Fake Lamp’라는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 외관은 조명 같지만 실제로는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주위를 밝히는 양초다. 심지에 불을 붙이면 빛이 양초를 투과해 외관상 꼭 불 켜진 램프처럼 보인다. 빛이 투과되는 양초의 물성을 활용해 독특한 아우라가 깃든 제품으로 빛을 내 주위를 밝히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이 제품만이 가진 특별함이다.

소상공인 드로잉캔들

“양초에 사용되는 왁스의 종류에 따라 빛이 투과되는 양을 적절히 찾아내는 것에 제작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투과율을 가진 왁스가 있었지만, 드로잉캔들이 지향하는 무독성 왁스가 아니기도 했죠.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 적당한 빛을 비추는 무독성 왁스와 두께를 찾아냈습니다. 제작 과정이나 마케팅 방법 등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많이 배웠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디자이너 로앤신

“과거의 양초는 빛을 내어 주위를 밝히는 역할만을 했다면, 오늘날 양초는 오브제로서의 역할이 큽니다. 양초 본연의 기능과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역할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양초를 만들고자 했어요. 소상공인이 디자이너이기도 하여 제일 중요한 의사소통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를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소상공인을 만나 협업하며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디쉐이프 — 전희원

‘해’와 ‘구름’을 담은 날씨 양초

소상공인

디쉐이프

디자이너

전희원

제품명인 ‘해(Hae)’, ‘구름(Goorm)’에서 알 수 있듯, 날씨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양초이다. ‘해’ 양초는 심지를 상단에 배치함으로써 열로 인하여 해가 녹아 내리는 것을 표현하였고, ‘구름’ 양초는 심지를 뒤편에 두어 촛농이 아래로 녹아내리게 함으로써 앞에서 볼 때 비가 내리는 형상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세련된 색감이 더해져 오브제 상품으로도 손색 없는 제품이다.

소상공인 디쉐이프

“기존 해 오던 작업에 디자이너분의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영감을 얻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향초라는 아이템에 집중하여 더욱 폭 넓은 디자인으로 표현해내고 싶었습니다.”

디자이너 전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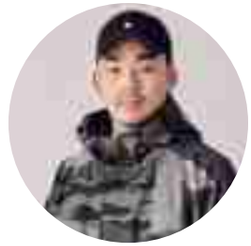
“디쉐이프와 함께 디자인 철학과 상품성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해와 구름에 대한 스토리는 처음 미팅 때 채택된 아이디어였는데요. 실제 제작을 위한 사이즈와 단가 부분 역시 문제없이 협의되었습니다. 원활한 과정을 거쳐 아기자기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긴 했지만 토의와 조율을 통해서 해결하며 심미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디쉐이프 — 젠디자인플랜

인공지능 기반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Ai Candle Set’

소상공인

디쉐이프



디자이너

젠디자인플랜

‘Ai Candle Set’는 하중이나 소재 등 필수 설계 조건이 요구되는 제작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양초와 홀더의 기본 스펙 안에서 임의의 설계 조건을 적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초가 녹아 흘러내리는 형상을 자연스럽게 조형화 시킨 듯한 형태와 그물망 구조의 홀더를 생성할 수 있었으며, 제작 방식을 고려하여 리터칭 후 소상공인에게 디자인을 제안했다. Ai Candle Set는 인테리어 오브제로서 새로운 경험과 환경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디쉐이프

“Ai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이너와의 새로운 작업을 통해 이전에 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얻었고, 개인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양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을 과감히 깬 상품으로, 앞으로도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발전적인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디자이너 젠디자인플랜

“이번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한 것은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 융합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실제 시제품을 제작하고 양산까지 진행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제작한 캔들 세트를 통해 기존의 캔들 및 캔들 홀더와는 차별화할 수 있는 오브제 타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익디스 — DSLSM

비움과 집중의 ‘B-시계 시리즈 B-Clock Series’

소상공인

라익디스

디자이너

DSLSM

브랜드 라익디스가 추구하는 ‘비움과 집중’의 가치를 담은 시계이다. 잔잔한 물의 표면에서 영감을 받아 DSLSM의 시그니처 구조를 적용해 디자인하였고, 평면으로 컷팅된 패턴 구조를 그래픽처럼 활용함으로써 입체적인 프레임처럼 보일 수 있도록 고안했다. ‘B-시계 시리즈’는 벽걸이용과 테이블용으로 구성되어 사용자의 감성과 방향성에 따라 공간을 감각적으로 연출한다.

소상공인 라익디스

“DSLSM의 디자인 프로세스와 라익디스의 생산 노하우을 합쳐 완성된 이 제품은 소품 분야에서 특별한 개성을 보여줍니다. DSLSM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라익디스의 브랜드 가치의 교차점에서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을 제작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DSLSM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라익디스는 협업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브랜드로 DSLSM의 지속가능한 가치가 제품에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디자이너 DSLSM

“최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도가 반영된 제품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감각적인 연출을 위한 오브제 성격의 인테리어 제품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협업 제품의 디자인은 이러한 트렌드를 고려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양산 및 판매를 위해 라익디스가 생각하는 시장과 타겟을 고려하여 제품 기획 및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라익디스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제품을 고려해 준 덕분에 양산 및 판매에 보다 적합한 브랜드 제품을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루다하우스 — 노디코마

화병 같은 시계, 시계 같은 화병 ‘플라워 온 우드 원목 탁상시계’

소상공인

루다하우스

디자이너

노디코마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일상 속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삭막한 책상 위, 단순하게 숫자 정보만 전달하는 디지털 시계 외에 따스한 느낌의 꽃 한송이가 꽂힌 화병 같은 시계가 있다면 우리에게 잠시나마 숨 돌릴 틈이 생기지 않을까? 아날로그 형태의 시계와 드라이플라워를 결합한 이 탁상시계는 자연스러운 멋과 아늑함을 느끼게 해준다.

소상공인 루다하우스

“2018~19년부터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체리나무 몰딩은 촌스러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화이트 색상이 너무 강조된 인테리어는 집안에 아늑한 기운을 주지 못해 2020년 이후 우드&화이트 인테리어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집안에 따뜻한 감성을 더해줄 체리&메이플 원목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게 된 덕분에 디자인적인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화병과 탁상시계의 조합을 통해 근사한 시제품을 제작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디자이너 노디코마

“루다하우스와의 협업을 통해 아늑한 원목 감성을 담은 탁상시계에 꽃을 담아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는 시계 같은 화병, 화병 같은 시계 ‘플라워 온 우드’를 제작했습니다. 이번 매칭을 통해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와의 협업을 할 수 있었고 각자 쌓아온 노하우와 제작 방식을 공유하며,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큰 간극 없이 색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해 새로운 스타일과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국자개타일(리플렉쉘) — 실크도넛

(실크 위에서 수려한 우아함을 뽐내는 자개, ‘나빌레라 Nabilera’)

소상공인

한국자개타일(리플렉쉘)

디자이너

실크도넛

은은한 광택감이 흐르는 실크 원단 위로 자개 장식을 더해 귀하고 값진 광채를 선사하는 헤어 스크런치이다. 전통 문화재 패턴을 오마주하여 나전 방식 그대로 자르고 붙여 만든 헤어 액세서리로, 한국 전통의 공예와 현대의 트렌디한 패션 아이템이 어우러져 보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과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디자이너 실크도넛과 소상공인 한국자개타일은 전통 공예 방식 ‘나전’ 장식에 서로의 합을 맞추어 작업을 시작했다. 천연 광채가 나는 조개를 얇게 떠서 문양을 조각하고 배열, 부착하는 전통 방식은 주로 가구들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이들은 기존 한계를 탈피하고자 현대 기술로 특수 가공하여 특허 받은 리플렉쉘 자개를 이용, 유연한 소재인 원단에 접목시킨 것이다. 자개를 활용한 패브릭으로 좀 더 실생활과 일상에 접목이 가능해진 만큼 나이와 세대를 초월한 곁에 두고 싶은 상품이 탄생하게 되었다.

소상공인 한국자개타일(리플렉쉘)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만든 자개 헤어 스크런치는 딱딱한 전복껍데기의 자개를 부드럽게 만들어 구름과 꽃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한국자개타일만의 독점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자개 조각들을 평평하게 편 후 부드러운 실크에 부착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해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개념에 중점을 두었고 디자이너와 함께 많은 의논과 시행착오를 통해 완성한 것이죠. 개성 강한 디자이너의 색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품을 만들 수 있어 꽤나 즐거운 과정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요즘, 우리가 만든 우아하고도 독보적인 이 상품이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 명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이너 실크도넛

“패션디자인을 전공하고 패션업에 종사하면서도 자개를 활용한 패브릭 제품 디자인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독점적인 소재를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함께 한국 전통의 귀한 재료를 패브릭에 활용,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물론 제작 과정은 녹록치 않았어요. 원자재의 단가가 비교 불가능한 것이고, 의뢰드린 패턴에 소요되는 자개 양도 많고 난이도가 높아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제품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어쩌면 다시 작업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헤어 액세서리에 국한되지 않고 전통적인 모티브를 활용한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메탈포인트 — 아키올로지

(묵직한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의 작은 테이블, ‘The Table’)

소상공인

메탈포인트

METAL POINT

디자이너

아키올로지

archeology

짙은 색상과 대담하게 뻗은 직선으로 무게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각 모서리에 적용된 곡선으로 부드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표현한 작은 테이블이다. 부재들이 만나는 면과 선의 위치, 방향 등을 일률적인 기준에 맞추지 않고 미세하게 차이를 둠으로써 단조롭지 않으면서도 통일감이 있는 형태로 구성했다. 좌식 생활 공간에서 혹은 거실, 침실, 라운지 등에서의 사이드 테이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공간 한 켠에 작은 오브제와 함께 놓아 예술작품 같은 연출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소상공인 메탈포인트

“디자이너의 제안으로 DDP디자인페어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디자이너가 초반 과정부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조언을 구했고, 함께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며 진행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좋은 디자인을 현실화 시킬 수 있어 흥미롭고 보람된 경험이었습니다.”

디자이너 아키올로지

“시작부터 재료의 가공 기술을 파악하고 그에 맞도록 디자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업했습니다. 그렇기에 실현 가능 여부와 제작 방법을 빠르게 검토, 판단함으로써 비교적 원활히 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나 한계, 제작 방식의 변경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작자의 많은 조언을 받으며 진행하여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보쌈코웍컴퍼니 — 강상규

필환경 시대의 필수품인 재생 PET 가방

소상공인

보쌈코웍컴퍼니

디자이너

강상규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실생활 모든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강상규 디자이너와 보쌈코웍컴퍼니는 재생 PET 원단을 사용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방 2종과 분리수거 가방 5가지 총 1세트를 제작했다. 검은색 사각 가방은 어깨끈의 라인 포인트와 차별화된 브랜드 라벨 택이 세련되게 매치되었고, 분리수거 가방은 주름을 잡고 끈을 달아 평상 시에는 공간 활용에 용이하고 분리배출할 때에는 편리하게 옮길 수 있도록 했다. 환경적 가치와 패션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용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선사할 제품들이다.

소상공인 보쌈코웍컴퍼니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하여 강상규 디자이너와 함께 재생 PET 원단으로 가방류를 제작하였습니다. 생산 시간과 제품 샘플 비용 등이 문제였기에 퀄리티를 낮추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던 점이 아쉬웠지만, 다양한 시각으로 의논하며 제품을 생산하고 디자인 포인트 등을 추가할 수 있었던 점이 유의미했습니다."

디자이너 강상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재생 PET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일상용 가방과 분리수거 가방을 디자인했습니다. 친환경 이미지에 가격적인 면을 고려하고, 활용도도 높이기 위한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작업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촉박하여 원하는 퀄리티의 샘플을 뽑아내기 어려웠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세라믹페이지 — LHM

한옥 기와의 유려함을 보여주는 식기, '와(瓦) 시리즈'

소상공인

세라믹페이지

디자이너

LHM

'와(瓦) 시리즈 - 플레이트'는 유용한 기능성과 아름다운 조형성을 두루 갖춘 제품으로, 한옥 기와를 모던하게 재해석한 디자인을 갖추었다. 일반적인 플레이트 형태를 벗어나 감각적인 조형미를 갖추고 있어 오브제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유려한 라인으로 인해 보는 각도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 보이는데, 이는 담기는 음식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플레이트 본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게 돕는다. 여러 크기의 플레이트를 동시에 활용하면 우아하고 근사한 테이블 스타일링까지 가능하다.

소상공인 세라믹페이지

"제품 디자인 시 밑면(바닥)의 마감 처리가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밑면을 열리게 하거나, 닫히게 하는 2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그 과정과 소요시간이 상이하고 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이너분께서 도자 제작 과정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방향을 제안해주셔서 기획부터 제작 완성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 LHM

"리빙 오브제를 지향하는 파인다이닝 식기로, 조형적 아름다움과 최소한의 기능을 충족하도록 제작했습니다. 간결한 형태 속에 자연스러운 기능과 조형성이 녹아 들도록 디자인하였고, 식기에 담기는 음식이 돋보일 수 있도록 소재를 고려하여 제작했습니다. 현재는 시제품만 나온 상태라 양산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한데요. 패키지의 완성도를 높이고, 판매 유통처 확보에 신경을 써서 판매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소품소생 — 디자인콜론디

조명의 기발한 일탈, ‘테이블 조명과 바 스툴 조명’

소상공인

소품소생

디자이너

디자인콜론디

[테이블 조명 SOOM] 봉투에 바람을 불어 넣어 조명을 켜는 휴대용 조명 ‘SOOM’은 시간이 짧은 기존 휴대형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여 거치형으로 제작했다. 스위치를 누르면 봉투가 스스로 부풀어 오르며 조명을 켜고, 부푼 봉투를 다시 접으면 꺼지는 제품이다. 기단부는 자작나무 특유의 느낌을 살려 가공하였고 대패를 이용하여 모서리를 직접 손으로 깎아 최종 형태를 완성했다. 조명부는 타이벡 소재로 된 봉투 형태로 제작하였는데 사용자의 문구 삽입이 가능하다. [바 스툴 조명] 조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스툴의 다리처럼 보이게 디자인한 제품이다. 변형 전에는 간접조명으로 사용 가능하고, 다리를 변형시키면 스탠드형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명 부분은 모듈화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만큼 스툴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추후 다른 가구에도 결합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소품소생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제 스스로 가진 관념과 한계를 넘는 싸움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혼자 작업을 해오다 보니 새로움 보다는 효율성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왔었는데, 이번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업이 까다롭거나 표현이 어려운 부분은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고 혼자 판단하여 결정할 때보다 더 다양한 방향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디자인콜론디

“이번 협업을 통하여 나무를 이용한 제작 공법 및 효율적인 제작을 위한 설계방법, 그리고 새로운 조형을 표현하기 위한 응용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소품 소생의 수작업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이었으며 소목 전수생의 진면목을 목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단순 기계를 이용해 제작하는 것과 다르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수작업만의 손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품소생 — UUJP

한옥의 문과 창문을 담은 다도 트레이 ‘다정(茶程)’

소상공인

소품소생

디자이너

UUJP

전통 창살의 디자인 패턴 요소를 담아 제작된 다도 트레이다. 두 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한옥 창호의 양문을 연상시키고, 한 세트가 모이면 한국 전통 창에 담긴 직선의 아름다움과 팔각형의 형태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또한 흰색의 내부 면은 전통 원목 창호와 한지를 연상시키는 시각적 효과를 연출한다. 전통 창살의 패턴이 담긴 트레이의 중심부에는 차 주전자인 다관을 올릴 수 있도록 탈 부착 가능한 받침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제작 방식에도 전통의 목공과 현대의 기계적 제작 방식인 CNC 컷팅 방식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기술이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제작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였다.

소상공인 소품소생

“혼자 작업을 해오며 매너리즘에 빠졌던 차에 경험하게 된 DDP디자인페어 콜라보레이션은 익숙하고 편리한 방식만을 추구하던 틀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첫 참여였기에 설레임도 컸고요. 다도 트레이는 최대한 얇게 제작하고 각 부분의 각도를 딱 맞추어야 했기에 접합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틀을 제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자인 소상공인의 입장과 디자이너의 니즈 사이에서 절충선을 마련하는 과정 역시 즐거웠고, 결과적으로 제품을 완성할 수 있어서 저 자신에게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디자이너 UUJP

“전통 원목 공예를 하고 계시는 소품소생 오인석 장인과 함께 전통문화 요소를 현대식 디자인으로 담아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품을 제작할 때 자동화된 시스템만을 이용했었는데, 사람이 직접 정성을 들여 한 땀 한 땀 수공업 하는 것을 보니 수작업의 매력과 작품의 깊이를 이해하는 안목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진행하며 전통 원목 제작 방식을 직접적으로 보고 배운 경험을 토대로, 전통문화 디자인을 새롭게 이야기하고 점차 전통의 대중화를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손쓰세라믹 — 아찔

감성 공감을 이끌어 내는 캐릭터 인센스 챔버

소상공인

손쓰세라믹

디자이너

아찔

귀여운 캐릭터에 공감 가는 스토리텔링을 더해 MZ세대의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자극하는 인센스 챔버이다. 리빙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디자인으로, '향'이라는 감각적인 요소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더 오래도록 기억되고,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고급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어 선물용으로도 좋은 상품이다.

소상공인 손쓰세라믹

"아찔만의 캐릭터 스토리를 최대한 시각적으로, 형태적으로 잘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예 기법 중 슬립 캐스팅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표현성, 정확성이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피규어 형태의 캐릭터 디자인은 화염병, 대포의 형태를 담고 있는데 이는 인센스의 연기와 공통된 키워드를 가진 사물들입니다. 관객 혹은 소비자들이 흥미로운 리빙 오브제로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 아찔

"그동안 아찔(ARTZZIL)의 상품군은 양산화가 비교적 쉬운 저가형 상품군이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하여 고퀄리티의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하나의 예술품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인센스 챔버의 제작 과정 전반을 구체적으로 겪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공장형 제품이 아닌 다양한 산업 분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특히 단순 아이디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작까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함께 협업한 손쓰세라믹이 아찔의 디자인을 이해해 주시려는 노력에 신뢰를 느끼게 되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슬로우와이즈 — 크레카

사용자에 따라 무한 활용 가능한 '슬리피롤 Sleepyroll'

소상공인

슬로우와이즈

디자이너

크레카

돌돌 말아서 각자 목과 머리 부분에 맞게 조절해 사용하는 슬리피롤은 기능성 경추 베개 자체의 기능에 충실함은 물론,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한 덕분에 여행, 캠핑 등 야외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플랫한 형태이지만, 말아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기에 사용자의 체형을 온전히 받쳐주는 제품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매트, 쿠션 등으로의 활용이 가능하여 앤데믹에 급격히 늘어난 여행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다.

소상공인 슬로우와이즈

"처음에는 제가 필요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후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디벨롭하여 완성시킨 만큼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만족감이 큽니다. 사실 기존 시장에 없던 제품이기에 베개 카테고리에서는 레퍼런스를 찾을 수 없었어요. 상당 시간을 제품 조사 과정에 투자하다보니 어떤 형태, 어떤 디자인이면 좋겠다는 단순 느낌이 확신으로 변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DDP 디자인페어라는 협업 플랫폼을 통해 개발한 제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수면이나 휴식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디자이너 크레카

"DDP디자인페어에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했습니다. 기능성에 집중해 개발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쉽게 소지할 수 있도록 가방과 부자재까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용하는 형태나 방법이 다양한 만큼 유저들끼리 사용기를 공유하는 SNS가 생성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향후 제품군을 더욱 확장하여 롤 형태로 수면과 휴식을 돕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신도아트 — 더블랙

옛것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움, 자개 소품

소상공인

신도아트

디자이너

더블랙

자개에 대한 편견에서 탈피하여 MZ 세대도 무난히 접근할 수 있는 소품들이 탄생했다. 상상의 동물인 해태(해치), 천록, 기린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손거울, 메모지 등 생활소품에 담았는데, 벽사기복의 상징을 곁에 두고 마음의 위로를 삼았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이어지는 듯하다. 오묘한 빛의 자개가 주는 화려함을 한껏 드러내면서 강렬한 한국적 이미지를 품은 이 소품들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미감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소상공인 신도아트

"협업을 진행하며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을 제품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자개라는 소재에 디자인 시안을 입혔을 때 소재와 디자인에 괴리가 생기진 않을지, 색감이 잘 표현될 지에 대한 걱정이 다소 있었지만 기대 이상의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탄생했습니다. 디자이너와 상의하며 빠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디자이너 더블랙

"팬데믹 이후,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곁에 두었던 상상의 동물 해태(해치), 천록, 기린을 우리의 가방이나 책상 위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제품을 기획했습니다. 협업을 진행하면서 타겟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두었는데요. 제품의 형태를 바꾸거나 제품의 포지셔닝 카테고리를 변경하여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신우철 — 라연수

도심의 가로등에 구조미를 더한 '구조 스툴 Construction Stool'

소상공인

신우철

디자이너

라연수

도심을 이루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빛을 비추는 가로등에서 새로운 구조미를 발견하고, 이를 극대화하고자 한 작업은 세상에 하나뿐인 스툴을 탄생시켰다. 가로등이 도로에 온전히 지지되기 위해서는 볼트와 너트로 단단히 연결되어야 한다. 대체로 구조물의 이음새는 깔끔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를 도심의 구조미라고 생각한 디자이너는 무심코 가리고 싶어하는 용접의 흔적들과 철물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아크릴 판을 활용하여 그 구조와 이음새가 보이도록 제작했다. 아크릴 판, 선형의 지지대, 점 요소의 볼트와 너트로 구성된 스툴은 다른 색과 재료로 발전할 수 있어 새로운 재미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소상공인 신우철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 접근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에 DDP디자인페어에 재참여하였고, 이번에도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심의 구조미를 담은 스툴을 제작하였는데 무엇보다 디자인 방향성에 가장 적합한 소재 선택 및 디테일한 구조에 대한 소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디자이너 분과 각자의 역할에만 집중하기보다 디자인과 제작 전반적인 과정에 관하여 활발한 소통을 나누었고, 이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순조로운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어 만족스럽습니다."

디자이너 라연수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에 대한 관심으로 DDP디자인페어에 처음 참여했는데 '협업'에 엄청난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매칭이 된 후, 도심 속 구조미학을 컨셉트로 잡았고 '도시 안에서 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평소 우리가 등한시하는 부분'들을 찾아 아카이빙 했습니다. 그 중 볼트와 너트의 체결이 보이며 용접 라인이 드러나 있는 가로등의 구조가 가구로 발전시키기에 가장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여 가로등을 모티프로 삼았고요. 소상공인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디자인에 부합하는 소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었고 제작에 관해서도 도움을 받았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각자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재미있게 작업하였고 즐거운 협업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어고 스튜디오 — 빈지니

바르르? 파르르? 부르르?
‘A piece of Brrr!’

소상공인

어고 스튜디오

디자이너

빈지니

커틀러리 세트 ‘A piece of Brrr!’는 긴 세월이 담긴 나무를 소재를 기반으로, 빈지니만의 비정형적 조형 언어를 어고 스튜디오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다듬어낸 제품이다. 눈을 감고 바람에 몸을 맡긴 순간이나, 젖은 몸을 털어내는 개 등 재미있는 상상이 독특한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굴곡진 손잡이의 만듦새를 보니 한껏 정성을 들인 듯하고 덕분에 훌륭한 그립감을 선보인다. 또한 평평한 형태 덕분에 테이블에서 안정감 있게 둘 수도 있다. 나무 소재 특유의 편안함이 있어 일상 속에서 질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 피크닉이나 캠핑 등 야외에서도 주변과 어우러지는 멋스러운 테이블 연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어고 스튜디오

“트렌드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기 보다는 디자이너가 일상 속에서 발견한 아이디어와 감성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어고 스튜디어만의 제품을 디자인 및 제작해왔었는데, 외부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하게 되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제작해보지 않았던 형태를 실제로 구현해냄으로써 제작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빈지니

“어고 스튜디오와의 협업 제품은 한 끼 식사 혹은 여유로운 티타임에 특별함을 제공해주는 커틀러리 세트입니다. 이번 협업을 하며 겪었던 일련의 과정은 제작자의 입장 뿐 아니라 사용자의 시각으로도 제품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드 카빙과 CNC 가공 등 다양한 제작 프로세스를 경험해 볼 수 있었고, 제작에도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어 제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바웃매터랩 — 스몰 스플래쉬

폐기물을 소재로 한 전통 모티프의 조명,
‘루프 테이블 램프 Roof-Table Lamp’

소상공인

어바웃매터랩

디자이너

스몰 스플래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농산물의 부산물과 송진을 섞어 만든 친환경 소재인 송와를 활용한 조명 ‘Roof-Table Lamp’에는 한국적인 정서가 담겨있다. 조명의 곡선은 한국의 전통 기와 지붕을 모티프로 디자인했으며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은 사용자가 폐기물을 활용한 새로운 소재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구조를 단순화 시켰다.

소상공인 어바웃매터랩

“어바웃매터랩의 ‘송와’는 송진과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인 녹차 잎을 굳힌 형태를 활용하여 일상에서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적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데스크 스탠드 조명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디자이너 스몰 스플래쉬

“우리나라의 농산물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근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환경에도 이롭고, 충분한 사용성을 가진 상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소상공인분들과 좋은 제품을 함께 개발하고, DDP디자인페어를 통해서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다 — 블루오션

소리의 방출을 돕는 무선충전거치대 ‘사운드 홀더 Sound holder’

소상공인

오다

디자이너

블루오션

매끄러운 곡선과 유기적인 형태가 매력적인 무선충전거치대 ‘사운드 홀더’는 단순히 충전을 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다. 바로 휴대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충전거치대에 악기와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재해석하여 더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거치대를 완성한 것이다. 음악 플레이어, OTT 시청 등 다양한 디바이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휴대폰과 사운드 홀더가 함께라면 간편함은 물론 사운드 충만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 오다

“휴대폰을 충전하는 동시에 음악을 즐기는 데에 최적화한 디자인으로 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소리를 증폭시키는 소라 모양 디자인을 통해 음악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지요. 소비자들이 일상 속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휴대폰이 더 편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PVC, PP, TPU 등 여러 소재의 장단점을 검토하며 결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적합한 소재를 택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블루오션

“무선 충전을 하면 포트가 필요 없는데, 이때 디자인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유의 자력을 사용하는 애플의 맥세이프 제품 거치 방식에서 착안하여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처음에는 협업이 혼자 작업하는 것보다 제한되어 있다고 느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디자인을 더욱 실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드스튜디오 움 — 세네카

일상 속 마음의 안식처, ‘달 토끼 시리즈 Dal Tokki series’

소상공인

우드스튜디오 움

디자이너

세네카

한국의 민속 설화 중 하나인 달 토끼 설화를 재해석하여 만든 ‘Dal-tokki 시리즈’는 사이드 테이블과 액세서리 트레이로 구성되어 있다. 원목에 먹을 입혀 한국적이면서 동시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상품으로, 차분한 블랙 컬러와 그와 어울리는 아크릴, 가죽 등 소재는 고요한 밤의 달 토끼를 연상시킨다. 달 토끼를 형상화한 리빙 제품이 공간 한 켠에 자리하여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하는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의 소망을 듬뿍 담아냈다.

소상공인 우드스튜디오 움

“2021년 DDP디자인페어 참여 이후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과 협업해보고 싶어 올해 두 번째로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이너 세네카와 협업을 통해 절구 형상 디자인의 테이블과 절구와 토끼 귀를 연상시키는 트레이를 제작했는데요. 심플한 디자인과 색감, 적절한 소재의 선택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자평합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디자인을 어떻게든 구현해보자라는 다짐에 집중했고 제작 과정이 까다로울 때도 있었지만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케 했고요. 또한 먹으로 마감하는 것이 처음이다보니 익숙하지 않아 당혹스러웠지만 세네카 측에서 먹을 사용한 경험이 있어 조언을 구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작자와 디자이너라는 각자의 영역을 존중과 배려로 대하니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작에 집중할 수 있어 효율이 좋았고, 제작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디자이너 입장에서 들어볼 수 있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세네카

“한국 민속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알릴 수 있는 가구를 디자인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출발하게 되었어요. 많은 민속 설화 중 달 토끼 설화가 재미있게 다가온 만큼 이번 콜라보레이션에 접목시켜 낮은 높이로 디자인된 사이드 테이블과 인테리어 오브제 겸용으로 사용되는 액세서리 트레이를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은 물에 비친 달과 절구를 모던하게 정리한 디자인이 특징이고 트레이는 가죽 스트랩으로 토끼의 귀를 표현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제품 간 통일감을 주는 방법으로 자체 개발한 먹도장 공법을 사용해 전통적인 흑색을 표현했습니다. 협업 시 양산을 목적으로 가구를 디자인하는 것에 집중하며 더욱 심플하고 정돈된 디자인을 목표로 했는데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작업을 진행하였고 회의 때 마다 소상공인 측에서 실물로 구현될 때의 참고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호 교환되면서 양쪽 모두 원하는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유민 — 케라믹코드

(취향과 공간에 맞춘 오브제로 변신한 주얼리 홀더, ‘블랑 홀더 Blanc Holder’)

소상공인

유민

다양한 입체 세라믹 오브제에 주얼리를 보관하고 꽂아 두거나 소비자의 컨셉에 맞게 직접 장식할 수 있는 세라믹 주얼리 홀더이다. 입체이기에 바닥에 눕혔을 때 주얼리의 디자인을 더욱 강조할 수 있고, 훨씬 효과적인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 또한 화병 형태의 오브제는 꽃을 꽂을 수 있고, 합으로 구성된 바닥 부분은 변색 방지를 위한 실버 주얼리를 보관하기에 용이하다. 실용성은 물론, 인테리어 기능까지 겸비한 사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두 기능을 모두 갖춘 요긴한 상품이다.

소상공인 유민

“주얼리 원석을 세팅할 때의 작업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주얼리 홀더를 세라믹으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세라믹은 친근한 소재이며 친환경적이라 접근하기에 편했어요. 깨끗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주얼리와도 잘 어울린다 생각했고요. 여러 주얼리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과 공기 중에 노출 시 변색될 수 있는 실버 주얼리의 특징을 고려하여 홀더 외에 주얼리 보관함으로도 쓸 수 있도록 화병 아래에 작은 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얼리가 세라믹 오브제의 일부분이 되어 장식 요소가 되거나, 세라믹의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주얼리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소비자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

케라믹코드

디자이너 케라믹코드

“공예품으로의 기능과 심미성을 겸비한 제품을 만들자는 바람을 담아 기존 상품들에서는 볼 수 없는 오브제 기능을 추가하며 개성 있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법을 이용했는데요. 화병과 주얼리 보관함을 겸용할 수 있는 오브제를 제작하기 위해 물레 작업을 사용했고, 주얼리가 거치되었을 때 더욱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핸드빌딩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도자기를 이용한 제품이라 건조 과정에서 휘거나 수축하는 등 변형이 일어나 완성품을 만들기까지 마음 고생이 많았지만 다행히 협업 소상공인 분께서 많은 이해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식주의 — 리메이크

(매일의 숙면을 돕는 ‘필로우 커버 레이어 Pillow cover layer’)

소상공인

의식주의

하루의 1/3, 8시간 정도 사용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생활용품 베개. ‘필로우 커버 레이어’는 베개를 자주 세탁하거나 관리하기 힘든 현대인들이 수건처럼 매일 세탁해 베개 위에 부착,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더블 밴드를 활용함으로써 베개 사이즈나 형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소재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피부에 닿는 부분은 유기농 순면을 사용하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버려지는 아웃도어 방수 원단을 사용함으로써 원단 폐기물을 줄였다. 사람과 환경 모두에게 무해한 ‘필로우 커버 레이어’, 사용자의 꿀잠을 보장한다.

소상공인 의식주의

“팬데믹으로 집안에서의 생활이 늘다보니 침구의 구매 비율이 높아지고 수면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포착하여 사람들의 숙면을 돕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협업 제품을 왜 만드는지에 대해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과정이 험난할 수 있는데요. 의식주의와 리메이크는 이 제품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지 등을 오랫동안 함께 검토하고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디자이너 리메이크

“의식주의와의 협업 제품은 매일 세탁해 보송보송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로우 커버 레이어’입니다. 숙면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을 제작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패션 이외에 홈데코 인테리어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패션 디자인이 아닌 다른 분야의 디자인을 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향후 클라우드 펀딩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디자이너

리메이크

Re:make

의식주의 — 파운드파운디드

반려동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슬로우 피드 패드 Slow feed pad’

소상공인

의식주의

디자이너

파운드파운디드

found/Founded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는 만큼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파운드파운디드와 의식주의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은 없을까?’ 하는 물음 끝에 천천히 식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식기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에 노즈 워크 효과까지 더해 설계한 이 제품. 식품용 실리콘 소재는 건강과 환경을 고려했고, 상큼한 그라데이션 색감은 보호자의 미감을 헤아렸다.

소상공인 의식주의

“한국 반려동물의 나이는 10세 이상이 55.6%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의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은 많지 않아요. 유기 동물들을 보살피며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먹는 속도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철이 있는 식기 인서트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촉감의 소재는 FDA 승인을 받은 식품용 실리콘입니다.”

디자이너 파운드파운디드

“의식주의 측에서 제품의 양산을 고려하고 있어, 협업 과정 전반은 소재나 사용성 테스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초반에는 폐플라스틱의 활용을 고려했으나, 반려동물들의 입에 닿는 제품이기에 실리콘 소재로 변경했고, 1차 형상 검토 후 굴곡의 깊이를 수정하여 2차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의식주의에서 사용성 등을 면밀히 살펴 주셔서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커먼플래닛 — 신우철

유머와 따뜻함을 전해 주는 오브제 거울, ‘미러 핍 Mirror Peep’

소상공인

커먼플래닛

디자이너

신우철

‘작은 틈으로 엿보다, 살짝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peep에서 컨셉을 잡은 제품 ‘Mirror Peep’이다. 평소의 방식대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새를 통해 눈, 코, 입 등을 살짝만 볼 수 있게 했다. 도자 소재를 활용하여 벽에 걸 수 있는 오브제 거울을 제작함으로써 익숙하지 않은 자신을 보는 방식을 제안한 것인데, 누군가는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자신을 더욱 자세히 집중해서 들여다 봄으로써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 식사 후 입가만 휙 확인하고 돌아설 수도 있겠다.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유머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작고 귀여운 오브제다.

소상공인 커먼플래닛

“지난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협업 과정에서 디자이너와 소통하고 상품을 제작하기 위해 호흡을 맞추는 일련의 과정들은 기존의 작업 방식과는 다른 시도를 함으로써 반복적인 일상 속 활력이 되는 경험이었기에 재참여했습니다. 협업을 통해 새로운 소통 과정에서 작업을 시도하고 구현하는 과정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가자로서 개발 과정에서 배우는 즐거움도 크지만 타 참가팀들의 다양한 아이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볼거리가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다는 보람과 만족도가 큽니다.”

디자이너 신우철

“우선 도자의 물성이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하였고, 작품의 메시지와 컨셉을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제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거울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름다움을 상기해보고 작은 유머까지 전달할 수 있는 Mirror peep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머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간 속 포인트 요소가 될 수 있는 오브제적인 성격을 담았습니다. 소상공인과 원활한 소통으로 합을 잘 맞추었고, 협업을 통해 다뤄본 소재에 대해 향후 더 깊이 있는 실험을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커스텀빌리지 — 프라이데이 러브

와인애호가를 위한 잇백,
‘와인 칠러 원통백 Wine chiller cylinder bag’

소상공인

커스텀빌리지

디자이너

프라이데이 러브

길고 무거운 와인을 가로로 들 수 있도록 해 편리한 휴대성을 강조한 원통 형태의 와인백이다. 단열 방수 안감에 보틀 쿨러 슬리브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어 이중 보냉 기능을 장착하고 있는데, 덕분에 칠링 타임 없이 원할 때 적정 온도의 와인을 즐길 수 있다.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인해 평상 시에는 데일리 백으로 캐주얼하게 들고 다니다가 필요 시에는 와인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와인애호가들에게는 꼭 필요한 잇(it)템이다.

소상공인 커스텀빌리지

“커스텀빌리지의 자체 생산 시스템은 브랜드만의 독창적인 제품군을 재고 부담 없이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생산 방식을 이용해 프라이데이 러브의 디자인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리사이클 가죽, 원단, 폴리 스트랩 등 새로운 소재를 테스트해 보며 다양한 커스텀 제조 방식을 적용해 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프라이데이 러브

“와인 문화가 일상 속으로 들어오며 BYOB 문화(Bring Your Own Bottle, 술은 각자 지참하는 문화)가 점점 자리 잡고 있는 것에 영감을 얻어 기획하게 된 원통 형태의 와인 보냉백입니다. 팬데믹에 이어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침체된 일상에 희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낙관적인 정서의 프린트와 밝은 컬러를 매칭해 디자인했습니다. 저와 소상공인 모두 처음 시도해보는 소재들이어서 실험적인 테스트를 함께 해볼 수 있어 재미있었어요. 실패도 있었지만 대부분 결과가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큐앤코 — 라이크모노핸드메이드

공간과 취향 따라 매치하는
‘활짝 핀 러그 A blooming rug’

소상공인

큐앤코

디자이너

라이크모노핸드메이드

꽃이 활짝 핀 듯한 러그는 바라만 봐도 기분 좋게 한다. 사용자의 취향을 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제품만의 매력 포인트. 러그의 디자인은 정해져 있지만 사용자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은 러그가 본연의 기능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공간의 주체적인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의기투합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컬러 매치가 돋보이는 결과물이 탄생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공간을 밝은 분위기로 이끌어 주는 색감 선택에 공들인 러그는 1인이 사용하기 좋은 크기지만, 넓은 공간에서는 2~3개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큐앤코

“지인의 추천으로 이번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협업이 마무리된 지금, 돌이켜보면 참여하길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와의 협업에 처음엔 긴장하기도 했지만,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가이드-짜임 방식, 마감, 높낮이 등-를 바탕으로 많은 소통을 하며 유의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협업 과정에서 디자이너 분께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 시안을 너무 많이 제안해주신 덕분에 디자인 선택하는 것이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된 플라워 러그는 집이 단순 주거의 개념을 넘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 변화에 맞는 적합한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디자이너 라이크모노핸드메이드

“다양한 소상공인 분들과 협업을 통해 저 혼자는 불가능했던 여러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또한 새롭게 느껴졌고요. 이러한 경험은 제 개인 작업을 할 때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 DDP디자인페어에 어느덧 3번째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큐앤코와의 협업은 유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기존에 제가 작업하던 꽃 시리즈 포스터에서 시작하여 러그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형적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꽃 몇 가지를 선택한 후에 제작하였고요. 이 페어에 매해 참여하며 느끼는 점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는 없다’ 입니다. 혼자 작업을 하다보면 방향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소상공인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 부분이 많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플라스틱 베이커리 서울 — 스몰 스플래쉬

폐플라스틱 조명의 유쾌함, ‘디저트 램프 : 쉬폰 케이크 Dessert Lamp : Chiffon cake’

소상공인

플라스틱 베이커리 서울

디자이너

스몰 스플래쉬

멀리서 보면 먹음직스러운 케이크지만 가까이서 보면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아이디어 기발한 조명이다. 폐플라스틱을 오븐에 구워 빵 형상의 오브제를 만드는 플라스틱 베이커리 서울만의 시그니처 메뉴 개발을 토대로, 스몰 스플래쉬와 새롭게 만든 케이크 조명은 디저트 접시 위에 부드러운 쉬폰 케이크를 베이스로 다양한 플레이팅을 올릴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플레이팅된 조형물은 사용자의 취향과 입맛에 맞게 변경 가능하다.

소상공인 플라스틱 베이커리 서울

“저희는 제빵 과정과 업사이클 플라스틱을 결합한 콘셉트의 새활용 브랜드입니다. 기존의 브랜드 콘셉트를 더욱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제빵’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파티시에들이 케이크에 생크림으로 패턴을 만드는 것에서 착안하여 플라스틱 베이커리 서울만의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디자이너 스몰 스플래쉬

“업사이클 소재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플라스틱 베이커리 서울에 협업 제안을 드렸고,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이 최대한 맛있어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결과물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디저트 오브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플레버스 — 수키 아카이브

따로 또 같이, 티코스터와 트레이 세트 ‘Lumpy bumpy’

소상공인

플레버스

2022 ddp Design Fair

디자이너

수키 아카이브

생활 속 다양한 용도의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티코스터와 트레이 세트 ‘Lumpy bumpy’는 곡선으로 주조하여 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부드러운 느낌과 더불어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아이템이 될 법한 형태감이 눈길을 끈다. 티코스터의 중앙부를 뚫어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주고자 했으며 컬러가 입혀진 트레이는 세 개를 한 세트로 붙여 놓았을 때 퍼즐처럼 맞출 수 있는 재미 요소를 담고 있다.

소상공인 플레버스

“작업을 하다 보면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함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참여하였습니다. 서로 협업하며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고 소상공인은 디자이너에게 대량생산으로 양산하는 제품에 대한 제작법을 알려주고 디자이너는 소상공인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디자이너 수키 아카이브

“개인 작업만 하다 양산을 목표로 소상공인과 함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버거웠을 단계들이지만 협업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수키 아카이브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도 좋은 디자인의 제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alltag — 스튜디오 뮤트

장롱의 변주가 경쾌한 서랍장 ‘농 Nong’

소상공인

alltag

디자이너

스튜디오 뮤트

공간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꾀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변주 가능한 서랍장 ‘농’이다. 모듈가구 형태라 층별로 분리되는 서랍장은 원하는 용도와 배치하는 방식에 따라 조합을 변경해가며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서랍의 크기가 다양해 기능적으로도 완벽하고, 탄화목의 절제된 디자인에 금속 디테일을 부여해 견고하고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층마다 분리되는 특징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할 수 있는데, 이는 서랍장 양 측면에 각 층을 연결하는 금속 부속품을 달아 해결했다.

소상공인 alltag

“‘농’은 각 층마다 분리되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멘토링을 받으며 사용자 안전을 위해 각 층을 고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었기에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잘 고정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이너와 많은 의견을 주고 받던 중, 옛 장롱 경첩들의 모양이 모티프가 되었습니다. ‘농’을 살펴보면 각 층을 연결하는 부속품으로 H자 금속 형태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디자인에 좋은 포인트가 되어 흡족했습니다.”

디자이너 스튜디오 뮤트

“한국 전통 가구가 특정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젊은 세대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디자인했습니다. 제작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았는데요. 목가구이기 때문에 뒤틀림이나 휘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이 분리되는 부분의 구조를 중점적으로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나무를 잘 알고, 다룰 줄 아는 준 장인 전문가와 협업을 하게 되어 안정적으로 호흡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디테일이 많았던 금속 작업도 서로의 경험을 존중해주면서 잘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LHM — 세라믹페이지

알수록 쓸모 많은 신박한 소반 ‘따로 또 같이 Separately and together’

소상공인

LHM

디자이너

세라믹페이지

우리네 선조들의 전통적 미감과 실용성이 돋보이는 소반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에서 착안하여 LHM과 세라믹페이지가 선보인 이 소반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다. 팔각 소반 ‘따로 또 같이’는 접시의 형태인 플레이트와 A라인 팔각 볼인 box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둘은 분리 및 결합될 수 있다. 소반의 기본적인 역할은 물론 접시, 볼까지 세 가지 쓰임이 가능하다.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이 소반은 일상 속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소상공인 LHM

“소반의 상판은 다른 소반과 달리 얇은 두께로 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비례를 따져보았을 때 필히 얇게 제작해야 했죠. 나무 소재 특성상, 얇게 제작할 경우 금속이나 도자기와 달리 판이 쉽게 뒤틀릴 위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위험을 없애고자 두꺼운 나무를 사용하되 소반이 될 때는 얇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판 바닥에 굽을 달았습니다. 상판의 굽이 팔각 볼과 합쳐질 때는 상판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접시로 쓰일 때는 쉽게 들고 옮길 수 있게 살짝 들려있게 만들었습니다.”

디자이너 세라믹페이지

“시중에 판매되는 기본 소반의 형태에서 나아가 실용성과 창의성을 추가한 디자인이에요. 소반의 역할뿐 아니라 접시와 볼 세 가지의 쓰임이 가능한 디자인의 리빙 제품입니다. 소재와 마감에 품질을 높여 고아하게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LHM에서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작업을 진행해 주셔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PART 3

런칭패드관

즐거움을 더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런칭패드관

‘Design for all’ 모두의 뷰티풀 라이프를 제시하는 다양한 디자인 신제품을 빠르고 멋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 런칭패드관이다. 이 곳에는 가구, 조명, 생활리빙 등 다양한 분야의 19개의 디자인 스튜디오와 서울디자인창업센터, 2022 청년 디자이너 DDP 브랜드가 참여하여 각자의 부스마다 본인들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둘러보는 동안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트렌디하고 센스 넘치는 디자인의 상품들은 환경과 사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담고, 그 해결책까지 제안한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왠지 모를 뿌듯함과 자부심을 일게 만든다.

2022 DDP디자인페어 런칭관 참여 브랜드 1

작가와 주민을 연결하는 작은 공간

소그룹 Sogroup

소그룹이란 이름 자체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동네 속 지속 가능한 문화와 예술 경험을 공간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소그룹은 현재 망원동에서 갤러리(so,one)와 칵테일바(so,far) 두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 DDP디자인페어에서 보여드리는 브랜드는 3번째 브랜드 소통(so,tong)입니다. 소통은 '작품도 집이 필요해(Artwork also need home)'라는 슬로건으로 작품 보관과 관련한 제품, 공간, 교육을 판매/운영/기획하고 있는데 청년작가들의 작품 보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브랜드가 만들어지기까지, 재미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작가인 친구와 함께 공간을 갖고 싶어서 4평 공간을 임대해서 갤러리 겸 모임공간으로 활용한 것이 브랜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공간 유지를 위한 고민을 하면서 창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요.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만난 작가들의 니즈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동네 관점에서 풀어보고 싶었어요. 동네에 갤러리를 포함해서 작가의 니즈를 해결해 줄 5개 공간을 만들면 동네 주민과의 연결점도 생길 거라 확신했습니다. 2021년 칵테일바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구조를 만들면서 작품 판매를 시작했고, 올해 2022년에는 스케일업을 위한 작품 보관 문제를 해결하는 '동네 수장고' 소통을 만들게 되었어요.

새로 제작하고 계신 신제품이나 가장 최근 제품도 궁금합니다

공간 목업 제품으로 작품을 보관하기 위한 가구를 만들었어요. 크기는 40호 캔버스 사이즈를 기준으로 선반 크기 정도인데 3개의 랙이 들어가서 6개 면에 작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 랙 위에는 아크릴을 두어서 먼지를 막아주고 물건을 둘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앞서 말했듯 처음에는 목업으로 제작을 했는데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퀄리티를 높여 인테리어나 컬렉터, 갤러리를 타깃으로 제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재료는 스테인리스를 위주로 하는데, 최근에는 구성품 중 고무 롤러를 직접 제작해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에요. '작품 보관 랙'이라고 지은 가구형 제품은 향후에 R&D를 통해 커스텀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예정이에요.

최근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으시다면 얘기해주세요

국내 미술시장은 2년간 2배 성장해서 1조 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시장의 성장에 MZ세대의 구매, 구매 방식의 다양화, 리셀로 인한 수익 등 다양한 요인에 비판적 시점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미술시장의 성장에 따른 타 사업(포장, 운송, 보관, 플랫폼 등)들이 함께 성장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보관의 경우 도심형 창고 시장의 성장과 함께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식 차원의 단계라 생각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자연스러워지면 미술품 보관의 서비스도 충분히 도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DP디자인페어 내에서 소그룹의 런칭관 관람 포인트와 전시 컨셉트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통은 작품 보관으로 예술 생태계 구성원 간의 재미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번 런칭관에 오시면 제품(작품 보관 랙) 뿐만 아니라 공간(동네 수장고)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APP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네 수장고는 사전 모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슬로건을 따라 천천히 둘러보시고 공감과 피드백을 미리 부탁드려봅니다. 사실 아직 작품을 공동 보관하는 개념은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번 DDP디자인페어 참여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시제품 단계였던 '작품 보관 랙'을 이번 페어에서 처음 런칭하고 판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기적으로 딱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7일간 전시한다는 점이 좋았어요. 물론 판매도 기대하고 있고요. 더 기대되는 점은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저희 소그룹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는 연결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까지 5개 공간(전시, 판매, 보관, 작업, 숙박)을 동네에 조성해서 '수평형 레지던시'를 만들어 지역 간의 문화/예술 교류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할 것입니다. DDP를 통해 저희의 활동을 더 알리고 협력할 수 있는 업체나 기업 등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6년차 오디오 키드의 스피커
벨레

어떤 브랜드 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벨레(welle)는 독일어로 '물결의 흐름과 파도'의 의미를 담은 파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높고 때로는 낮은 파도와 같은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벨레는 제품을 통해 고객이 즐길 수 있는 행복의 총량을 늘리고 싶다는 바람들이 모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성적인 물건인 오디오를 앞세워 '벨레'라는 이름의 라이프 스타일 스피커 전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소위 '대박'이 났다 들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직접 개발한 가구형 스피커를 선보여 이른바 대박이 났습니다. 연간 매출 성장률은 100%를 초과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매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스피커 제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얼리어답터 소비자들과 음향업계 관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죠. 이 경험을 기반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이어 국내시장에는 이마트, 코스트코, 신세계백화점, 애플스토어와 일본 요도바시카메라, 츠타야, 아마존 등 대형 온,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해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애정을 듬뿍 받고 있는,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봤을 때 스피커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검은색에 각 지고 투박한 모양새에서 벗어나 스피커를 자랑할 수 있도록 공간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생각했고 인테리어 오브제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스피커와 같은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전 '우리 집 인테리어와 어울릴까?'를 먼저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여기에 트렌드에 발맞춰 아시아 시장에 맞는 소규모 가구형 스피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였고요. 또한 벨레의 테이블 스피커는 '예쁜 스피커'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스피커 제품을 외면했던 여성 고객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통상 스피커 제품의 여성 고객 비중은 20% 수준이지만, 벨레는 고객의 60% 이상이 여성 고객이라는 것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

새로 제작하고 계신 신제품이나 가장 최근 제품이 있다면

올해는 테이블 스피커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램프 스피커, 플러그 5(PLUG 5) 멀티탭을 시작으로 USB 허브형 조명기구, 조형적 USB 입력장치 등 생활 가전, 디자인 가전제품 등을 출시할 것입니다. 램프 스피커는 기존 테이블 스피커 컨셉을 유지하는 디자인으로 캠핑이나 야외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작게 무드 등 기능을 추가하였고요. 플러그 5 멀티탭은 스피커가 아닌 디자인 가전 분야로의 확장을 목표로 기획된 제품으로 이제까지의 멀티탭이 길고 하얀색만 있었다면, 꺼내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라운드 디자인 멀티탭 커버 등을 제공하고, 4가지 컬러를 통해 인테리어에 맞춘 디자인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런칭관에 꾸며질 벨레만의 컨셉트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벨레의 제품은 3가지의 컨셉트를 기본으로 기획됩니다. 첫 번째, 멀티펑션 Multi-Function. 제품은 항상 복수의 기능을 통해 제품 본질의 성능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획됩니다. 두 번째, 컬러풀 스타일. 소형가전제품 등 소형 소품의 특성상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스타일을 표현하고 공간의 포인트로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화이트, 블랙의 기본 컬러가 아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컬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오브제의 형태. 제품을 사용하고 놓이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라도 공간에 어울리는 안정적인 형태를 통해 때로는 공간에 스며들고, 때로는 공간의 포인트가 되는 오브제의 형태를 완성하게 됩니다. 벨레의 제품들을 통해 공간의 스타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스마트한 기능을 통해 최신 기술을 최신 트렌드에 담음으로써 제품의 기능과 성능 역시 높였습니다.

이번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소형가전제품의 특성상 스타일과 컬러 그리고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소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DDP디자인페어는 벨레의 고민의 결과물인 제품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디자인 제품 유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발전되어 벨레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실리콘의 무한 가능성
실리만

이미 유명한 브랜드이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 부탁드려요

실리만은 변화되는 주거 공간과 가족의 형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cook to table' 트렌드를 제안하는 브랜드입니다. 돌에서 뽑아낸 미래의 소재 실리콘은 첨단과 환경을 꿈꾸는 인류의 미래를 대표할 신소재입니다. 실리만은 이런 귀중한 소재인 실리콘을 생활 속에 늘 가까이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용품과 첨단 상업용 및 의료용 부품을 기획부터 개발, 제조, 유통까지 전 분야를 직접 운영하는 실리콘 전문 제조 회사입니다.

Silly가 들어간 것은 의도한 것이겠죠? 브랜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께서 많이 의아해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기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생각합니다. 'Be silly! 나는 어리석어,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지!'를 슬로건으로 실리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유쾌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브랜드로 탄생되었습니다.

새로 제작하고 계신 신제품이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한국 전통 도자기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도자기의 본고장인 여주에서 제작하는 세라믹 라인을 준비 중입니다. 블랙 소지로 만들어 견고함과 독특한 멋을 더한 가운데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를 입혀 전통 세라믹을 선보일 것입니다. 또한 라이크모노핸드메이드 김유경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일러스트 디자인의 식탁 매트를 만들었습니다. 작가의 독보적인 감각과 재미난 시선으로 완성된 또 다른 유쾌한 상품이 될 것입니다.

최근 실리만이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다면

간편하고 쉽게 요리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서도, 한 끼를 잘 차려 먹고 싶고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눈에 띕니다. 실리만은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 툴을 제시하고 고품질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DDP디자인페어에 처음 참여 하시는데요

저희 실리만은 기업으로 참여를 했지만 소상공인과 신진 디자이너를 위한 전시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알 수 없었던 신진 디자이너분들과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런칭관을 통해 저희의 제품을 선보이는 것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면 원단 재직으로 만든 친환경
라원 깨끗한주방

라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만의 특화된 소재로 소창과 광목을 이용,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형광 국내산 원사를 이용하여 라원만의 순면 원단을 따로 재직하여 고객님들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창 원단으로 만든 행주, 수건 등이 주요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이불 커버나 베개 커버 같은 광목 소재의 침구류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원단 재직에 공을 무척 들이셨는데, 첫 시작이 궁금합니다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론 주변에서 쉽게 사용하는 부직포, 일회용 행주, 물티슈를 쓰다 보니 환경에 유해한 단점들이 마음에 걸렸던 찰나 문득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소창 행주가 생각났고 가족과 환경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소창 행주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제품은 다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 주변 분들에게 선물했는데 그때부터 입소문이 났다고 할까요. 지인들의 적극 추천으로 브랜드를 만들었고 플리마켓 입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좋은 건 빠르게 소문나기 마련이죠. 신제품도 제작 중 이신가요

네, 흡수력 좋고 피부 자극 적은 무형광 라원소창으로 제작한 목욕가운입니다. 전통 한복 저고리의 모양을 형상화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허리 묶음이 필요가 없고 앞섶이 옆구리 쪽까지 이어져서 가슴 벌어짐이 없으며 속끈이 한번 고정해 주어 많이 움직이거나 하여도 앞이 벌어지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도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라원소창을 두 겹 또는 세 겹으로 제작하였기에 수건이 따로 필요가 없으며 목욕 후 바로 착용하면 물기가 싹 흡수되어 쾌적합니다. 보풀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튼튼한 국내산 원사를 사용한 라원소창만의 특징 덕분에 건조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DDP디자인페어 런칭관 부스 관람 포인트와 전시 컨셉트가 벌써 궁금합니다

특화된 라원의 원단을 사용하여 제품 제작 과정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라원 원단을 손으로 직접 만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 삶아 잘 건조해서 따로 정련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라원소창 제품의 편의성과 뻣뻣하고 딱딱한 광목의 선입견을 탈피한 호텔 침구처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감촉을 겸비한 라원광목의 모든 제품을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관람 포인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아늑하고 편안한 침실과 깨끗한 주방, 깔끔한 세면대를 실제 세팅하고 그 공간에서 그대로 다 보실 수 있도록 전시 컨셉트를 잡았습니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으시다면 얘기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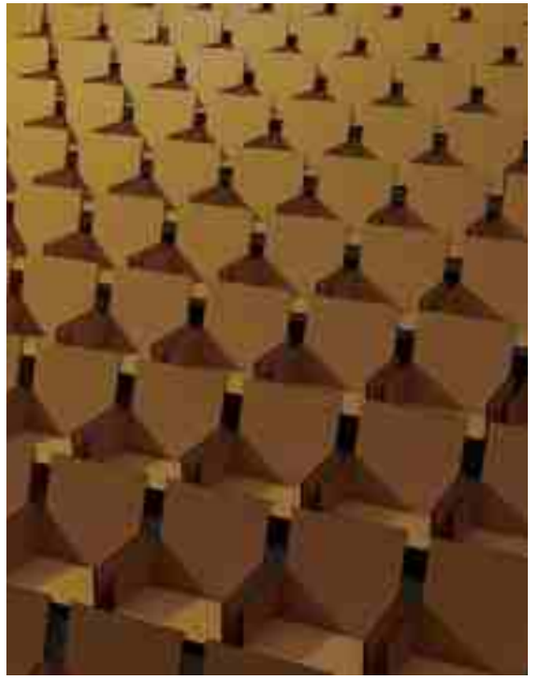
대중적이지만 나만의 것을 제작하고, 맞춤이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고, 화려하고 튀는 디자인보다는 차분하고 정갈하고 깔끔함이 풍부하게 나타나는 고급스러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DDP디자인페어라는 플랫폼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

라원의 경우, 개인이 혼자 시작한 작은 소상공인이었기에 브랜드 홍보는 참으로 힘든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DDP디자인페어는 이런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준 기회가 되었고, 이러한 기회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소상공인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페어 자체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페어 참여는 소상공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페어를 통해 브랜드와 상품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라원 제품과 함께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과 감성을 모두 담은 진심 어린 디자인
PSH

Framer.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PSH는 양보다 질의 디자인을 지향하며, 더 나아가 디자인학의 모범적 사례가 되는 것을 목표합니다. PSH에는 매우 까다로운 디자이너들이 모여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인내와 발전을 거듭하여, 디자인에 대한 소명의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을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감성적이며, 매우 까다로운 디자이너로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고도의 집중력, 집요한 분석,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통찰력으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확률과의 싸움을 합니다.

스튜디오를 설립하게 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PSH는 2010년 itttta라는 상호로 설립, 산업디자인을 베이스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전략 컨설팅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7년, 디자인 베이스의 비즈니스를 명확히 하기 위해, PSH(한필수 디자인스튜디오)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2021년 PSH 내 디자인 브랜드 Framer를 설립하여 오랜 시간 쌓아온 디자인의 경험과 생각을 제품으로써 공유하려고 합니다.

새로 제작하고 계신 제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PS12 chair는 면으로만 이루어져, '단순함'에서 '편안함'까지 이르는 일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심플함 속에 각도와 높이, 치수를 세밀하게 정돈하려 했습니다.

2022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PSH Studio는 대외적인 활동에 대해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고,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그 출발을 함께 하려 합니다. 이번 페어를 통해 시작점을 찍고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런칭관에 오시는 관람객들에게 전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가구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에 대하여 전시 컨셉을 풀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결과물 뿐만 아니라 디자인 프로세스까지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각 단계마다 걸음을 맞춰보며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하게 일 할 수 있는 내-일의 도구
오드오피스

odd-office

오피스와 관련됐을 거란 상상을 하게 되는 브랜드이네요

오드오피스는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서 오프라인 상의 업무 환경과 '사람'에게 집중하며 필요한 도구를 기획&개발하여 오피스 편의와 문화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독특하고 별나다는 뜻을 가진 오드odd와 오피스office의 합성어로, 조금은 낯설지만 독특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사무환경을 만들어보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대로 별난 브랜드의 창업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반복적인 회사 생활로 회의감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시기가 찾아왔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과 관련한 요소들을 개선하면 조금 더 행복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토대로, 비슷한 방향성을 가진 이들과 모여 '오드 프로젝트'라는 디자인 에이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만의 생각이 담긴 브랜드 '오드오피스'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새로 제작하고 계신 신제품이나 가장 최근 제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으로는 데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리-스탠딩 파티션인 '낯가림과 못가림'이 있습니다. 파티션이 없는 공간에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사용하는 파티션 겸 오거나이저로 타인과의 시선을 위트 있게 차단해 주는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기획 하에 이름을 '낯가림'이라고 지었으며 상대적으로 키가 낮아 '낯'을 가리기 힘든 미니 파티션은 '못가림'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을 통해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 사용자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처음 받았던 제품이라 저희에게는 의미가 있는 제품입니다. 연말을 목표로 해당 제품을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필꽂이나 북앤드 등 추가 제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런칭관에 오시는 관람객들에게 전하는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브랜드 네이밍 그대로. '오드한 오피스'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페어 참여가 처음이기에 저희의 의도가 잘 구현될지 걱정되지만, 모든 것이 규격화되고 틀이 짜여진 프레임에서 탈피하고 환기가 되는 제품의 특징과 브랜드의 방향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업무가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흐름과 반대로 오프라인 상의 업무 환경에 집중하고자 하는 오드오피스의 생각을 느끼고 공감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신 이유와 페어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번 DDP디자인페어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반응들을 살피는 것은 물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브랜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동력을 얻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페어를 통해 아직 '오드오피스'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브랜드의 메세지를 전달하고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으시다면 얘기해주세요.

지속적인 트렌드이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 변화된 오피스 문화와 환경과 친환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와 재택근무, 공유 오피스까지 다양한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구성하는 사무 제품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비의 형태도 바뀌었고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니즈도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와 같이 편안한 업무 환경을 요하는 수요층과, 반대로 편안한 주거 환경과 경계를 지을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니즈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해진 업무 형태와 더불어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제품 기획과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오피스 문화의 트렌드를 주시하고 나아가서는 선도하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것 아닌 새것 같은 기발한 업사이클링
젠니클로젯

Zenny Closet

'젠니의 옷장'이라는 의미의 이름이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며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가치와 개성을 제안하는 에코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결과 보다는 과정을 위해 걸어온 길, 그 길 자체가 더 의미 깊다 생각하며 자연과 소통하고 균형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품을 만듭니다.

가장 먼저 독특한 로고에 시선이 끌리는데요

브랜드의 철학을 담아야 하는 로고를 통해 어떻게 입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고민 중이던 어느 날 옷을 수선하다가 바지 허리에 있던 후크가 사슴처럼 보이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아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저의 비장한 결심과 비전이 이 버려지는 후크를 통해 형상화할 수 있겠다 싶었죠. 버클 후크와 요크의 업사이클링을 통해 만든 사슴 로고는 제품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가진 생명의 근원을 담고자 하는 브랜드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브랜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6평 작은 공간에서 재봉틀 두 대와 몇 벌의 옷이 걸려있는 아뜰리에를 열었고 한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한 여성분이 매장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오시더니 "혹시 수선도 가능한가요? 오래전부터 아껴 입던 가죽 코트가 있는데 다시 고쳐 입고 싶어서요" 작업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오래되고 낡은 가죽을 한 올 한 올 뜯어서 새 가죽과 함께 다시 고쳐 새것처럼 만들었고 반응은 뜨거웠어요. 그리곤 우연 같은 필연으로 한복 리사이클링 문의가 들어왔고 세상 하나뿐인 시크한 한복 블라우스를 만들어 드렸죠. 텅 빈 것 같던 매장 안에는 어느새 새 것처럼 변신한 청바지, 재킷, 점퍼 등이 젠니클로젯 안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떤 걸 리사이클링 하는지 기대가 됩니다

일상 속에는 수많은 버려진 원단들이 존재하는데요. 물을 사용하지 않은 디지털 인쇄 회사와 단독 MOU 체결을 맺으면서 더욱더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중입니다. 또한 골프회사인 '골프존'과도 단독 MOU를 체결하여 버려진 스크린 천에 디지털 인쇄방법으로 토트백, 미니백 등을 출시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버려진 청바지에도 인쇄를 통해 명품 고야드 코팅 기술이 도입된 ZC라인도 출시했고요.

최근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으시다면

이미 오래 전부터 주목받고 있는 '업사이클링 패션'이라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혁신적인 기술,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 이에 따른 해결 방향을 제시하여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디자이너가 추구해야 할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100% 친환경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물을 사용하지 않은 디지털인쇄 기술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번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상품에 대한 편견을 완벽하게 없애고픈 마음이 가장 크다고 할까요.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재활용한 것으로 사용하기 껄끄럽다는 편견과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불식시켜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젠니클로젯 부스에서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지길 바라며 관람을 통해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의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일상의 경계를 허문 디자인
바치 포 드웰링

B F D

독특한 이름의 브랜드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바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BFD(Bacci For Dwelling)입니다. 작은 소품에서 가구까지 경계 없이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소개하고 있는데 연필에서부터 가구까지 일상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제품을 제안합니다.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사용자의 변화에 적응하며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목'의 의미가 담긴 노마딕 쇼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정된 오프라인 컨텐츠가 아닌 본연의 개성이 뚜렷한 국내 공간들을 찾아다니며 가구와 제품들을 각각의 공간 속에 녹여내고자 합니다.

브랜드가 탄생하기까지의 여정도 궁금합니다

건축 공부를 하며 자연스럽게 가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유롭고 재미있는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스케일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상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에 매력을 느낀 것이 시작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디자인의 경계가 없는 바치의 가장 최근 상품은

토스트 트레이, 비누 받침 등 작지만 일상에 재미와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벽면용 수납함과 같은 벽걸이 형태의 제품들도 준비 중입니다.

런칭관을 통해 바치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간결한 조형미와 아름다운 소재로 풀어내는 일상의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방이 아닌 관람객들과 양방소통을 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부스 안으로 들어오셔서 만져보고, 앉아보고, 직접 경험하며 편안히 쉬어 가는 부스이기를 희망합니다.

바치가 생각하는 리빙 트렌드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자신의 공간에 대한 조금 더 신중한 생각과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취향을 찾아 본인만의 것들을 발굴하는 행위 자체가 트렌드가 아닐까요? 자유로운 노마드 정신이 바치의 브랜드 철학과도 딱 맞아 떨어지네요.

디자인 브랜드로써 DDP디자인페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브랜드 AGO 유화성 디렉터님의 추천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몹시 궁금해지는 페어입니다. 기존 정형화된 페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페어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메이드인 코리아를 잘 알릴 수 있는 알차고 유익한 페어로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플라스틱 0%의 일상을 만들다
언롤서피스

Unroll Surface®

브랜드 소개 부탁드립니다

'표면을 펼치다'라는 뜻의 '언롤서피스 Unroll Surface'는 제품의 표면 아래 숨겨져 있는 소재에 대해 더 많이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길 바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지속 가능한 소재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석유 기반 신생 플라스틱 0%를 목표로 재활용 플라스틱과 바이오 소재를 중심으로 데스크 제품, 텀블러, 컵, 화분 등 지속 가능한 삶을 이루기 위한 생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소재연구기업 (주)랩엠제로에서 2021년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랩엠제로에서는 소재의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 소재의 다양한 응용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업을 상대로 소재 관련 컨설팅과 선행 개발 또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기본 철학으로 소재 연구와 제품개발을 이어오고 있는 중 이를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브랜드 언롤서피스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제작하고 계신 플라스틱 제로 상품이 있다면

'PCR 플라스틱 스톤(PCR Plastic Stone)'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요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분쇄하고 압축하여 패널을 만들고 이를 다시 가공하여 만든 문진(paper weight) 제품입니다. 다양하게 수거된 플라스틱 소재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제품마다 색과 패턴이 다르고 일정 수량만 생산이 가능해 데스크 위 특별한 오브제로써 가치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언롤서피스 런칭관 부스 관람팁이랄까요

저희는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이란 주제를 무겁고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런칭관 전시에서도 '데스크 위 작지만 큰 세상(Small But Big World on Desk)'라는 주제로 다양한 제품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연출하여 보다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DDP디자인페어에 참여 동기가 있다면

펜데믹 이후에 오프라인 경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 DDP디자인페어는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런칭관 전시를 통해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브랜드들과 함께 언롤서피스를 알릴 수 있어 더없이 좋은 기회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DDP디자인페어가 디자이너들만의 축제가 아닌 보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표 행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도 궁금합니다

기업의 ESG와 맞물려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재의 지속가능성이 친환경의 주요 요소로 여겨지면서, 다양한 대체 소재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가 느린 소재 분야이다 보니 보다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다양한 기업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머무는 오브제로 감성을 터치하다

모르피어

morphere

브랜드 이름에 담긴 의미가 궁금합니다

모르피어(Morphere)는 Morphing과 Atmospheres를 합한 이름으로 공간과 빛의 관계에 집중하며, 빛이 공간의 분위기 조성과 개인의 감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민하는 브랜드입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빛의 존재를 재조명하며 빛을 소재로 한 다양한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빛을 소재로 만들어진 브랜드에 담긴 철학이 있다면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 건축을 전공했는데 빛과 그림자가 주는 묘한 매력에 점점 깊게 빠져들게 되었고 공간 안에서 빛이 주는 묘한 감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조각가 에르빈 하우어 Erwin Hauer의 스크린과 벽체 구조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번 첫 컬렉션으로 조명을 먼저 선보이긴 했으나, 빛이 머무는 오브제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게 하고자 합니다.

가장 최근 제작한 제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새로 소개하는 첫 컬렉션은 'The Raison D'etre' 입니다. 프랑스어로 '존재의 이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단순히 밝고 어두운 것을 넘어 우리 감성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평소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무심코 지나쳤던 빛의 존재가 섬세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르피어가 생각하는 리빙 트렌드도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 가구들을 세트로 구매하시는 분들보다 나만의 피스들을 하나씩 모아가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가구들과 어울릴만한 가구를 한 점 한 점 신중히 고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가구를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닌 소장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 생각 합니다.

모르피어의 부스 관람 포인트를 콕 짚어 얘기 해주신다면

모듈의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부스를 관람하시면 브랜드가 전개하려는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조명 컬렉션은 색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아닌 빛이 만드는 명암만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단순히 주변을 비추는 조명을 넘어 섬세하고 아름다운 오브제로서 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더해줍니다. 우리 주변의 빛이 만들어 내는 효과에 집중해 보세요.

이번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브랜드를 준비하면서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에 크게 치중한 나머지 제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것에 조금은 소홀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다양한 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 많은 분께 모르피어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DP디자인페어라는 플랫폼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디자인 문화가 활발해 지면서 국내에도 다양한 디자인 페어가 많지만, DDP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진행되기에 더 의미 있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런칭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는 이런 기회는 이제 한 발을 나아가려는 브랜드들에 너무나도 값진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징적인 공간과 같이 할 수 있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이 실물로 이어지는 컬러 플레이

모스

mohs

굉장히 컬러풀한 이미지가 눈에 띄네요, 브랜드 소개 부탁드립니다

모스(mohs)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 모스그래픽에서 만든 브랜드로 자연을 담은 컬러와 그래픽을 통해 표현의 즐거움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쌓인 디자인의 노하우와 섬세한 제작 과정을 통해 일상을 밝히는 독창적인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게 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오랜 시간 북디자인과 종이라는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제작물이 오브제가 되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비대면 소통이 잦아지면서 택배를 통해 작은 선물이나 카드, 먹거리 등을 주고 받다가 이 기회에 직접 만든 제작물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발단이 되어 작은 노트, 작은 메모지, 포장지, 택배 박스를 돋보이게 해줄 스티커까지 연결이 되어 모스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계획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려다 보니 좀 더 자연스럽게 디자인, 제작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스의 기발함이 돋보이는 제품들도 궁금한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은 컵 3종과 코스터 5종으로 그래픽을 입힌 유리컵과 컬러실로 짠 니트코스터는 제품 자체뿐 아니라 선물용 패키지를 함께 고려하여 제작했는데 그런 요소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연말에 만들고 싶은 제품들이 많이 있었지만 작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블랭킷 제품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그 외에는 다이어리와 쿠션 커버 등이 있습니다.

모스그래픽의 부스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온라인, 사진 등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 물성을 느끼는 포인트는 매우 다릅니다. 다양한 컬러를 어떤 매체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색상 구현과 질감 등이 예측이 잘 안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보고 감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고, 한번쯤 오프라인을 통해 제품을 경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현한 컬러들의 즐거움을 시각적으로 즐기는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으시다면 얘기해주세요

작은 집, 작은 사무실, 작은 공간에 필요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소품과 빈티지와 현대적인 디자인의 조화에 큰 관심을 두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DDP디자인페어라는 플랫폼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디자인을 보여주며, 브랜드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제안을 해주는 장이 되는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한 일상을 위해
비 포머티브

BE FORMATIVE

브랜드 소개 부탁드립니다

디자이너 이기용과 김예진이 2020년에 설립한 디자인 스튜디오 입니다. 조형과 물성을 다루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물의 형태와 기능, 재료, 그리고 제작 방식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형태와 기능에 주목하여 제품, 가구, 조명 공간 등 리빙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탄생 과정이 궁금합니다

팀원들과의 대학교 조 과제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4명이 6년 정도 '크래프트 콤바인'이라는 디자인 그룹을 운영 하게 되었고 작업 과정에서 나온 클리어 비(clear b)라는 자체 유리 브랜드를 함께 진행해오다 2020년 디자인 스튜디오 비 포머티브를 설립하였습니다. 서로 학교에서 좋아하는 작업을 만들고 점차 작업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로 나와 작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자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과 브랜드와의 콜라보 프로젝트를 통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술처럼 뚝딱 브랜드를 만드셨는데, 어떤 상품을 만들고 있는지

2017년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 수상 이후, 꾸준히 한글 관련 제품을 디자인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 한국디자인 진흥원을 통해 한글 콘텐츠를 이용한 한글 상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글 오뚝이(Hangeul Balancer)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요소-동그라미, 수직선, 수평선, 대각선-를 모티프로 디자인되었는데 균형감과 대칭적인 구조를 가진 자음의 조형들을 입체적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며, 우수한 한글의 조형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비 포머티브의 런칭관에서 상품을 만날 수 있나요

새롭게 선보이는 한글 오뚝이는 비 포머티브의 첫 번째 자체 생산 제품입니다. 교육적인 콘텐츠를 벗어나 한글 조형이 우수한 디자인 요소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직접 제품을 만져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람객은 물론 전문가들의 반응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다면

최근 노플라스틱선데이(Noplasticsunday)와 작업했던 소쿠리나 DDP디자인스토어에서 선보였던 스티칭 바스켓 모두 친환경적 소재와 관련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큰 주목성을 가졌던 주제이지만 진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소재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제품 개발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라 대체될 수 있는 소재들과 공정,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DDP디자인페어와 친숙하다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소상공인과 매칭되어 DDP디자인페어를 참여를 하여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자이너들과 기업 사이에 좋은 시너지가 되는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자인 페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널리 멀리
윰디자인스튜디오

YOUM DESIGN

스튜디오 소개 부탁드립니다

'꿈꾸는 만큼 자란다'라는 모토 아래 컬러, 패턴, 타이포그래피를 조형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일상의 아이템을 디자인합니다. 타이포그래피를 기반으로 한 윰디자인 그래픽 작업은 여러 종류의 카드와 아트 포스터에 적용되어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윰디자인이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다면

최근 세계 트렌드에서 부상하고 있는 한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K-Drama, K-Pop 등 K-콘텐츠의 성공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2021년 10월 옥스포드 영어사전이 한국어 26개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빠르게 전세계로 확산되는 한국문화의 영향으로 한글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윰디자인에서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 제품들을 연구하며 출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윰마스크에 대해 강한 호기심이 드는데요

한 사람의 아픈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행 중 생긴 햇빛알러지로 인해 강한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피부 이상 증상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자외선 트라우마는 안전하고 온전하게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 개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마스크들은 햇빛에 가장 맞닿는 부분인 광대 부분은 가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를 커버함과 동시에 컬러와 디자인을 고민했고 이에 광대 부분이 가려지고, 입체적 컬러와 패턴으로 얼굴이 작고 갸름해 보이는 윰마스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외에도 진행 중인 작업도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그래픽 아트포스터와 여러 종류의 카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디자인미술학부와 협업하여 여러 콜라보레이션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글, 알파벳, 기호 등 타이포의 아름다움이 담긴 새로운 그래픽 제품들을 DDP디자인페어 런칭관에서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페어에 오시면 자유롭게 윰마스크 제품을 만져보고 착용해 보며 컬러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이미지를 발견해보세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감을 느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DDP디자인페어 참여 동기와 페어를 통해 기대하는 부분은

DDP디자인페어는 다양한 감각의 트렌드에 따른 다채로운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디자인 축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축제에 참여 하는 것 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죠. 여기에 페어를 통해 기존에 미비했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소비자를 직접 만나 반응 및 냉철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기에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페어가 향후 시민 체험의 기회 확대와 디자인 관련 학교, 업체들의 참여가 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전통을 이어온 CMF 전문 브랜드
히다

INTOPS®

제조기업에서 만들었기에 더욱 궁금한 브랜드인데요

40여 년간의 제조 노하우, 풍부한 CMF 경험 및 기술력을 갖춘 인탑스의 CMF 전문 브랜드 히다(hida)는 제품 디자인을 위한 소재와 공법 등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고객사가 차별화된 디자인 제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양산성과 제품 신뢰성까지 고려한 서비스를 통해 실제 프로젝트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온/오프라인 CMF 라이브러리에서는 히다의 기술력으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메탈, 패브릭 등 다양한 CMF 샘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수백 종이 넘는 CMF 샘플 칩을 컬러, 소재, 마감, 인상, 트렌드에 따라 검색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소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히다 CMF 전시관과 웹사이트에서는 인탑스에서 제작한 친환경 타워블록 제품 외에 다양한 CMF 소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MF 시장에서의 현 트렌드를 들려주세요

지속 가능한 CMF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시대 친환경 소재 상품이 소비자의 니즈에 포함되면서 이를 반영한 친환경 디자인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친환경 제품이 쏟아지는 만큼 차별화된 CMF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 인탑스도 지속가능한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CMF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히다의 노하우가 담긴, 개발에 집중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친환경 리바이브 프로젝트의 일환인 페플라스틱과 폐목재로 만들어진 타워블록 외에도 생산공장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친환경 복합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목재, 커피 찌꺼기, 가죽, 패각 등 다양한 자연 소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을 지속해서 연구 중입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런칭관의 컨셉트 역시 궁금합니다

전시 주제는 '친환경 제품 프로젝트, 다양한 친환경 CMF를 알리다' 입니다. 최근 런칭한 친환경 타워블록 제품 소개를 시작으로 친환경 revive 프로젝트 스토리와 소재 제작 과정, 제품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소재의 컬러, 입자감, 광택감을 달리하여 만든 다양한 CMF 샘플 칩과 이를 볼 수 있는 온라인 라이브러리도 함께 소개할 것이며, 전시 기간 동안 부스에서는 소소한 이벤트도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DDP디자인페어는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전혀 새로운 시각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저희 브랜드와 제품이 소개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관람객에게 인탑스와 히다의 친환경 소재를 널리 알리는 것과 더불어, 무분별한 플라스틱 생산으로 일어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DP디자인페어라는 플랫폼이 주는 의미랄까요

시대적 흐름과 트렌드에 맞춰 주제를 선정, 이를 중심으로 컨셉에 맞게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고 단순한 디자인을 뛰어넘어 일상 속 공감을 통해 솔루션까지 공유하는 완성도 높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분들 모두에게 좋은 경험과 배움이 될 거 같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회화의 요소를 가미한 아트 감성
플라뜨 오브제

FL.ART

브랜드 소개 부탁드립니다

Fl.art(플라뜨)는 '납작한'이란 의미를 가진 Flat와 art의 합성어입니다. 입체적인 이미지가 강한 도자기에 평면의 회화 요소를 더하여 만든 오브제입니다. 일상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사물을 평면화하여 작가만의 또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한 도자기로 세상 단 하나뿐인 오브제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만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다면

도자기하면 생활 식기와 원형의 형태, 회화하면 네모난 캔버스 위의 그림을 기본적으로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와 다르게 플라뜨 오브제는 도자기가 주는 입체의 느낌보다는 평면적인 납작한 요소를, 흔히 볼 수 있는 사각형 형태의 캔버스가 아닌 도자기를 이용하여 직접 캔버스를 만들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백색의 도기에 유려한 선으로 회화의 요소를 가미하여 예술적인 무드를 더한 오브제와 테이블 웨어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플라뜨하면 떠오르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플라뜨 오브제의 시그니처 작품인 플로럴 오브제입니다. 여러 종류의 꽃들이 각자 어울리는 베이스에 담긴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피스들이 모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나만의 '하나뿐인 오브제'로서 더욱더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런칭관 부스의 전시 컨셉트도 궁금합니다

사물을 플랫하게 표현하여 그림 같은 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세라믹 소재를 이용하여 직접 만든 캔버스 위에 선마다 디테일이 느껴지는 독특한 오브제로 도예와 회화의 요소까지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플라뜨 만의 트렌드를 짚어 본다면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가구입니다. 보통 세라믹하면 생활 식기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가구라는 또 다른 리빙 분야의 소재로 사용되면서 도예의 영역이 더 확장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흙이라는 자연의 소재와 직접 손으로 만든 도자기가 주는 따듯한 느낌이 의자와 테이블로 만들어지면서 그 매력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변색과 변화에 있어 강한 특징을 가진 도자기가 오랫동안 사용하는 가구에 접목되어 도자기의 특징이 더 강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상을 도자기로만 채워질 수 없듯이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 분들을 만나 뵙고 페어를 통해 한 공간을 함께 채워 나감으로써 하나가 아닌 여럿이 있었을 때 만들어지는 조화로움의 시너지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페어의 큰 장점은 디자인의 트렌드를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페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일상이 조금은 더 멋스럽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프리미엄 쿡웨어
소댕

귀여운 의성어 같기도 한 브랜드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댕은 1997년 부산에서 설립된 ㈜한국클래드텍의 프리미엄 쿡웨어 브랜드입니다. 단일 소재 조리기구의 단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소재의 접합이 가능한 클래드 메탈의 장점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주방기구를 대체하고 있는 혁신적인 소재인 클래드로 모든 상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솥뚜껑 이미지를 이용한 모던한 로고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합니다.

클래드 소재에 마음이 끌리는데요, 신상품이 있다면

티타늄 소재 관련 신제품을 준비중입니다. 스테인리스에 티타늄 가루가 소량 섞인 제품이 아닌 제품 내측 소재 자체가 올 티타늄인 원소재를 클래드 통3중 또는 통5중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존 쿡웨어에 많이 사용되던 통3중 2.0T-2.3T 두께가 아닌 두터운 후판 소재 6.0T 통3중 클래드를 개발하여 극강의 내구성 및 탁월한 열 보존율로 음식을 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런칭관의 소댕 부스가 궁금해지는데요

소댕의 브랜드 컬러와 좋은 도구가 좋은 요리를 만든다는 소댕의 브랜드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키친 및 다이닝 공간을 위해 소비하고 투자하는,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컨셉트로 다이닝존을 연출하였습니다.

이번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이후 집이라는 공간에서 요리하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키친/다이닝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투자하는 이들에게 소댕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소댕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상품들을 직접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관람객들과 이야기하며 새로운 디자인의 상품을 소개하고 나아가 디자인적으로 더욱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공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DDP디자인페어라는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만남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 탄생하기에, 런칭관을 통해 디자인 신제품과 트렌드를 대중에게 알리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디자인을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규모가 더 커지길 기대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오가는 디자인 그룹
INTER by HID

독특한 형태의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디그리쇼를 브랜드화하여 여러 글로벌 전시와 산업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영디자이너들의 크리에이티브 그룹입니다. 테크놀러지와 디자인 미학 그리고 비지니스가 융합된 브랜드로 끊임 없는 글로벌 콜라보레이션과 스타트업 스핀오프를 통한 비지니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매거진에 기사화 됨은 물론 해외 전시 참여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 영향력을 활발하게 넓히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설립하게 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학교의 학과 브랜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글로벌 산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글로벌 비지니스 창출과 미래 산업디자인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디자인을 창출 Creative Group으로서의 브랜드로 그 가치를 매년 더해가고 있습니다. 서브 테마가 매년 업데이트 되며 'INTER'라는 2022년의 새로운 서브 브랜드와 'by HID'라는 고정적인 네이밍을 합쳐 매년 변화하는 이름 가지는 것이 컨셉트입니다.

새로 제작 중이거나 가장 최근 제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래 테크놀러지 제품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 제품디자인, 메타버스 및 사용자 경험 및 인터렉션 디자인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도에는 특히 스마트홈, 스마트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 오브제, 사용자 경험 디자인 등의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작품들은 디그리쇼에 소개된 후 여러 글로벌 산업체들과 협업으로 발전되거나, 스타트업 스핀오프, 전시회 참여 등으로 활용됩니다.

부스 관람 포인트를 미리 얘기해 주신다면

미래 트렌드 시나리오 연구와 깊이 있는 사용자 리서치, 분석을 통한 컨셉을 제안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조형과 CMF를 적용한 Generation Z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다가올 근 미래의 제품들을 눈으로 직접보고 나의 미래 라이프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입니다.

이번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신진디자이너들에게 전시 기회가 주어지는 '2022 밀라노 Salone Satellite'를 참여를 하면서, 같이 참여를 했던 디자이너 및 브랜드, 그리고 전시공간을 찾아주시는 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기회와 뜻 깊은 협력들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해서 젊은 세대의 디자인 영향력을 한국의 관람객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자인페어에 참가하는 다른 브랜드와의 소통을 통해 더 시너지를 얻고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좋은 기회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높은 미감의 친환경 콘텐츠
레토릭

rhetoric

브랜드를 만들게 된 배경이 무척 궁금합니다

레토릭은 친환경 디자인 연구와 더불어 영상 및 웹사이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디자인을 통한 높은 환경 감수성, 그리고 자기 효능감 구현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 그룹입니다. 현재 도시락 용기 시장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제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치 소비와 감성을 동시에 소구하는 국내 및 해외 MZ세대에게 특화된 제품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고자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가치 소비와 감성을 담은 도시락 용기라니!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되겠네요

네, 레토릭만의 도시락 용기는 보다 친환경적이고 보다 감성적입니다. 옥수수에서 유래된 생분해성 PLA 소재를 사용, 친환경 제품을 나타내는 BPA FREE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버려진 페트병으로 제작된 패턴 프린팅 보자기 그리고 편안한 착용을 도와주는 옥수수 비건 레더 스트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상품인 커트러리 세트는 환경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으로 로앤김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완성했습니다. 이 협업 신제품을 통하여 우리 사회 속 식문화를 되짚어 보며 시의성 있는 친환경 이슈와 디자인의 연계성 그리고 식사 행위와 환경의 필연적 연결이라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런칭관 참여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요

환경 이슈와 결합된 디자인 콘텐츠의 가치를 반영하며 전시 기간 중 DDP 공간을 활용하여 제품 홍보 및 관람객의 체험을 유도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연출 매체를 전시하여 브랜드를 알리고자 합니다. 각 개인의 일상을 위한, 더 나아가 지구를 위한,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방식을 제안하는 브랜드인 만큼 우리의 삶 안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존재하고 더불어 독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멋지게 구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제품들을 알리고 싶습니다.

레토릭에게 DDP디자인페어란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 기업과 트렌드를 소개해주며 현재 디자인 업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게 되어 기대 또한 큽니다.

바른 가치를 힙하게 실천하는 디자인
DSLSM

브랜드명이 영어 약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브랜드 소개 부탁드립니다

'10년 후에도 우리에게 바른 가치를 만들자'라는 이념 아래 설립한 '디자인 스튜디오 임성묵'은 원천 기술과 디자인 개발을 바탕으로 자체 브랜드 DSLSM을 전개하며 B2B 협업과 디자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친환경 패키지 솔루션과 업사이클 판재 및 가구까지 카테고리를 넘나들며 곁에 두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브랜드만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는지요

어느 날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디자인 기획이 떠올랐는데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디자인은 바로 제 학부 졸업작품으로 진행했던 '모디백 MODIBAG' 이라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창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최근 몰두하고 있는 디자인을 소개해주세요

크게 2가지 제품 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한 친환경 패키지 제품입니다. 다양한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패키지로 친환경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업사이클 판재를 활용한 가구입니다. 디자인 스튜디오들과 함께 협업하여 패키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판재를 만들고 이 판재의 특징을 활용한 가구들을 개발하여 선보일 예정입니다.

DDP디자인페어 런칭관 참여를 통해 DSLSM 이 말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힙한 친환경 디자인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디자인이자 더 멋지고 유용한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또한 런칭관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함으로써 디자인 및 제조 분야에 다양한 분들과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HELLO, CREATORS!
서울디자인창업센터

푸들의 '플레이트 07'
(W)256 x (D)240 x (H)43mm / 소재 : 에코젠(친환경 신소재)

라이프앤콜렉트의 '양면 모듈 프레임(A2)'
(W)420 x (D)600mm / 소재 : 스테인리스, 아크릴

청년 창업 디자인 허브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디자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 차세대 청년 디자이너들의 활발한 창업을 지원하는 곳이다. 충분한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디자인 분야의 창업가를 발굴하고 디자인 창업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며 디자인 기업의 성장을 돕는 등 인큐베이팅 전반에 힘쓰고 있다. 청년 창업자들이 서로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창업의 시작과 성장을 공유할 수 있는 서울의 디자인 창업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시작

서울시가 조성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좋은 디자인 기반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다. 2009년 서울디자인재단이 설립된 이래 디자인 창업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2018년 8월까지 DMC 창업센터를 중심으로 디자이너의 창작을 지원해오다 2020년 7월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개관함으로써 디자이너가 디자인 기업가, 디자인 창업가로 성장하도록 견인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1기 시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2022년 공개모집을 통해 5개 기업으로 구성된 1기를 선정함으로써 본격 시작되었다. AC 1기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전략을 수립해 발표한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는 AC 1기뿐 아니라 서울디자인창업센터 1~3기 입주 기업 중 5개 기업도 함께한다. AC 1기에게는 1년 간 서울디자인창업센터에 입주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입주 공간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비스포크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 런칭

패션, 가전, 자동차뿐 아니라 무형 서비스인 금융, 교육 등 분야를 막론한 산업 트렌드인 '비스포크(bespoke)'는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입주 기업의 신제품 런칭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오드오피스 (대표 손하은·이성재)의 '낯가림', '못가림'이나 가림 제품에 부착해 사용하는 '얍', '허헛', '드르르', '오오오오' 등은 사용자 맞춤형 제품이다. 푸들(대표 윤채영·강종현)의 모듈형 다회용기인 '푸들 플레이트 07'과 라이프앤콜렉트(대표 박혜지)의 양면 모듈 액자 모두 사용자 맞춤 사용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한편 플랜테일러(대표 박동제·임다연)는 사용자 취향에 맞는 식물을 만들어 자신의 공간에 놓아볼 수 있게 하는 AR 기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스포크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DDP디자인페어 첫 참가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올해 DDP디자인페어에 단체 기획전 형식으로 처음 참가했다. 전시 부스 연출은 디자인창업센터의 아이덴티티를 부각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개별 입주 기업의 창업가와 브랜드의 스토리 그리고 제품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30개 입주 기업의 제품을 한꺼번에 펼쳐놓지 않고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관람객의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디자인창업가들이여, "Hello, Creators!"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디자이너들의 끝없는 도전과 변화 그리고 가능성의 실현을 지속해서 도울 예정이다. 또한 한계를 넘는 디자인을 통해 훗날 세상을 변화시킬 디자인 스타트업을 키워내는 산실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디자인 창업가들의 버팀목이자 디딤돌이 되어 아낌 없이 지원하는 서포터로서 세상의 모든 크리에이터들을 응원한다.

삶의 첫 순간이 DDP와 함께 기억되길!
2022 청년 디자이너 DDP 브랜드 상품전

서울을 대표하는 청년 디자이너 10팀

청년 디자이너 DDP 브랜드 상품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청년 디자이너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뛰어난 디자인 능력을 갖춘 청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DDP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브랜드 상품 디자인을 공모한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팀에게 현업에 종사하는 디자인 전문가의 멘토링과 시제품 및 양산품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10팀의 DDP 브랜드 상품은 DDP 디자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각 상품의 디자이너는 서울을 대표하는 청년 디자이너로 소개되었다.

삶의 첫 순간에 필요한 디자인 상품

누구나 한 번쯤 첫 출근, 첫 자동차, 첫 집과 같은 '삶의 첫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념하고 추억하기 위해 물건을 구입하기도 한다. 2022 청년 디자이너 DDP 브랜드 상품전의 주제는 바로 '삶의 첫 순간에 필요한 디자인'이었다. 디자이너 각자의 방식대로 누군가의 첫 순간에 필요한 상품을 DDP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상품으로 만들어 선보였다. 삶의 첫 순간이 DDP와 함께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설레는 작품들을 만나보자.

#첫일출여행 #팬트레이
일출 | 김경민, 김산하
측면에서 보면 산이 보이고, 산 사이로 놓여진 펜은 해가 되어, 일출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펜 트레이

#첫제로웨이스트 #비누
Pebble Soap | 길정연
DDP 형태의 조약돌 오브제를 둘러싼 비누를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누

#첫서재 #북엔드
Stack | 김슬기, 유지혜
DDP의 조형 계단을 모티브로 삼아 디자인한 북엔드

#첫꽃꽂이 #꽃병
보고꽃병 | 김미내
DDP에서 바라보는 노을을 이미지로 담은 꽃병

#첫일기 #다이어리
화이트 해커 다이어리 | 강소이, 구지애
투명한 페이퍼에 삶의 순간을 기록하면 중첩된 레이어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다이어리

#첫도전 #타이머
Ready, Set, Timmer | 김승철
초록 동그라미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피니시 라인 통과는 도전의 완성을 의미하는 타이머

#첫출근 #구둣주걱
DEAR | 강윤권, 권준형, 서아현
DDP 건축 곡선과 신체 곡선을 접목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가능한 구둣주걱

#첫그림 #크레용
콘-크레용 | 김정호, 박경호
DDP 건축 소재인 노출 콘크리트와 DDP의 낮과 밤의 컬러를 표현한 크레용

#첫저축 #저금통
블랙홀 | 김종건, 김현석
한 번 빨려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블랙홀의 이미지를 담은 저금통

#첫반려식물 #화분
디디.피움 | 정영준
나만의 독립 공간에서 함께 할 첫 반려식물을 위한 화분

#첫DDP #폰케이스에코백
케이에이스 | 남유진
삶의 순간을 기록하는 영수증 디자인과 DDP를 심플하게 표현한 그래픽의 가방과 폰케이스

#첫반려동물 #동물식기
첩첩반려 | 최보윤
내 생애 첫 번째 반려동물을 위한 입높이 맞춤 식기

#첫직장 #명함케이스
DDPC&DDPH | 유현준, 정수진
DDP 외부를 연상시키는 도트 패턴과 연속된 도트로 나만의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명함케이스

#첫아로마 #입욕제
For:est | 이채우, 이은진
도시 속 숨겨진 숲 DDP에서 느꼈던 여유를 따뜻한 욕조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아로마 입욕제

#첫DDP #유리컵
변화의 컵 | 박영두
하단 베이스는 과거 동대문 운동장 트랙, 상단 립은 현재 DDP의 비정형 곡선을 담은 컵

#첫집들이 #첫식기
첫 살림살이 | 박소연
우리의 첫 시작을 축하하는 식사를 위해 그릇과 컵으로 이루어진 식기세트

#첫시작 #가방
퍼스트백 | 복이안
새로운 시작을 앞둔 나 자신 혹은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첫 번째 가방

#첫출근 #데스크트레이
Arch. | 이범석
DDP의 3개 퍼실리티를 표현한 구조로 책상 위 사무용품을 정리해주는 데스크 트레이

#첫출근 #데스크트레이
WAVE | 박준
파도를 닮은 디자인으로 펜, 카드, 사진 등을 놓고 두고두고 볼 수 있는 데스크 트레이

#첫요리 #플래터
DDP Platter Series | 박진경
DDP의 건축적 형태를 담은 디자인으로 누군가의 설레는 첫 번째 플래터 세트

PART 4

2022 DDP디자인페어
행사 소개

10일동안의 열정과 열기! 실용적 미학의 가치가 더욱 돋보이는
상품들로 가득한 축제의 ‘DDP디자인페어’에는 아름다운 인생은 물론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디자인 네트워킹 파티, 갈라디너

2022년 10월 27일 저녁 7시, DDP 디자인랩 4층에 위치한 잔디 사랑방에 서울디자인2022를 함께 만든 운영위원, 큐레이터, 디자인기업, 디자이너, 청년, 소상공인, 바이어, 언론인들이 모였다.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디자인 네트워크 파티, '갈라디너'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 밤 갈라디너와 함께 DDP디자인페어 베스트 어워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서울디자인2022 운영위원과 큐레이터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6선과 시민이 선정한 시민상 1선이 '베스트 어워드 7선'으로 선정, 발표된 자리였다.

디자인 상품의 현재와 미래
베스트 어워드 시상

콜라보레이션 우수 120팀 중 7팀을 뽑는 베스트 어워드. 마지막까지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각 제품은 상품성과 창의성을 높이 평가 받았고 그 과정은 치열했다. 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꼼꼼한 심사와 온라인 시민 투표로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결과, 베스트 어워드 7팀이 선정되었고 서울디자인재단 이경돈 대표이사가 상을 시상했다. 관람객들의 갈채를 받으며 베스트 어워드로 선정된 7팀에게는 상품 양산을 위한 지원 비용 및 DDP 온·오프라인 스토어 입점 등 홍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디자인 기업 비즈니스 B2B 바이어데이

제일 먼저 디자인 트렌드를 읽고,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등장하는 국내외 바이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디자인 런칭 페어인 〈DDP디자인페어〉의 신제품을 1년간 기다려온 바이어들과 디자인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한 장이 펼쳐졌다. 〈서울디자인 2022〉에 국내 유통 바이어를 초청하여 상담을 지원하고 해외 바이어 기업 세일즈를 통해 실질적인 상품 거래와 입점 및 수출 등 유통이 가능하도록 사후 지원했던 현장을 돌아본다.

국내 바이어 상담

초청 바이어와 일반 방문 바이어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DDP디자인페어 참가기업 중 바이어 상담을 희망하는 담당자들은 상담 데스크를 방문하여 바이어와 매칭된 후 협업 희망 내용을 토대로 미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참가기업 유통, 플랫폼 입점, 유통거래 계약 등 실질적인 협의가 오고갔다.

해외 바이어 세일즈

해외 바이어로는 국내기업과 수출입 거래 또는 디자인 협업 이력이 있는 기업, 국내 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기타 수행사 추천 디자인 상품 실적 발생 가능 기업인지를 우선 고려했다. 이렇게 선정된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참가기업 세일즈 자료 취합 및 제작하여 해당 바이어 기업 담당자에게 유선 세일즈, 해당 참가기업 요청 시 수출 절차 진행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후속 지원과 성과 공유

B2B바이어데이를 통해 상담 후 거래 발생 시, 요청에 따라 거래조건 협의 등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절차 안내, 온라인 바이어 채널 입점을 위한 사진 촬영 스튜디오 등을 지원하였다. 해외 수출 무역 프로세스 후속 지원과 국내외 바이어 상담 수, 상담금액, 실적 등 성과 조사 및 공유도 이루어졌다.

서울디자인 2022 바이어데이 운영 결과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 10월 20일(목), 2일간
총 참여자 수 :	참여 바이어 총 122인
총 상담 건수 :	241건
총 상담 금액 :	5,376,600,600원 * 상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바이어의 경우, 상담 건수 및 상담 금액에 불포함

서울디자인산책: 서울디자인 2022 SPOT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일상 속 즐거움을 다시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서울디자인 2022〉의 스페셜 프로젝트다. DDP,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서울새활용플라자 세 곳을 거점으로, 국내외 잘 알려진 서울의 명소와 디자인 카페, 디자인 숍, 공공 전시시설, 디자인 스튜디오 등 서울 곳곳의 아름다운 디자인 스팟을 발굴해 소개한다. 스팟 리스트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공공시설부터 역사적 장소,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공간까지, 숨은 장소를 찾아내려고 한 노력이 엿보인다. 서울의 일상이 얼마나 다채로운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될 것이다. 디자인 스팟을 정리한 지도와 스팟 관련 자세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서울을 여행하듯 즐길 수 있다. '서울디자인산책: 서울디자인 2022 스팟'은 서울 전역이 디자인 축제의 장이자 디자인 비즈니스의 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점 15곳	문화공간 9곳	공공시설 7곳
카페 16곳	오픈 스튜디오 4곳	철물점 1곳
음식점 3곳	디자인 매장 34곳	미술관, 박물관, 디자인 전시장 22곳

서울디자인산책 홈페이지
https://seouldesign2022spot.or.kr/

PART 5

2022 DDP디자인페어
디자인 전문가들의 시선

국제디자인트렌드 포럼

BEAUTIFUL LIFE
트렌드, 변화와 기회
What's Now & Next?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DDP 컨퍼런스홀에서 '국제디자인트렌드 포럼'이 진행되었다. 〈서울디자인 2022〉의 주제 Beautiful Life를 디자인트렌드 관점에서 풀어낸 국내외 디자인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담론이 펼쳐지는 장이었다.

1일차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트렌드' 세션은 나건 홍익대학교 교수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의 진행 아래, 국내 디자인 산업 전문가와 현직 디자이너들이 국내 디자인 트렌드를 발표했다. 2일차 '디지털 디자인' 세션에서는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가 진행을 맡아 NFT, 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 비즈니스 전문가가 바라보는 미래 디자인 산업 트렌드를 소개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된 3일차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 세션에서는 해외 디자인 전문기관 대표가 발표자로 참여, 해외에서 바라보는 디자인 트렌드 전망을 이야기하며 포럼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팬데믹, K-콘텐츠의 세계화, 친환경, ESG, 메타버스, NFT 등 현재 우리의 일상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키워드들과 관련된 디자인 전문가들의 시각과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행사로, 이러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었다.

총 13인의 발제자 중 2022 DDP디자인페어에 콜라보 큐레이터이자 런칭패드관 참가사로 참여한 신태호 ㈜랩엠제로 대표, 올해 콜라보레이션 참가자이자 작년 베스트 어워드 시장장 수상자인 임성묵 DSLSM 디렉터, 그리고 올해 콜라보레이션 참가자이자 베스트 어워드 시장상 수상자인 정승문 라이트팹 대표 3인이 디자인 트렌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사용자 중심에서, 제조의 관점으로

(주)랩엠제로 대표,
MAEZM 공동대표
신태호

21세기 디자인 산업의 최대 화두는 '사용자 중심'입니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 방법론은 사용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경험에 방점을 찍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기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습니다. 최근 트렌드인 지속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사용자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재 중심의 디자인 방법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제조 단계 끝단계로 여겨졌던 소재가 현재는 기획의 앞 단계로 나와서 전체적인 디자인 방법론을 이끄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M.0(Material Zero-base)입니다. 소재(Material)를 제로(0) 베이스로 본다는 의미인데요, 소재를 연구하면서 이를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석유 기반의 신생 플라스틱 0%, 즉 대체 바이오 소재 혹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만 생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디자인 결과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최근 제품인 텀블러입니다. 겉 모습은 평범한 컵처럼 보이지만 바닥을 보면 이 제품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from wood to ground'. 나무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소재로, 일반 플라스틱과 똑같이 사용하지만, 사용 후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썩어서 없어지는 제품입니다. 컵의 이름은 리트컵입니다. 리트(REET)는 나무를 뜻하는 영단어 트리(TREE)의 알파벳 티를 뒤로 빼서 만들어진 단어로, 제품이 자연으로 돌아가 다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소재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자면, 결국 분자량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분자량이 높은 고분자 물질로, 분자의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분자끼리 서로 꽉 잡고 있는 상태라서 고리를 끊고 분해되기가 어렵습니다. 리트컵 소재의 분자량은 플라스틱의 1/4 수준으로 나무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20-30년 사이에 분해가 가능합니다.

제품 표면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저희 브랜드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네임이 '표면을 펼치다'라는 뜻의 언롤서피스(Unroll surface)입니다. 표면 아래 소재를 봄으로써 이제껏 당연시 여겼던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입니다. 흔히 PCR 플라스틱이라고 불리는 소재로, 재활용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버려지고 나면, 수거되어 분쇄 과정을 거칩니다. 분쇄된 플라스틱 플레이크는 녹여져서 흔히 용융이라고 표현하는, 작은 알갱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굳이 알갱이로 바꾸는 이유는 사출 성형에 적합한 소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녹여지고 섞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색이 만들어집니다. 완전한 하얀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첨가제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 회색을 새로운 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펜을 꽂거나 트레이에 작은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오거나이저입니다.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서 투박한 회색이지만, 그 단점을 기반으로 활용도를 높인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돌입니다. 흔히 문진이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버려지는 제품에서 플라스틱 소재를 모으고 분쇄해서 플레이크 형태로 만들고, 이를 압축해서 커다란 패널로 만듭니다. 그리고 CNC 커팅으로 가공해서 문진과 같은 제품으로 제작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표면이 매끄럽거나 깔끔하지 못합니다. 균일하지도 않습니다. 다양한 소재가 혼합된 재활용 소재이기 때문에 석유 기반에 각 뽑아낸 신생 플라스틱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패턴, 질감의 물성이 플라스틱의 인공 느낌을 감쇄해 줍니다.

다음은 버려지는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펠트 소재로 만든 후 개발한 제품입니다. 첫번째 제품은 펜트레이입니다. 부드러운 펠트 소재로 만들어져 데스크 위에 자기만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페트병은 사용하고 난 뒤 수거가 잘 되면 좋은 퀄리티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해서 재활용하기도 하죠. 모아진 페트병은 마찬가지로 분쇄되어 플레이크 형태가 됩니다. 이를 녹여서 알갱이 형태, 일명 펠렛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만들고 다시 녹여서 얇은 실로 뽑아냅니다. 안타깝게도 실제 산업에서 옷을 만들 수 있는 섬유의 비율은 10% 밖에 되지 않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제품을 조금 더 유용한 우리 생활 속 제품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펜트레이 이외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협업 사례도 소개 드리겠습니다. 언롤서피스가 스누피 가든과 콜라보하여 개발한 겉에 스누피가 그려진 귀여운 화분과 모종삽 세트입니다. 사용된 소재는 PLA 라고 불리는 식물기반 플라스틱 소재로, 생분해 플라스틱 중 하나입니다. 옥수수 전분이나 해초류 등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셀룰로스로 만들어져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가능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전세계 최초로 스누피 본사로부터 케어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플라스틱의 대한 다양한 이야기의 기반은 저희가 출간한 '매터'라는 매거진입니다. 매터mater는 소재라는 뜻의 매터리얼material의 어원으로 물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는 라틴어로 '엄마'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매거진은 전문적인 소재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를 통해 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소재로 플라스틱을 선택했고, 플라스틱을 주제로 선택한 것이었고요.

저희 회사는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소재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소재를 연구하고, 언롤서피스 브랜드는 지속가능한 소재와 제품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며, 소재를 중심으로 세상 이야기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소재 중심 디자인 방법론에 따라 여러 사업 분야에서 사용자, 사용, 기능이 중심이 아닌 제조 단계로 여겨졌던 '소재'를 최우선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이루고자 합니다.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임성묵
DSLSM 디렉터
임성묵

2015년 디자인 에이전시로 시작한 DSLSM은 스타트업계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이나 특허 디자인 등을 개발해왔습니다. 저희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면 10년 후에도 우리에게 바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작가의 입장에서 생존이 목표였지만, 제품이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버려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창작, 생산, 사용, 환경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권리와 구조, 유통, 마케팅, 경험, 폐기, 니즈, 소재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면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만드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협업 모델 그리고 최근에 진행한 콜라보 모델,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저희의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입니다. 주요 비즈니스는 브랜드를 위한 친환경 패키지로, 창작과 마케팅을 메인으로 하고 소재와 생산 쪽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라는 특수한 카테고리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협업을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회용품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이슈 입니다. 잠시 유예되긴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이미 2022년까지 오프라인 쇼핑몰 매장 내 일회용품 제로를 목표로, 일회용 패키지의 점진적인 감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발표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관련 시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패키지에 주목한 이유입니다.

저희가 잡고 있는 대표적인 수익 시장은 브랜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농식물 매장, 친환경 브랜드, 관공서처럼 친환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곳들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기능과 용도의 패키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를 고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은 지속가능한 쇼핑백인 '네트백'입니다. 시각적인 이유로 네트(그물)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있지만, 불어로 '순수한, 무결점의'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패키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첨가물 없이 순수한 단일 소재로 이루어졌다는 점이기 때문이지요.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용이한 이 쇼핑백은 그 자체로 이용하거나 방수 소재이기 때문에 샤워바구니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조적 변경을 통해 패션브랜드나 코스메틱 브랜드, 카페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도의 응용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네트백을 보고 연락하는 기업이 많았지만 열 중 여덟과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트백이 좋고 재미있지만, 우리 기업은 좀 더 평범하고 일반적인 패키지를 원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접착제나 실을 쓰지 않고 열접착만으로 가공하는 기술을 솔루션으로 고안하였고, 기업들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실이나 접착제보다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고, 단일소재이기 때문에 분리배출이 더 용이해졌습니다.

응용개발 사례로는 그물 구조 봉투, 사각 쇼핑백, 빵 봉투, 소형 파우치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계, 무게 분산 구조, 열 접착일 때 가능한 생산 구조 등에 대한 특허와 디자인권 등 친환경 패키지를 만들기 위한 권리 또한 꾸준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디자인 스튜디오로서 리빙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리빙 브랜드는 새로운 소품을 라인업하기 기대했고, 저희는 DSLSM의 디자인 역량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즐겨 사용하는 그물 구조를 활용해 인센스 홀더를 개발했습니다. 그물 구조를 메탈에 적용해서 조립하거나 추가되는 가공 없이 한 번의 단순 가공만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알루미늄과 황동, 그리고 최종 마감을 통해서 심플하고도 독특한 그리고 적재도 편한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패키지에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그 옆에 QR코드를 넣어 향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기저기 많이 소개되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전시도 함께 진행되면서 리빙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개할 내용은 2022년에 진행한 업사이클 판재 플라스틱 마블과 이를 활용한 디자인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소상공인 소재 개발업체로서 디자인 스튜디오 3곳과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패키지 생산을 꾸준히 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계속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한 방안을 보여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튜디오 페시와 협업한 테이블입니다. 사이즈 적인 가공 한계를 해결해서 테이블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찾아 개발한 제품으로, 예술의전당에 전시될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스튜디오 트로피크와 협업한 의자입니다. 트로피크는 가구와 인테리어를 핸드메이드로 작업하는 스튜디오로, 소재를 직접 밴딩해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앞뒤로 골고루 열을 주는 효과적인 밴딩을 위해 식당용 대형 토스터기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테리어 스튜디오 SPTL와 협업한 가구 디자인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판재를 효과적을 쉽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는데, 깔끔한 유리 단면이 보이면서 프레임으로 업사이클 판재를 이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진행 과정 전반의 중점은 결국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의 목표는 친환경 패키지부터 부산물, 집기까지 제작을 통해서 완전한 로스 제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무엇이냐?' 저희에게 물으신다면 '집중과 존중' 두 가지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함께 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믿음으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후에도 우리에게 바른 가치를 만드는 DSLSM이 되겠습니다.

공공 부분 조명디자인 트렌드

라이트팹 대표
정승문

시나 지자체 등 공공 기관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디자인 중 가장 큰 부분은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어두운 밤 불빛이 환히 밝혀진 환경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어 다니고 차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로등의 디자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가로등을 닦고 있습니다. 1800년대 모습입니다. 이 때는 가스나 기름을 때워 가로등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디자인한 가로등입니다. 지금도 바로셀로나 공원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불이 켜졌을 때, 불꽃의 부분이 노랗게 보이는 가로등입니다.

서울은 1930년대부터 그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는데, 1950년대까지는 거리 사진에서 가로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가스등이나 백열 전구가 있었기 때문에 카페나 가변에 있는 작은 보안등 정도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거리에 가로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말 사진을 보면 광화문 광장에 가로등이 보입니다. 시청사 주변으로도 가로등과 차량 신호등이 보입니다. 당시 가로등은 노란 불빛이 특징인 나트륨 램프였습니다.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에 이와 같은 노란색 불빛의 가로등이 설치되었습니다.

1960대 말 광화문 광장에 처음 설치된 가로등은 197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보이는 가로등이 세종로형 팔각테파폴입니다. 저는 이 세종로형 팔각테파폴을 '불후의 명작'이라고 부릅니다. 가로등 높이가 12m였는데, 당시 기술로 이 정도 높이의 폴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은 네덜란드 회사인 필립스가 일본 회사와 합작해 아시아권에 공급한 제품에서 따온 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을 본 따서 만든 가로등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1980년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가로등의 램프 색깔이 노란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1980년대 사진을 보면 가로등 밑에 구멍이 뚫린 디자인이 보입니다. 하얀색 램프를 켜다 보니까 날벌레들이 많이 꼬이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이처럼 하단 부분이 개방된 형태의 가로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980년에 들어서는 플라스틱 유리가 등장합니다. 세종로형 가로등들도 기존 유리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변경되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 형태 그대로 199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2000년대가 되어서는 등기구 디자인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기존의 세종로형 등기구가 사라지고 컬러가 들어간 헤드가 나타납니다. 등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헤드 컬러만 약간 바뀌면서 2000년대가 지나갑니다.

2010년부터는 가로등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광화문 광장의 가로등 헤드 모양이 원형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LED 램프로 교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LED 램프의 가격이 기존 나트륨 램프보다 비싸다 보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등기구에 25W형 모듈을 5개, 6개, 10씩 배열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듈이 배열된 형태의 등기구가 우리나라 전역에 퍼지게 되는데, 이러한 모듈화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보급된 특별한 형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듈 시스템이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미국 경기장의 조명을 납품하게 되는 등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램프의 컬러도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불빛이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3000K 정도로 색온도 구간이 일률적으로 유지되었지만, 현재 광화문 광장의 가로등 램프를 보면 4000~4500K 정도로 보다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로등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요즘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개장한 마곡 서울식물원에 가보면 멀티폴 스타일의 등기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헤드가 여러 개 붙어 있어서 마치 꽃봉오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의 변화뿐 아니라, 요즘에는 스마트-폴이라고 해서 폴 하나에 여러 기능을 다 심습니다. 가로등에 CCTV, 비상벨, 공공 와이파이, 스피커 등을 한 번에 설치하는 시스템이죠. 폴에 한 번에 결합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인데요. 폴 하나를 세우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신호등은 2500~4000만원, 가로등은 대략 1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가로등이 얼마나 하겠어?' 생각하겠지만 실제 투입되는 비용은 이처럼

굉장히 큽니다. 비용이 크다 보니 각각 따로 설치했던 부분들을 모아서 스마트 가로등에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공원 등에는 반드시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시스템들이 모두 컨버전스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명 분야는 정보가 적고 일반인이 접하기도 참 어려운 분야인 듯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로등 특히 공공 분야의 디자인 라인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요.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 관심있거나 도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하나 추천드립니다. 독일에서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조명 전시회인 '라이트 앤 빌딩(Light & Building)'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참여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길 조언 드립니다.

CURATOR

각자 다른 분야에서 각기 다른 위치에 있지만 일상을 아름답고 더욱 실용적으로 만들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2022 DDP디자인페어 큐레이터가 되어 행사의 전 과정을 함께했다. 디자인페어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콜라보레이션 큐레이터와 런칭 큐레이터의 기대와 설렘 그리고 열정은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발현됐다. 이번 디자인페어는 다른 해에 비해 참가자 수가 많았는데, 그들은 심사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브랜드와 디자이너,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찾아 냈고, 멘토로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날카로운 지적은 물론 참가자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스케치가 판매 가능한 상품이 되기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2022 DDP디자인페어 처음부터 끝까지 참가자들과 모든 여정을 함께 한 큐레이터. 짧지만 솔직담백한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디자이너와 소상공인 그리고 DDP디자인페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각자의 결을 찾는 시간

맺음 공동 대표

콜라보레이션 큐레이터

신태호, 조은환

콜라보레이션 큐레이터로서 처음 참여하시는데요

저희는 2007년부터 다른 관점을 유지하며 '따로 또 같이'의 방식으로 관계를 유연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2 DDP디자인페어에는 처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 디자인 듀오로서 기존 저희가 해 온 작업의 결이나 틀과는 조금 다른 프로세스라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분들은 물론 참신한 상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호기심과 재미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콜라보레이션 매칭 상품 심사평을 하신다면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을 매칭하여 상품을 만들어 낸다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박수를 보냈고요. 현업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시작부터 완성까지, 너무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은 상품들을 보고 놀랐어요. 참신한 아이디어는 물론 실생활에 유용한 아이템들이 많기에 디자인을 일상 속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양산될 수 있겠다는 확신도 들었고요.

현업 선배로서 참가자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단순 참여에 머물기보다 각자 다음 계획을 위한 발판으로서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DDP디자인페어를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개개인의 성취는 자연스럽게 본 페어의 다음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한 발 나와 다른 시각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좀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DDP디자인페어 측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주셨음 좋겠고요. 소상공인 실력자들이 많은 데 비해 참여에 대한 소극적인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DDP디자인페어 공간 큐레이팅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별도로 소개되기보다 다같이 어우러져 쇼룸 형태로 연출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개별 참여자가 부각되면서도 전시 전체가 하나의 Scene으로 보여지는 식으로요. 또한 전시의 지속가능성도 주안점을 두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시 공간에 사용되는 소재의 선택뿐 아니라, 전시 후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DDP디자인페어 주제이기도 한 'Beautiful Life'를 위한 디자인이란?

펜데믹을 거치면서 개인을 위한 삶을 넘어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이번 주제인 아름다운 삶을 위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콜라보레이션 전시는 올해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삶과 밀접한 공간이나 사물들을 이제 과거와 다른 관점에서 향유하고 있으며, 그 중심적 역할인 디자인에 대한 기대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디자인을 통한 Beautiful Life는 디자이너와 소상공인, 사용자 모두가 다룰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독창성 그리고 감성을 담은 지속 가능한 제품

이네 아트매니지먼트 대표

콜라보레이션 큐레이터

안강은

매칭 완료된 팀들을 위한 멘토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시제품을 상황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추어 반드시 나와야 할 방향대로 시제품들을 구성했습니다. 자원 순환을 통한 친환경 제품을 메인 테마로 한 팀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또한 작품이 아닌 제품을 만드는 만큼 소비자들이 느낄 체감 온도, 실용성, 국내 유통 절차, 유통 가격까지 보다 디테일하게 다각적으로 서로 얘기했습니다.

멘토링 보다는 서로 소통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경력은 물론 연륜이 깊은 소상공인도 많고, 유명 디자이너 못지않게 활발히 활동하는 디자이너도 있는 만큼 큐레이터라는 포지션 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멘토로서의 조언이기 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려했습니다. 소비자가 사용할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고 결국에는 소비자가 매력을 느끼고 구매를 해야만 지속 가능한 제품이 탄생되는 것이니까요.

멘토링 단계는 시제품 진행 단계였는데 관심 가는 상품이 있었는지

아직 시안만 나온 단계였지만 딱 봤을 때부터 가능성이 보이는 팀들이 꽤 있어요. 디자이너와 소상공인, 양쪽 경력만 봤을 때도 하이 퀄리티의 상품이 나올 것도 확실하고요. 그 외 제가 바로 당장 구입하고 싶었던 제품도 있었는데 바로 원목으로 만든 자동차 장난감이었습니다. 원목과 자동차 모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아이템에 따뜻한 재료와 너그러운 곡선이 더해져 나이를 초월한 감성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다고 할까요. 실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곁에 오래 두고 간직하고픈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원목 자동차처럼 말이죠.

기대와 관심의 이면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음, 솔직히 말하면 어디선가 본 듯한 제품들도 있었다는 것.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런칭하는 것이 목적인데 좀 더 고민하고 발전시키면 좋았을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물론 그게 카피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상품들을 접한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요.

DDP디자인페어 참가자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재작년에도 심사에 참여했었는데 소비자들이 뽑은 베스트 상품과 심사위원들이 뽑은 베스트 상품이 완전히 달라서 놀랐었어요. 이런 상반된 결과를 보면 정답이 없는 것도 맞지만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타협, 그 타협을 위한 융통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DDP디자인페어에 신청서를 낸 순간부터는 오픈 마인드!

두 번째 큐레이팅 하시면서 DDP디자인페어에 제안하고 싶은 점은

이번 페어에 재참여율이 두드러지고 이로 인해 지속 가능한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다른 큐레이터 분들과 함께 뿌듯함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소규모 또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국내 디자이너와 소상공인들이 일에 있어 터닝포인트이자 좋은 홍보 플랫폼으로 인식했다는 게 괄목한 만한 성과라 생각해요. 또한 회를 거듭할수록 아카이브가 남는 만큼 더욱 많은 이들에게 필수 교과서가 될 것임에도 확실하고요. 하지만 완성되는 상품의 퀄리티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을 들인 만큼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페어가 시작되면 달려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참가를 주저한다는 분들도 있는 만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또한 디자이너들은 소식통이 넓고 빠른 반면 소상공인들은 DDP디자인페어에 대한 정보를 알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실력 있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제안해 봅니다.

관계와 관심, 현재를 사는 디자인을 위한 키워드

이온에스엘디 대표

콜라보레이션 큐레이터

정미

첫 회부터 큐레이터로서 참여하셨는데 예년과는 다른 올해 만의 특징이 있다면

작년에 비해서 소소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콜라보레이션 자체에 중점을 둔, 즉 보여지는 외형과 스케일에 신경을 썼다면 지금은 좀 더 집중적이고 각 개인들의 감성이 많이 투영되었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안'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커지다 보니 예전에는 눈 여겨 보지 않았던, 어쩌면 하찮게 생각했던 사물과 공간과의 소통이 깊어 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익숙했기에 무심했던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소하고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것 같아요. 주변 모든 것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걱정,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 등등 그런 감성들이 시제품 제안서에도 고스란히 녹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디자이너와 소상공인 각각의 취향들이 좀 더 확고해졌음을 볼 수 있었어요. 한가지 더 괄목할 만한 점은 생경하게 느껴졌던 콜라보레이션을 이젠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콜라보레이션 이상의 의미를 좀 더 찾으려 노력하는 것 같아요.

콜라보레이션 이상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디자이너나 소상공인들 모두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는 분명 만든 목적이 있었을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쓰레기가 돼 버린 듯한, '혹시 우리가 예쁜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느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반면 쓸모 있는 걸 만들었다 생각했는데도 시간이 지나고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왜 하찮은 것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들이 일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랄까요. 활용도와 실용성을 더 많이 담고 생명력을 더 오래 키우기 위한 고민의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왠지 같이 성장해 나가는 느낌이 드실 듯하네요

매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불과 4년 전과 비교해도 이렇게 달라 졌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또 새롭고 다르게 변할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큽니다. 그러면서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DDP디자인페어를 통해서 한국의 스타 디자이너도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한, 그리고 앞으로 참여할 디자이너와 소상공인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무언가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만큼 책임감도 더 무거워졌고요. 하찮게 생각한 물건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 크고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자신감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자만심과 헷갈리면 안 되고요.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그저 자극적이고 겉만 화려한 자기소개서를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남의 것'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차피 다른 삶인데 부러워하거나 눈치 보고 따라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담담하게 본질에 충실한 시간, 즉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명쾌하고도 명확한 길이 보일 거예요.

올해 DDP디자인페어의 주제는 '뷰티풀 라이프'인데요, 대표님에게 아름다운 삶이란

제가 만든 물건이나 공간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관계와 관심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다면 디자이너로서 이 보다 행복할 순 없겠죠. 소소하고 하찮은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많아 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기에!

디자인페어, 시대가 원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

계원예대 리빙디자인과 교수

콜라보레이션 큐레이터

하지훈

이번이 벌써 세번째 큐레이팅이시네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만큼 부담감은 당연 있지만 세번의 참여로 연속성이 생겼다는 건 저에게도 장점으로 작용되더라고요. 재작년, 작년에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걸 개선시켜야 하는지 등 전체적인 맥락을 짚을 수 있다고 할까요. 이는 곧 참가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줄 수 있고 더불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좋은 제품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힘들지만 할수록 더 재미있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을 매칭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나요?

어렵다기 보다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큽니다. 각각의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강점과 특성, 그리고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성향 등을 보며 어떻게 매칭 하느냐 따라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평범한 제품이 아닌, 특별하면서도 실용성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죠. 저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닌 최상의 결과물을 향해 같이 간다는 것. 비록 날카로운 직언과 고민과 아픔들이 있겠지만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쓴 잔이라 생각합니다.

디자인 관련 디렉팅도 많이 하셨는데 DDP디자인페어를 정의한다면

70년대만 하더라도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때는 '디자인포장센터' 라고 말 그대로 외형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제조업이 많이 사라지고 서비스업이 생겨나면서 인하우스가 아닌 독립적인 디자이너와 소상공인들이 많아졌고 자연스레 디자인의 패러다임도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혹은 소규모로 프로젝트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기획, 디자인, 제조까지 모든 걸 스스로 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측면들-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 제품 홍보, 쇼룸 등-이 있는데 그런 답답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관통하며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DDP디자인페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와 소상공인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양쪽의 니즈가 딱 맞아 떨어지는 접점! 한마디로 공정한 기회의 장이죠.

이 페어에 대한 애정이 넘치세요. 그래도 다듬어 졌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텐데요. 정말로 가능성 있는 제품들,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든 디자이너와 소상공인들이 확실한 점프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육성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단계를 만든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힘들 수 있겠지만 회를 거듭할 수록 성숙해지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K-컨텐츠가 대세인 요즘, 글로벌 디자이너로 성장하려면

봉준호 감독이 언급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얘기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 문장은 어느 분야에서도 통용되는 진리라 생각합니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도 작가주의적 마인드를 갖추고 본인의 정체성을 더해 작업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차별적인 그리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번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한 디자이너와 소상공인 모두 각자의 색깔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글로벌화 하기 위한 결정적인 키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무얼 하건, 해외에서 무엇이 유행이건 이런 건 필요치 않아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자존감을 가지고 본인의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갈채를 받는 순간이 오니까요.

무한의 가능성,
잠재된 영향력을 일깨울 때

이노메싸 대표

런칭 큐레이터

마재철

많은 유럽 국가 중에 덴마크를 특별히 애정 하는 이유는

북유럽의 여러 나라와 사업을 하면서 그들의 감각적인 실용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되겠다' 싶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중 덴마크 제품들이 제겐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의 의심 어린 미미한 반응이 있었지만 제 확신은 제대로 맞아 떨어졌고 실용성을 장착한 디자인 리빙 제품들이 엄청난 사랑을 받기 시작했죠.

처음 참여이시지만 현재까지의 DDP디자인페어를 평가한다면

디자이너와 소상공인들이 보다 넓게 생각하고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몇몇 제품을 보고 한국에서만 마케팅을 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외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았으면 좋겠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 생각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예술성이 가미된 상품은 사용자 층은 물론 해외 진출의 한계가 있는 만큼 덜어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DDP디자인페어가 점점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더 확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참가시킬 디자이너나 소상공인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페어에서 런칭관이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추천한 브랜드는

세라믹을 기반으로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플라트오브제(fl.art_object)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사업을 확장 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추천하게 됐습니다. 세라믹에 대한 새로운 접근-세라믹을 2d화 하여 작업-이 인상적이었는데 런칭관을 통해 플라트오브제가 어떤 제품을 선보일지 큰 기대를 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전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DDP디자인페어가 앞으로 어떤 플랫폼이 되었으면 하는지

매년 해외에서 열리는 페어에 가서 디자이너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자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지 듣게 되는데 한국 디자이너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편이라 생각하는 만큼 너무 부럽더라고요. 시장 자체가 좁은 것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지원도 여전히 부족한 편이라 생각합니다. 디자인페어가 벌써 4회째로 큰 관심 속에 성장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은 이들을 열광케 하는 이노메싸 대표님으로서의 셀렉 기준이 궁금합니다

디자인으로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생명력이 짧다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너무 쉽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생성과 소멸의 간극차가 좁은 제품들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곁에 두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소재와 디자인면에서 만족감이 높은, 그런 제품들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번 DDP디자인페어에서도 제가 제품을 선택하고 심사할 때 저의 성향을 고스란히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만들어질 제품들은 짧은 시간에 보여주고 끝내기엔 참가자들의 열정과 열의가 대단하니까요.

소재, 디자인 거기에 실용성 까지.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있나요

1951년 처음 제작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덴마크 로젠달의 나무 원숭이를 예를 들 수 있겠네요. 덴마크에서는 전통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원숭이 인형을 선물하는데요 소재는 물론 가치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대를 이어져 내려오는 스토리를 담은 이 작은 어린이용 놀이기구는 덴마크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리빙 오브제로써 사랑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이 분명하죠.

깐깐해진 소비자의 안목,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루밍 대표

런칭 큐레이터

박근하

페어 제품 중에도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이 있었나요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완성도가 부족한 제품들이 다수였지만 제 시선을 사로 잡은 제품이 몇개 있었어요. 그 중 리사이클 패브릭은 보는 순간 바로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는 감이 딱 왔어요. 그 외 다른 제품들은 결과물을 봐야 보다 확신이 설 수 있겠지만 과정 중에 기대가 되는 팀도 꽤 있는 만큼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제가 운영하는 매장을 통해 판매도 해보고 싶습니다.

런칭관에 추천해 주시는 브랜드,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더욱 애정도가 깊어진 집이라는 공간 안에 즐거움까지 더해 진다면 금상첨화겠죠. 이런 금상첨화의 기쁨을 배가 시켜주는 위트있고 개성 넘치는 제품들을 제작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모스(mohs)입니다. 항상 마음속 보물처럼 담고 있었는데 이번 DDP디자인페어 런칭관에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대만족입니다.

리빙 1세대 루밍이 제안하는 리빙 트렌드가 궁금합니다

리빙 쪽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길 해요. 코로나 이후에는 각각의 취향들이 다양해지고 넓어져서 콕 짚어 '무엇이 유행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었던 코로나 이전에는 60% 정도 만족해도 그냥 집안으로 들였다면 이제는 100%가 될 때 까지 깐깐하게 고르고 구입을 하죠. 본인들의 취향을 알게 되면서 좋은 상품을 보는 눈도 높아졌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실용성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런 안목은 높아지면 높아졌지 다시 퇴보하지 않거든요. 어떤 상품이나 디자인이 트렌드를 이끄는 게 아니라 각자의 취향대로 그에 맞는 다양한 트렌드를 만드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제품을 만드는 이들에게는 조언이 될 수 있겠네요

비록 가격이 높아 딱 하나만 살지언정 오래 곁에 두고 쓸 물건을 고르겠다라는 구매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나 소상공인 모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야 하죠. 달라진 구매자의 소비 태도는 상품을 만드는 이들에게 깐깐하고도 까탈스러운 기준을 제기한 것과도 같습니다. 간혹 가격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상품들은 오래가지 못할 게 보이거든요. 사실 물건이란 게 한번 사면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결국 버려지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수명이 긴, 완성도 높은 제품들을 만든다면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구매자들에게 절약의 기회까지 선사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페어 제품 중에도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이 있었나요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완성도가 부족한 제품들이 다수였지만 제 시선을 사로 잡은 제품이 몇개 있었어요. 그 중 리사이클 패브릭은 보는 순간 바로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는 감이 딱 왔어요. 그 외 다른 제품들은 결과물을 봐야 보다 확신이 설 수 있겠지만 과정 중에 기대가 되는 팀도 꽤 있는 만큼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제가 운영하는 매장을 통해 판매도 해보고 싶습니다.

런칭관에 추천해 주시는 브랜드,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더욱 애정도가 깊어진 집이라는 공간 안에 즐거움까지 더해 진다면 금상첨화겠죠. 이런 금상첨화의 기쁨을 배가 시켜주는 위트있고 개성 넘치는 제품들을 제작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모스(mohs)입니다. 항상 마음속 보물처럼 담고 있었는데 이번 DDP디자인페어 런칭관에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대만족입니다.

리빙 1세대 루밍이 제안하는 리빙 트렌드가 궁금합니다

리빙 쪽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길 해요. 코로나 이후에는 각각의 취향들이 다양해지고 넓어져서 콕 짚어 '무엇이 유행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었던 코로나 이전에는 60% 정도 만족해도 그냥 집안으로 들였다면 이제는 100%가 될 때 까지 깐깐하게 고르고 구입을 하죠. 본인들의 취향을 알게 되면서 좋은 상품을 보는 눈도 높아졌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실용성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런 안목은 높아지면 높아졌지 다시 퇴보하지 않거든요. 어떤 상품이나 디자인이 트렌드를 이끄는 게 아니라 각자의 취향대로 그에 맞는 다양한 트렌드를 만드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제품을 만드는 이들에게는 조언이 될 수 있겠네요

비록 가격이 높아 딱 하나만 살지언정 오래 곁에 두고 쓸 물건을 고르겠다라는 구매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나 소상공인 모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야 하죠. 달라진 구매자의 소비 태도는 상품을 만드는 이들에게 깐깐하고도 까탈스러운 기준을 제기한 것과도 같습니다. 간혹 가격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상품들은 오래가지 못할 게 보이거든요. 사실 물건이란 게 한번 사면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결국 버려지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수명이 긴, 완성도 높은 제품들을 만든다면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구매자들에게 절약의 기회까지 선사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보다 오프라인, 대면 소통의 중요성

WGNB 대표

런칭 큐레이터

백종환

이번 DDP디자인페어에 런칭 큐레이터로 처음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DDP디자인페어라는 행사에 참여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디자이너와 소상공인 분들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각자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읽어보지 못했던 참신한 책 한권을 읽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제출한 소개서와 제안서 등을 읽어 보면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느낌표를 찍는 부분도 많았지만 저와는 조금 다른 소통 방식에 갸우뚱 할 수밖에 없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었어요.

다른 소통 방식이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젊은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만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과 방법론적 유행에 따라 온라인 소통이 너무나 당연한 것도 있겠지만… 방법과 방식이 오래되면 꼰대라고 치부하는 경향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직접 만나서 디자인한 의도와 그에 담긴 의미, 제작 과정 등등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최고의 소통 방식이라 생각해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생각치 못한 피드백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작업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요. 사람이 사용하는 걸 사람이 만드는 건데, 사람이 곁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DDP 디자인페어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로 소통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이죠.

새롭게 생기는 런칭관에도 소통의 효과가 높을 듯 한데요, 이 곳에 추천하신 브랜드는?

공간과 빛 그리고 사람과의 유대적 관계를 고스란히 잘 녹여 낸 모르피어(Morphere)라는 조명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빛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그걸 보고 느끼는 개개인의 감성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잘 표현해 내는 것 같아요. 또한 모듈방식으로 디자인되어 다양한 확장 가능성과 어떤 공간에도 맞게 적용될 수 있는 점 또한 모르피어 조명의 장점이라 할 수 있죠. 제품 디자인부터 제조, 조립, 박싱, 조립까지 모두 디자이너가 고민하여 만들어진 완성도 있는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제2의 백종환이 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생각하자'라는 회사 설립 당시 모토는 여전하지만 요즘 들어 한 가지 더 추가된 문장이 있습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를 오마쥬 한 것으로 '이이구심 락이구진' 즉 '쉽지만 깊이를 구하고 즐겁지만 진중함을 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쉽고 그냥 재미있게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중도를 잃지 않은 깊이와 진중함을 담고 그 자세를 잃지 말자는 것이죠. 저희가 만든 문장이지만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아, 그리고 제 소셜미디어에도 올린 얘기이기도 한데, 좋은 체력과 그에 따른 정서적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프거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대로 된 생각과 디자인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하니까요. 이런 체력적, 정신적 건강을 기본으로 인성이 더해졌을 때 좋은 디자이너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표님에게 DDP디자인페어의 주제이기도 한 '아름다운 삶'이란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는 날엔 경의선숲길을 항상 지나게 되는데 모두가 바삐 움직이는 아침에도 꽃을 찍는 분, 건물 파사드를 찍는 분, 그림자를 찍는 분 등 자신이 아름답다 생각하는 '것'들을 찍는 분들을 봤어요. 순간 뭉클하더라고요. 전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아도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그 자체. 아름다운 삶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디자인페어를 통해 출시될 제품들 역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물건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누군가에게 아름다움을 만끽 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유연성, 각자의 가치관이 깃든 콜라보레이션

AGO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런칭 큐레이터

유화성

다른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참여하셨었는데 DDP디자인페어만의 콜라보레이션 특징이 있다면

을지로 라이트웨이에 처음 참여했을 때만해도 취지는 좋았지만 '과연 좋은 결과가 날까?'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6년이 지난 지금, 페어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놀랄 정도예요. 일관된 콜라보레이션이 아닌 각자의 콜라보레이션 스타일을 직접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러한 자세 자체가 굉장히 성숙해졌음을 느낍니다. 규모면에서도 확실히 커진 듯하고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스케일을 크게 진행하고 움직인다는 것은 그 만큼 DDP디자인페어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 스케일이 커졌다면 내용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미 존재하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의 생각과 고민이 결과물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인 것 같아요. 트렌드라는 게 디자이너가 꼭 읽어야 할 흐름이긴 하지만 따라가야 할 지향점이 아닌거죠.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반영해 무언가를 만들고 그 무언가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제 나름의 新 트렌드에 대한 해석입니다.

스웨덴에서 일과 일상을 보내고 계신데 K-컨텐츠 파워, 그 곳에서도 느끼시나요

요즘 해외에서 업계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 디자이너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한국의 대표적인 디자인 행사가 무엇인지, 언제 가면 볼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렇듯 한국 디자인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기심은 한국 디자이너와 유연하게 연결되며 해외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타이밍에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조언이라면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알려진 디자이너들은 대외적으로는 콧대가 높고 자신감이 넘치지만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순간부터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 수렴하고 함께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이처럼 콜라보레이션 할 때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싶은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더 키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디자이너는 자아를 드러내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아니기에 클라이언트나 파트너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오픈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대표님의 기준으로 런칭관에 추천해 주신 브랜드(스튜디오)가 몹시 궁금한데요

수많은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지만 자신들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곳을 섭외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추구하는 청사진의 방향성이 확실, 확고하며 디자인에 있어서도 간결한 조형적 아름다움은 물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전달하는 바치 포 드웰링(BFD, Bacci For Dwelling)은 런칭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2 DDP디자인페어의 주제와 같은 질문인데요, 대표님에게 아름다운 삶이란?

표상적인 모습을 보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와 닿는 어떤 순간이 다가왔을 때 '뷰티풀'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은 결코 바쁘게 일하고 정신없이 살면서는 오지 않더라고요. 굳이 무얼 하지 않아도 오롯이 저 자신에게 편안하게 집중하는 시간에만 느낄 수 있죠. 이런 온전한 시간들을 가지며 돌아보지 못했던 주변의 사물, 생물들과 소통하면서 작업을 위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디자인이 필요한 곳에서 찾는 공유하는 공동의 가치

마음스튜디오 대표

런칭 큐레이터

이달우

서울디자인페스티벌 디렉터로, DDP디자인페어 런칭 큐레이터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런칭 큐레이터로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각도로 협력함은 물론 숨겨져있던 보석 같은 브랜드를 대중들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디자인 관련된 타행사와는 다른, 차별적 개성을 갖춘 DDP디자인페어에는 개인과 소상공인 물론 기업도 함께 참여하기에 생각했던 것 이상의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어 제가 먼저 신이 날 정도였어요. 물론 규모와 상관없이 페어라는 의미에 걸맞게 디자인과 상품을 보고 공정하게 평가, 조언하려 노력했습니다.

DDP디자인페어만의 차별적 개성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4회를 맞이하면서 디자인페어가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을 연결시켜 주는 새로운 형태의 매칭 플랫폼이란 건 많이 알고 있기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말하자면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로 전시와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닌,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 자체를 참가자들과 큐레이터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제게 있어 가장 매력적인 차별점인 것 같아요. 또한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하고 관람하는 연령대도 흥미로워요.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는 10~20대 분들이 대부분이고 리빙 페어는 20~30대에 반해 40~60대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DDP디자인페어는 모든 연령을 아우른다고 할까요. 이는 곧 많은 사람들이 페어 자체를 편안하게 받아 들인다고 볼 수 있겠죠.

매력과 흥미 가득한 DDP디자인페어에서의 큐레이팅,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다면

판매를 하고 구매가 되는 상품을 만드는 만큼 소위 잘 나가고 사업적으로 평탄하게 갈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페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어요. 지금 당장은 대단한 결과를 창출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준비된 자세와 유연한 소통 가짐을 갖고 있다면 더욱 눈 여겨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폭이 넓어진 이유가 있나요

디자인이 필요한 곳이라면 무조건 달려 가다 보니 -지금도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의 더 다양한 분들과 작업할 수 있었어요. 디자인은 단순히 예쁘게 시각화 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와 메세지를 담고 있어야 해요. 이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이 전달해 주는 힘에 사회성을 담을 필요가 있어요. 소외된 어떤 곳에 디자인이 필요한지 찾아보고 실천하는 것, 디자이너로서의 책임감이자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런칭관에 추천해주시는 보석 같은 브랜드도 궁금합니다

프로덕트 기반으로 테이블 웨어, 러그, 의자, 조명 등을 디자인 및 제작 하고 있는 감각적인 비포머티브(be formative)입니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결과물들이 공간에 놓이는 순간 사람과 공간과 함께 소통하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공간이라는 자체가 사람과 사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곳이잖아요. 사람은 공간 안에서 경험을 나누고 간직하게 위해 사물을 활용하는데 묵묵히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공간에 운치와 감성을 더해주는 비포머티브의 제품들은 볼 수록, 함께 할수록 쓰임새에 감탄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디자인이 풍성한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대표님에게 아름다운 삶이란

저는 유쾌한 듯 명쾌하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 디자인을 보면 뭉클해 집니다. 그런 뭉클함을 전하고 싶어서 디자이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요. 뭉클해 지는 순간은 이내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순간들로 가득한 삶이 아름다운 삶 아닐까요.

본질의 감성을 디자인하다

코웨이 디자인 전문가

런칭 큐레이터

이지현

작년 DDP디자인페어에서는 강연을 하셨고 이번에는 큐레이터로 참여하셨습니다

인하우스 디자인 전문가로서 협업을 많이 진행해 봤지만 이렇게 개인, 스튜디오, 소상공인, 기업 등 다양한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시작부터 긴장감과 더불어 기대가 컸습니다. 각각의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함께 얘기하다 보면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의견들이 충돌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제게 색다른 영감을 주었어요. 또한 가전제품과는 결이 다른 제품 하나 하나에 집중하면서 큐레이터로서 다른 제품들과의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지 등 흥미로운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결이 다른 제품 중에 호기심을 자극했던 아이템이 있다면

제품을 살펴볼 때만큼은 소비자의 마인드로 순간 변신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필요한, 실용성을 가미한 제품들에 유독 마음이 쓸린다고 할까요. 그 중 파티션 제품을 보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마이크로를 넘어 나노까지 세분화되고 있는 취향에 맞춰 같은 물건이라도 구매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변형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조형미도 뛰어난! 한국 젊은 디자이너들의 스마트한 감각에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가전 디자인 전문가로서 추천해 주신 스튜디오도 궁금합니다

두세곳을 추천했습니다. 첫번째로 추천한 곳은 백석대학교 교수님이 운영하는 작은 스튜디오지만 학생들의 작품을 상품화하고 있는, 의미와 열정을 갖춘 욤디자인스튜디오 입니다. 디자인 및 제작을 한 뷰티 마스크는 착용감은 기본이고 스타일리시한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착용해 보고 주변의 반응을 듣고 추천한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두번째는 CMF 전문기업인 인탑스입니다. 친환경 복합소재를 사용하여 환경을 지키는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으로 여러 제품 중 젠가는 놀이와 환경을 접목시켜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전시 효과는 물론 판매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추천했습니다. 그 밖에 브랜드만의 고유한 특색을 보여주는 제품과 소재를 디자인, 제작하는 업체를 함께 추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한 2022년의 가전 트렌드를 콕 짚어 주신다면

일상의 회복에서 오는 나비효과들이 아닐까요? 그동안 억눌러 있던 감정을 디자인으로 표현, 해방감과 그에 따른 기분 좋은 일탈, 시도해 보지 않았던 과감한 선과 색은 가전에도 적용되고 있고요. 이색적인 조합으로 쓰는 가전에서 보는 가전으로 즐거움을 더할 것 같습니다.

가전 디자이너를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디자이너 22년차인 지금, 과거를 되돌아보면 제가 한 디자인을 계속 차별화시키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차별화 진행을 하다 보면 본질이 흐려지고 그러다 보면 가전으로서의 기본 갖춤을 자꾸만 잃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본질을 생각하고 그것의 중도를 걷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형만 따르다 보면 생명력이 짧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페어 주제인 '뷰티풀 라이프'는 큐레이터로서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페어의 주제가 작년 '원더풀 라이프'에서 올해는 '뷰티풀 라이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아, 이젠 정말 미처 알지 못했던 일상이라는 아름다운 삶을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딜 가도 불안했던 지난 시간과 다른 서서히 조금씩 안정화 되가는 일상을 보면서 이것 자체가 아름다움 아닐까해요. 여전히 서로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DDP디자인페어도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기에 더욱 기다려졌었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여유로운 삶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2022
DDP디자인페어
공식 큐레이터

[콜라보]

신태호 Maezm 공동대표
안강은 이네 아트매니지먼트 대표
정　미 이온에스엘디 대표
조은환 Maezm 공동대표
하지훈 계원예대 리빙디자인과 교수

[런칭]

마재철 ㈜이노메싸 대표
박근하 루밍 대표
백종환 WGNB 대표
유화성 AGO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양태오 태오양스튜디오 대표
이달우 마음스튜디오 대표
이지현 코웨이 디자인전문가

나를 찾아서
리빙 코랄

상상과 모험
라펜더

ddp

일상을 담다
버디그리스 그린

2022 DDP디자인페어 콜라보레이션 우수 제품

가구 분야

제품명	소상공인	디자이너
플랜테이블 Plantable	감성공업 (심재명)	라이크모노핸드메이드 (김유경)
	instagram.com/gamsungjung_meal	likemono.co.kr
KNOT Stool	그라운닷 (김현진)	파운드파운디드 (송규호)
	groundot.com	foundfounded.com
에이 테이블 A Table	그라운닷 (김현진)	HSJG (김현석)
	groundot.com	hs2studio.com
스트럭쳐 체어 Structure Chair	그라운닷 (김현진)	로앤신 (노혁, 신영진)
	groundot.com	hyeokroh.kr
폰드 스툴 Pond Stool	그라운닷 (김현진)	토요가구클럽 (김재현, 김경민, 라연수, 유도헌)
	groundot.com	toyogaguclub.com
서프보드 테이블 체어 Surfboard table chair, 젤리피쉬 스툴 Jellyfish stool	기브앤테이크 (박정규)	테일야드 (황인환)
	ffffoundry.co.kr	hwanginhwan.com
바람의 모양 Shape of wind	대성기계 (김선환)	빈지니 (양진희)
		instagram.com/beenzeenee
논 퍼니처 시리즈 Non Furniture Series	동경금속 (천수열)	후스디자인 (이광후)
	dkhc2811.co.kr	hoosdesign.com
반 Ban	디지털편백(미세기술(주)) (류지현)	우드스튜디오 움 (이봉주)
	bwtc.co.kr	instagram.com/bongjoo_lee
오드로이	로이스토 (신지호, 이두성)	오드오피스 (이성재, 손하은)
	loisto.co.kr	instagram.com/odd.office
디 오션 The Ocean	르마블 (민병준, 조인영)	계리 (김계리)
	lemarble.com	instagram.com/kyeleekim
이클립스 Eclipse	르마블 (민병준, 조인영)	스튜디오 플라스틱 (이태연, 김시도, 박은경)
	lemarble.com	studioplastic.co.kr
ML 라운지 체어	메라톤 (김효진)	라바우언 (서영완, 정윤조)
	melatone.co.kr	labauen.com
에이에이에이 테이블 aaa table	메탈라이브러리 (김가람)	오오오엘 (최현준)
	instagram.com/metal_library_	oool.kr
더 테이블 The Table	메탈포인트 (신무호)	아키올로지 (장승주)
	-	instagram.com/archeology_official
잇다: 시간을 잇다 Connect: time goes on	모월 (이다정, 이수연)	다린 (오송희)
	smartstore.naver.com/mowol	-
클로버 트롤리 Clover Trolly	모월 (이다정, 이수연)	세컨드룸 (이지홍)
	smartstore.naver.com/mowol	secondroom.xyz
피스 콤비네이션 트롤리 Piece Combination Trolley	미식 (안서후)	박지선 (박지선)
	meeseek.kr	instagram.com/jeesun.p.iece
Marine Biology Series Sidetable	미식 (안서후)	손태선 (손태선)
	meeseek.kr	instagram.com/sontaeseon_
네오 프리미티브 Neo-Primitive	미식 (안서후)	이시산 (이시산)
	meeseek.kr	leesisan.com

제품명	소상공인	디자이너
대기 Atmosphere	보다.담다 (박찬훈)	발헤임 (박성상, 정한결)
	-	-
한옥 韓屋 Hanok	보다.담다 (박찬훈)	솥 (김대현)
	-	instagram.com/sot_1678
그리드 GRID	새턴바스 (이정용)	스튜디오 페시 (전병휘)
	saturn.co.kr	studiopesi.com
구조 스툴 Construction Stool	신우철 (신우철)	라연수 (라연수)
	instagram.com/woocheol_shin_	instagram.com/_rayeonsu/
표류하는 별 Drifting Star	아우트로 (전정필)	비아컬렉티브 (이한각)
	outrofurniture.com	via-collective.com
로우월 테이블 Low wall table	아우트로 (전정필)	이목스튜디오 (이하영, 목승수)
	outrofurniture.com	instagram.com/leemok.official
블루밍 체어 Blueming Chair	아이플레이스 (오건)	홍경민 (홍경민)
	-	instagram.com/hkm_work
인공지능 벤치 Ai Concrete Bench	아주산업 (김교준, 안준환)	젠디자인플랜 (나한범)
	ajucorporation.co.kr	instagram.com/Hanbeom_na
엘립소이드 Ellipsoid Basin	아주산업 (김교준, 안준환)	에프스퀘어스튜디오 (고든솔)
	ajucorporation.co.kr	fsquarestudio.com
도모 DOMO	아크플래닛 (김재범)	로이스토 (신지호)
	acplanet.modoo.at	loisto.co.kr
The leaf series_side table	어고 스튜디오 (한동기)	전형호 (전형호)
	ago-studio.co.kr	instagram.com/Jeon_hyungho
AXIS SERIES	어고 스튜디오 (한동기)	최우영 (최우영)
	ago-studio.co.kr	instagram.com/uyeong_choi
미음 MEEUM	오드볼 (유광식)	프래그난츠 (양태령)
	oddball.kr	-
Marine Biology Series Stool	오류엘리먼츠 (이규찬)	손태선 (손태선)
	instagram.com/oryuelements	instagram.com/sontaeseon_
이토 스툴 ITO Stool, 이토 체어 ITO Chair	오스오프 (최원서)	조영진 (조영진)
	oneseochoi.com	instagram.com/0jincho
우편함 선반 Mail box shelf	우드스튜디오 움 (이봉주)	고정호스튜디오 (고정호)
	instagram.com/bongjoo_lee	instagram.com/jeong_ho_ko
달토끼 시리즈 Dal Tokki series	우드스튜디오 움 (이봉주)	세네카 (조성환, 윤혜린)
	instagram.com/bongjoo_lee	smartstore.naver.com/ceneca
원 One	우디스트 (곽동철)	나너팀 (전희원, 허수정)
	instagram.com/woodist_studio	behance.net/h_1_go
마브 Movv	우디스트 (곽동철)	모두 스튜디오 (이규리)
	instagram.com/woodist_studio	instagram.com/mmodu_studio
SIDE BY SIDE	유싸 스튜디오 (유상현)	장승태 (장승태)
	instagram.com/yuxa_xtudio	instagram.com/_tae_jang_
P 테이블 P Table	인디앤코 (김종호)	이수 (이수훈)
	indieandco.co.kr	-

	제품명	소상공인	디자이너
	A.B 체어 A.B Chair	인디앤코 (김종호)	오래도록작업실 (김다온)
		indieandco.co.kr	instagram.com/ordr_studio
	공중 The air	짐머만 (김태훈)	로이스토 (신지호)
		zmn.kr	loisto.co.kr
	스마트 큐브 Smart Cube, 스마트 에이아이 스테이션 Smart Ai Station	짐머만 (김태훈)	까레 데 발렌시아 (김유신)
		zmn.kr	ysdns.kr
	Organic Tower 1	초타원형 (정현)	손태선 (손태선)
		superellipse.net	instagram.com/sontaeseon_
	CURVY SOFA	펠리토 (심지엽, 심지수)	토요가구클럽 (김재현, 김경민, 라연수, 유도헌)
		pellitosofa.com	toyogaguclub.com
	밴드 Bend	프랙티스 (이시산)	안서후 스튜디오 (안서후)
		practiceseoul.com	ahnseohu.com
	편히(들) 앉으세요 PLEASE, HAVE A SEAT	황동메탈 (최종선)	스튜디오 씰 (하정민, 이지우)
		hdong.org	-
	농 Nong	alltag (손세용)	스튜디오 뮤트 (김사라)
		instagram.com/alltag_furniture	studiomute.kr
	리타이벡 체어 Retyvek Chair	DSLSM (임성묵)	트로피크 (진성욱)
		dslsm.net	tropique.kr
	루버 LOUVER	DSLSM (임성묵)	스튜디오 페시 (전병휘)
		dslsm.net	studiopesi.com
	Nadar 나다르	DSLSM (임성묵)	스페이스텔러 (김주호)
		dslsm.net	instagram.com/spaceteller
	OV Systems	RKRN (박민수)	PACK (김준수)
		rkrn.kr	pack.systems
조명 분야	본 누드 Born Nude	드로잉캔들 (이은상)	손민식 (손민식)
		drawingcandlekr.imweb.me	instagram.com/deminsikson
	아토믹 케이지 Atomicage	라이트팹 (정승문)	모멘텀스튜디오 (유재곤, 김승균)
		mylite.co.kr	momentumstudio.co.kr
	CURVE LIGHT	보다.담다 (박찬훈)	보니또 (구민정, 한현빈)
		-	instagram.com/bonito_furniture
	숨_아이엔지 SOOM_ING, 올리_바 OLLY_BAR	소품소생 (오인석)	디자인 콜론디 (이재웅, 정현오)
		blog.naver.com/injya12	colon-d.co.kr
	루프_테이블 램프 Roof_Table Lamp	어바웃 매터 랩 (박형호)	스몰 스플레쉬 (지장원)
		plastic-bakery.com	small-splash.com
	콜로세움 Colosseum	우디스트 (곽동철)	인트 (유준형)
		instagram.com/woodist_studio	instagram.com/iiiiiiinte
	언스택 시리즈 Unstack series	원써드 (박선영)	아몬드스튜디오 (조수아)
		instagram.com/onethird_hwanghak	instagram.com/almond.studio
	Light Shield 1	초타원형 (정현)	im.joooon (임준성)
		superellipse.net	imjoooon.com

	제품명	소상공인	디자이너
	SHADOWING 1, SHADOWING 2	태광로드텍 (최정순, 송헌)	정수현, 홍종휘 (정수현, 홍종휘)
		-	-
	디저트 램프_시폰 케이크 Dessert Lamp_Chiffon cake	플라스틱 베이커리 서울 (박형호)	스몰 스플레쉬 (지장원)
		plastic-bakery.com	small-splash.com
	다이브 시리즈 DIVE Series	한성교구 (김태헌, 김석준)	로우리트 콜렉티브 (최재식)
		hsgg.co.kr	lowlit.co
	Hang series	황동메탈 (최종선)	권도연, 김산하, 송수빈 (권도연, 김산하, 송수빈)
		hdong.org	-
	밴딩 램프 Banding Lamp	PUM (신하늬)	스튜디오 아직 (신예원)
		instagram.com/popcorny_unicorny	instagram.com/studio.azic
식음 및 리빙	자연을 닮은 SNOW VAV의 패키지 이야기 SNOW VAV's Package Story that Resembles Nature	8월의 홍시 (한광수)	더블랙 (배재열)
		-	theblackad.com
	콤비 플레이트 Combi Plate	9E:83 (김승준)	스튜디오 아직 (신예원)
		-	instagram.com/studio.azic
	우드 토이 시리즈 Wooden toy series	그라운닷 (김현진)	에스투빅터 (서홍석, 박인규)
		groundot.com	s2victor.com
	무트 Moot	김다은 (김다은)	김민준 (김민준)
		kimdaeun.com	instagram.com/katze_il
	에코로지 온 니트 포스터 Ecology on Knit Poster	니들앤코(에코프리즘) (황혜경, 임정아)	오렌지도어 (윤경원)
		needlenco.com	instagram.com/team_orangedoor
	하우 멀티홀더 HOW Multiholder	대성기계 (김선환)	주얼리스튜디오 수진 (김수진)
		-	instagram.com/sujin_kim_in
	후크 도마 Hook Cutting Board, 오블리크 수저통 Oblique Cuttlery Case	대승테크 (선승엽)	HSJG (김현석)
		-	hs2studio.com
	가드너 모빌 Gardener mobile	더버터컵가든 (김원영)	신민정 (신민정)
		instagram.com/the_buttercup_garden	instagram.com/the_buttercup_garden
	타원 문진 Oval Paperweight	도담 (이도담)	유주 (정유주)
		-	yoojoo.kr
	페이크 램프 Fake Lamp	드로잉캔들 (이은상)	로앤신 (노혁, 신영진)
		drawingcandlekr.imweb.me	hyeokroh.kr, dailyview.creatorlink.net
	사각양초 Square Candle	드로잉캔들 (이은상)	전민우 (전민우)
		drawingcandlekr.imweb.me	instagram.com/studio_crafla
	인공지능 캔들 세트 Ai Candle Set	디쉐이프(메이커플래닛) (이재윤)	젠디자인플랜 (나한범)
		dshape.net	instagram.com/Hanbeom_na
	해 Hae, 구름 Goorm	디쉐이프(메이커플래닛) (이재윤)	전희원 (전희원)
		dshape.net	behance.net/h_1_go
	B-시계 시리즈 B-Clock Series	라익디스 (김주규)	DSLSM (임성묵)
		likethix.com	dslsm.net

제품명	소상공인	디자이너
론도 RONDO	라익디스 (김주규)	강종길 (강종길)
	likethix.com	instagram.com/jonggilkang
레토릭 커트러리 세트 rhetoric Cutlery Set	레토릭 (양소화)	로앤김 (노혁, 김종건)
	rhetoric.co.kr	hyeokroh.kr, jonggunkim.com
플라워온우드 원목 탁상시계 Flower on wood desk clock	루다하우스 (오상윤)	노디코마 (김영민)
	smartstore.naver.com/ludahouseinterior	nodicoma.com
Cut and Past	박준희도자기 (박준희)	스몰 스플레쉬 (지장원)
	-	small-splash.com
버드 베이스 Bird Vase	세라미꼬스튜디오 (황동환)	권영규 (권영규)
	instagram.com/ceramicco_studio	-
와시리즈-플레이트 Wa series-Plate	세라믹페이지 (원이정)	LHM (임형묵)
	ceramicpage.com	instagram.com/hyeongmuk8.8
꽉몬 바주카포&화염병 인센스 챔버 Kkwakmon bazooka&Molotov incense chamber	손쓰세라믹 (손용관)	아찔 (곽유미)
	instagram.com/sons_ceramic	artzzil.com
다정 茶程 Da Jeong	소품소생 (오인석)	UUJP STUDIO (유현준, 정수진, 박경서)
	blog.naver.com/injya12	behance.net/gallery/135532683/Non-Square
슬리피롤 Sleepyroll	슬로우와이즈 (최원혁)	크레카 (크레카)
	sleepyroll.com	creka.kr
자개 소품 Mother-of-Pearl Item	신도아트 (이희연)	더블랙 (배재열)
	sindoart.com	theblackad.com
오세라 테이블매트 O cera table mat	실리만 (신혜연)	라이크모노 핸드메이드 (김유경)
	sillymann.com	likemono.co.kr
A piece of Brrr 커틀러리 세트	어고 스튜디오 (한동기)	빈지니 (양진희)
	ago-studio.co.kr	instagram.com/beenzeenee
사운드 홀더 Sounf holder	오다 (정미영)	블루오션 (오현민)
	12oda.com	youtube.com/@octarine_diy/featured
블랑홀더 Blanc holder	유민 (이유민)	케라믹코드 (이은송)
	smartstore.naver.com/youminlee	instagram.com/keramik_code
침식 프로젝트 Erosion Project	유싸 스튜디오 (유상현)	COCS (박채원)
	instagram.com/yuxa_xtudio	instagram.com/chae.won.park
필로우 커버 레이어 Pillow cover layer	의식주의 (윤혜지)	리메이크 (조성은)
	instagram.com/amean.ing	instagram.com/remake_upcycle
인버스 Inverse	이시산 (이시산)	이시평 (이시평)
	leesisan.com	instagram.com/2cp0
쉼 Relax	커먼플래닛 (김지원)	오세디자인 (오세원)
	instagram.com/common_planet_studio2000	smii.co.kr
미러핍 Mirror peep	커먼플래닛 (김지원)	신우철 (신우철)
	instagram.com/common_planet_studio2000	instagram.com/woocheol_shin_
PIECE-PLAY	큐앤코 (김영규)	스튜디오 뮤트 (김사라)
	-	studiomute.kr

제품명	소상공인	디자이너
활짝 핀 러그 A blooming rug	큐앤코 (김영규)	라이크모노 핸드메이드 (김유경)
	-	likemono.co.kr
새라새: 사랑에 빠진 심장 SERASE: Heart of Love	프리징기프트향원 (김경원)	빠레브 주식회사 (김채연)
	serase.kr	-
Lumpy, bumpy	플레버스 (박예진)	수키 아카이브 (김혜윤)
	instagram.com/flavus_office	instagram.com/archive.suki
물 WATAVE	피아즈 (전보경)	와이에이 (장윤아)
	instagram.com/piaz_design	-
따로 또 같이 Separately and together	LHM (임형묵)	세라믹페이지 (원이정)
	instagram.com/hyeongmuk8.8	ceramicpage.com
패션뷰티 잡화	슬로우리백 Slow re:bag	금호싸인텍스 (류승희)	리메이크 (조성은)
		-	instagram.com/remake_upcycle
	그래픽슈즈 Graphic shoes	대한수제화협동조합 (전기태)	펜슨디자인 (류상연)
		ktshoes.co.kr	penson-design.com
	스마일 국화문 캔버스화 Traditional pattern and smile pattern collaboration sneakers	대한수제화협동조합 (전기태)	핸드플러스 (김주선)
		ktshoes.co.kr	handplus.modoo.at
	포움 X 세번삶은 라원소창 목욕가운 등 Rawon X POUM Sochang Bath Gown etc	라원_깨끗한주방 (서대원, 김수라)	포움 (장재영)
		rawon-cleankitchen.com	poum.kr
	나전자개 나빌레라 Nabilera: dazzling butterfly flapings	리플렉쉘(한국자개타일) (김유준)	실크도넛 (홍인숙)
		koreamop.com	instagram.com/silkdonut_official
	재생패트원단가방 Recycled Pat Fabric Bag	보쌈코웍컴퍼니 (김찬근)	강상규 (강상규)
		-	-
	와인 칠러 원통백 wine chiller cylinder bag	커스텀빌리지(슈퍼웍스컴퍼니) (전진우)	프라이데이 러브 (윤영주)
		customvillage.co.kr	fridaylove.co.kr
	DIY 커스텀 에코백 DIY Customizing Eco bag	커스텀빌리지(슈퍼웍스컴퍼니) (전진우)	널 스튜디오 (문소라, 이정민)
		customvillage.co.kr	instagram.com/nullstudi0
	리사이클 그래픽 풀오버 Recycled fabric graphic pullover	커스텀빌리지(슈퍼웍스컴퍼니) (전진우)	노디코마 (김영민)
		customvillage.co.kr	nodicoma.com
	카루 미니 토트백 Caru mini tote bag	티앤컴퍼니 (박세준)	라프리카라 (류민경)
		instagram.com/bag_pd	lapricala.com
반려동물용품	네임텍 퍼스널 장난감 Name tag personal toy for dog	네임포네임(유디케이) (김다혜)	오투스튜디오 (오정호, 오량탁)
		nameforname.co.kr	instagram.com/otwo.studio
	꽉몬 폽백링&왈몬 산책와펜 Kkwakmon poop bag ring for dog&Walmon walk wappen patch for dog	네임포네임(유디케이) (김다혜)	아찔 (곽유미)
		nameforname.co.kr	artzzil.com
	위빙 개 가방 Weaving Dog Bag	노스트로 (배장환)	HSJG (김현석)
		nostro.studio	hs2studio.com
	팻파트먼트 Petpartment	목공방녹턴 (유재영)	에스투빅터 (서홍석, 박인규)
		blog.naver.com/nok_turn	s2victor.com
	슬로우 피드 패드 Slow feed pad	의식주의 (윤혜지)	파운드파운디드 (송규호)
		instagram.com/amean.ing	foundfounded.com

ddp Design Fair

2022년 12월 13일 초판 인쇄
2022년 12월 13일 초판 발행

지은이
(재)서울디자인재단

펴낸이
이경돈

사업본부 디자인산업팀
이상묵, 정효순, 강지혜, 최주미
유고은, 이효원, 천윤영
서은아, 윤혜진

콜라보 큐레이터
신태호, 안강은, 정미, 조은환, 하지훈

런칭 큐레이터
마채철, 박근하, 백종환, 양태오, 유화성, 이달우, 이지현

진행
디자인프레스

후원·협력
까사미아, 다이슨, 록시땅 코리아, 빔인터랙티브, 삼화페인트, 아꼬제,
에피그램, 우리씨드그룹, 유한양행, 이마트24, 이수연플라워 가든팜,
자코모, 코오롱스포츠, 클리오 코스메틱스, 투힐미, 푸르다, 프린츠,
하이퍼스포츠클럽, 한국마즈 앰앤엠즈, 한솔 홈데코 라솔라, 헬리녹스

미디어파트너
중앙일보, 디자인하우스, 디자인해부학, 특허청 디자인맵, designboom,
DESIGN PRESS, Dezeen

기획·편집
권지애(권텐츠 컴퍼니)

디자인
안진현

펴낸곳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www.ddp.or.kr
www.seouldesign.or.kr
www.seouldesign2022.or.kr
www.ddpdesignfair.or.kr
www.ddpdesignfair-ex.or.kr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복제 및 무단 변경을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재)서울디자인재단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
ISBN 979-11-88219-98-8

값 18,000원